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인국동 로타리(조계사 옆) 종로구 수송동5번지 원일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3월 18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66 호

人蔘의 약효!
원비-디®

도심포교당 운영난 심각

일산 마하사 문닫아…성수동 능인정사 신도 격감
임대료등 운영비 부족…장학금·이웃돕기 등 차질

IMF 1백일을 넘기며 도심포교당들의 운영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서울 성수동 능인정사(주지 법경)는 최근 신도수가 40% 줄었다. 법회마다 법당을 채우던 신도의 절반이 빠져나가자 사찰 수입도 그만큼 줄어 매년 실시하던 불우이웃돕기와 노인정위문, 불우청소년 장학금 수여등이 꽁꽁 묶여버렸다.

95년 12월 개원한 일산 신도시 마하사(주지 종월)는 운영난을 견디지 못해 최근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아현포교원(원장 김영길법사)도 신도들의 발길이 끊어져 모든 포교활동이 중단된 상태. 매월 1백만원의 임대료를 포함 1백50만원 가량 소모되는 운영비의 절반도 채워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도심포교당의 운영난은 상가건물을 임대해 쓰는 포교당을 중심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게는 3백여만원에 이르는 포교당 운영비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개의 포교당은 다달이 들어온 시주금으로 운영되어 온 것도 운영난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다. 그간 도시포교의 모범을 보여 온 일부 포교당들도 수입 격감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포교원력하나로 도시지역에 포교당을 마련했던 스님들은 "어려운시대에 생활현장에서 고통받는 신도들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포교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며 IMF시대의 새로운 포교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등 각지방의 포교당들도 심각한 운영난으로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 〈김중근 기자〉



◇13일 종로일대에서 열린 '자비의 탁발'에 시민들이 참여해 쌀짓돈을 희사하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이루어 지길 염원했다. 〈사진=고영배기자〉

"소욕지족 생활정신 실천합시다"

13일 조계사서 '자비의 탁발' 선포식
19일까지 전국 교구본사서 탁발행사

제2회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자비의 탁발이 13일 조계사에서 선포식과 함께 시작됐다.

부처님 열반재일인 13일 오후2시 조계사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교육원장 암도스님, 포교원장 성타스님,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등 중앙종무기관장과 종단 중진 스님 3백여명과 신도등 2천여 불자가 참가했다. 선포식에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우리 출가수행자들이 거리로 나서 자비로운 보시와 소욕지족의 생활정신을 묵연히 호소하고자 한다"며 "불자들이 사회를 부처님 정법으로 변화시켜주는 주인공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포식을 마친 스님들은 조계사를 출발, 종로2가와 탑골공원 구간을 왕복하며 행인들을 대상으로 탁발을 했다. 자비의 탁발은 금산사(17일)등 지방 교구본사와 주요사찰에서 19일까지 이어진다.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오늘도 권영수(52)씨는 검은 안경을 쓴 채 조계사 법당으로 들어섰다. 하얀 지팡이로 더듬지 않아도 익숙한 길이다. 꽤 높은 법당 문턱도 쉽게 들어선다. 법당 한켠에 자리를 잡은 권씨는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다.

거룩하신 부처님. 그 온화한 모습이 보인다. 마음으로 보는 부처님은 늘 웃고 계신다.

"내생에 다시 태어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을 받고자 합니다. 금생에서 여러사람들에게 진 빚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소서"

멀쩡한 사람의 눈보다 장님인 권씨가 가진 마음의 눈은 훨씬 밝다. 권씨는 날마다 조계사 앞길에서 작은 바구니를 들고 동냥을 하는 시각장애인이다. 13년간 그렇게 조계사 앞길을 지켜온 권씨는 어느새 조계사의 '명물'이 되었다. 매일 저녁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는 권씨는 그날 하루동안 오가는 사람들에게 보시받은 돈의 일부를 불전함에 넣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권씨는 소찍새마을과 연꽃마을에도 매달 조금씩 후원금을 내고 있다. "땀흘려 번 돈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권씨의 얼굴은 여느 갑부보다 행복감에 차 있다.

마음의 눈 뜬 사람



권씨가 처음 조계사를 찾은 것은 13년 전. 어릴적 걸린 안질로 두눈을 실명한 뒤, 광탄치 않은 집안사정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처지가 서글퍼 떠돌던 시절이였다. 우연히 찾은 조계사에서 들려오던 법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느낀 권씨는 그 후 조계사에 신도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법회에 참석을 하고 있다.

86년에는 해인사 일타스님에게 '일봉(一峯)'이라는 법명도 받았다. 지금의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은 부처님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권씨의 마음을 눈치 챈 조계사 신도 강모씨의 권유에 의해서다. 최근 권씨는 생명나눔실천회에 장기기증 신청등록도 마쳤다.

"눈은 기증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은 큰 기쁨입니다."

〈김정은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불교문화 체험기행

따스한 봄햇살에 비친 부처님의 미소가 한층 정겹게 느껴지는 4월. 산과 들이 어우러진 넉넉한 내포땅의 소박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이 돋보이는 산사와 '백제의 미소'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4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온화한 미소로 정평이 나 있는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과 단아하면서도 기품있는 대웅전(국보 제49호)으로 유명한 수덕사, 개심사를 찾아 갑니다. 이 답답한 시절에 마음을 환짝 열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화사한 계절에 온화하고 따사로운 백제인의 숨결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백제인의 미소와 숨결을 찾아서'

수덕사, 개심사, 서산 마애삼존불

◇출 발: 4월12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5천원(점심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단체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현대불교신문사 협찬:일양약품 주관:혜초여행사

범행스님 선학원 이사 사임

팔달선원 분원장직도



현재 선학원 이사인 범행스님(팔달선원주지)이 재단법인 선학원의 이사직과 팔달선원 분원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범행스님은 10일자로 재단 사무국에 이사직과 분원장직 사임서를 각각 제출했다.

스님은 팔달선원의 분원장은 상좌에게 승계하고 이사직은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선학원은 이사회를 통해 범행스님의 이사직 사임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분원장직은 재단이사장의 결재로 범행스님이 지명하는 도제에게 승계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행스님은 73년부터 91년까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조계종이 선학원 소속 스님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현직 이사인 범행스님이 이사직과 분원장직을 사임함으로 종단과 선학원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종정스님 사표 일체 논의 않기로

조계종 신임원로 상견례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혜암)는 9일 신임원로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갖고 현 원로 도천스님(태고사 주지)을 명예원로로 추대했다.

원로회의는 종정 월하스님이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월하스님의 종정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4월까지 사표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원로회의는 또 지난 6일 해인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총무원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 관련자를 엄중처벌하라고 촉구했다.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조계종 봉축위 캐릭터 · 로고 확정

경제난 실업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상에 아기부처님이 자비와 희망의 연꽃을 들고 찾아 왔다.

봉축위는 작년에 좋은 반응을 얻은 아기부처님 캐릭터를 50여가지로 응용해 선보였다.

봉축위는 11일 지방봉축위원회 회의를 열고 봉축 현수막, 번, 입간판, 유니폼, 버튼 등의 모양과 각종 문양을 설명, 전국에서 통일된 캐릭터와 로고로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신도회 창립 1년 2·3면 | 법보시불서 실태조사 8면 | 행자에서 스님되기까지 11면



최고의 기술로 신뢰받는 기업-효성중공업

세계 어느곳에 내놓아도 경쟁력있는 기술,
우리 산업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기술-
효성중공업은 선이 굵은 첨단 기술로
우리 중공업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전력사업부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전사업부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사업부
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기에서 부산, 집중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건설부문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
Tel. 02)707-6114 Fax. 02)714-0707
http://www.nico.co.kr - 크로바서비스: 080-024-5282

사 설

중앙신도회의 앞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무렵 부처님의 장례문제를 걱정하는 스님들에게 "그것은 너희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신앙심 깊은 재가자들이 여법하게 여래의 장례를 치러 줄 것이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출가자와 재가자의 본분과 사명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비록 시대와 지역에 따라 출가자와 재가자의 역할 분담에 차이를 보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역시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근본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의 출가자와 재가자의 위상에는 분명 큰 잘못이 있다. 재가자들이 출가 스님들이 진정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온지 오래고, 그것이 고질화되어, 이제는 재가자들이 마땅히 맡아야 할 영역까지도 출가자들이 맡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재가자들 속에서도 승단에 대한 진정한 공경의 길을 찾고 재가자와 출가자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시도는 스님과 재가자 양쪽으로부터 매도되고 소외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조계종 재가신도를 대표하는 기구인 조계종 중앙신도회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5일로 창립 1주년을 맞는 중앙신도회가 그동안 어떤 위상을 지니고 어떤 일들을 해 왔느냐고 묻기에는 그 출범부터의 기간이 너무 짧았고, 또 과거 전국신도회가 뿌려놓았던 나쁜 인상을 씻고 새로운 모습을 모색하기에도 버거웠는지 모른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회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등 그 앞날이 평탄치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조짐은 단지 회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우연한 일이 아니고, 중앙신도회가 가진 본질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새삼 그 앞날이 걱정되는 것이다.

회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이유로 거론되는 몇가지 이유들을 보라. 신도교부금 적립금 일부를 중앙신도회 운영비로 지원받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총무원 지원이 전혀 없이 거의 송회장 개인의 출연으로 중앙신도회가 운영되는 방식을 지속하기 어렵다. 그 출발부터가 출가 승단의 지도 아래서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중앙신도회의 종속적 운명이 드러나지 않는가.

재가자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사부대중의 두 기둥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조직체계와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서,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거나 종단의 지원에만 매달리는 신도회의 모습은 우리 불교계 재가불자 운동의 현주소가 아닐까. 여기에는 중앙신도회가 단지 상징적으로 재가자들을 대표하며 승단의 들러리로서 명실상부한 재가불자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 온 중앙신도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라도 진정한 재가불자의 대표기구로서 새로 나는 힘든 과정을 거치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회장 사퇴의 소음이 수습된다 하더라도 참다운 중앙신도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자율적으로 천만 불자들의 뜻을 수렴하여 승단을 외호하며, 재가자들의 참다운 신행운동을 일으켜 가는 구심점이 중앙신도회라는 것을 안팎에 새롭게 천명하고, 새로운 걸음으로 당당하게 시작하라. 이것이 너무 지고한 목표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지레 포기하려거든, 회장의 사퇴 소동 등 파행을 겪으면서 제대로 위상조차 못 세우고 차츰차츰 사그러 들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형태든 결단을 내려 그를 통해 천만 불자들이 재가불자의 본분과 위상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포교가 필요한 곳이면…

"포교사 보내드립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포교센터' 19일 개설
사찰 · 신행단체 요청때 포교사 알선

조계종포교사단(단장 성타)은 포교사를 필요로 하는 곳과 포교활동을 원하는 포교사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포교센터를 포교사단 사무국에 개설, 19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포교사단 사무국은 8일과 15일 열린 서울·경기지역 포교사연수회에서 1백50여명의 포교사들에게서 포교센터 참여 신청서를 받았으며, 포교사를 필요로 하는 사찰이나 단체, 시설에서 요청하면 이들을 소개시켜 줄 방침이다. (신청문의 전화 02-737-7588, 팩스 02-720-7065)

포교사단은 또 부처님오신날 이후 △어린이·청소년 △사회복지 △직장·사찰 △특수포교(군·교도소) 분야로 나눠 전문분야 워크숍을 실시, 워크숍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원하는 곳에 연결해줄 예정이다. 워크숍은 강의와 토론, 현장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포교사단 사무국은 수원교도소의 요청에 따라 신입재소자 정신교육을 담당할 4명의 포교사를 3월초 추천하기도 했다.

포교사단 임동현 사무국장은 "포교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포교활성화를 기한다는 취지로 포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시범승가대 선정지원
조계종 교육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98년도 제1차 교직자회의를 열고, 사미니 승가대학 정원 확대, 시범승가대학 선정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술논문 창작을 위한 교수 연구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승가대학의 전공필수 과목외에 특강과목 개설시 계획안 검토를 거쳐 예산 및 강사를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종교계 북돕기창구
통일부, 긍정적 검토

정부가 대북식량지원 창구를 종교단체에도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교계 북한돕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는 현재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각 종교단체들이 연계해 식량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성금액 3억4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족화합 불교추진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북한 식량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계 IMF쉼터 연계프로 필요

구직정보 공유 · 공익사업 전개등

최근 교계에서 운영중인 실직자 쉼터들의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직자들을 위해 문을 연 교계 쉼터는 종단협 오뚜기쉼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불암사 자비의 쉼터, 광주 광륵사 무등쉼터, 직지사 니련선하 쉼터를 비롯 10여곳에 이른다. 이들은 한결같이 구직관련 프로그램과 참선, 사경 등 정신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지로 실직자의 취업알선이 어렵고, 또 몇몇 쉼터는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불교계의 쉼터들이 보다 긴밀한 연대를 통한 포괄적 네트워크를 형성, 정보교환과 프로그램 운영의 다각화 전문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하루평균 20~30여명이 찾아와 취업을 상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온 오뚜기쉼터의 경우 최근 각 언론매체, 중소기업중앙회, 노동부 인력관리공단 등이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구해주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내방자가 급격히 줄었다. 오뚜기모임터 서동석실장은 "초보적인 수준에서 나아가 실직자들의 개인성향 등을 설문조사해 자료로 활용하고, 실직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공익사업 등도 궁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칼럼 23면〉

해인사 총림-상림회 갈등심화

각종 불사 이견…유혈충돌까지
총 림 임의단체 인정 불가
상림회 불사 대중공청회 요구

해인사가 추진중인 각종 불사에 대해 의견을 달리해 온 해인총림문중협의회, 상림회와 해인사 총림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해인사문중협의회와 상림회 소속 스님들은 6일 오후3시 대구 성화사에서 모임을 갖고 △총림회의의 확대개편 △대규모 불교단지 조성불사의 타당성 검토와 전통사찰의 조형에 맞는 건축을 위한 대중공청회 개최 △성철스님의 사리탑 공사 중지와 해인사 전체의 비림조성계획 수립후 공사 진행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문중협의회와 상림회 소속 스님 20여명은 이 결의문을 종무소에 전달하기 위해 밤 9시경 해인사에 도착했으나 사중 측 스님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유혈 충돌이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몸싸움을 벌인 성공, 심적스님은 각각 전치 2주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중이며 성공스님은 심적스님을 폭행등의 혐으로 거창지청에 고소했다.

이와관련 해인사측은 10일 총림 명의로 '사부대중에게 알리는 글'을 통해 △총림최고의결기구인 임회를 존중하며 어떠한 임의 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총림질서를 어지럽히고 수행정진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자는 해종 해사 행위자로 의법조치한다 등 4개 결의사항을 밝혔다.

문중협의회와 상림회도 성화사에서의 4개 결의사항 등을 재천명하는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해인사는 성철스님 사리탑 공사, 불교문화단지조성 등 각종 불사와 관련 문도간의 이견으로 95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해인사는 작년 10월 16일 백련문도회와 상림회, 종무소 임자가 참여하는 9인위원회를 구성, 성철스님 사리탑 건립문제등을 위임 받았었다. 지난달 10일 해인사는 임회를 통해 성철스님 사리탑 공사를 진행하되 108평으로 계획된 기단석의 규모는 추후 조정키로 했었다.

해인사의 이번 사태는 한 총림안에서 수행하는 문도들간의 이견이 사회적인 물의로 확대되어 불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도간 갈등의 원인으로 성철스님 사리탑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미 입적한 '큰 스님'의 위상마저 실추시키는 것이란게 중론이다.



◇지난 11일 열린 교계 복지시설 · 단체장스님 간담회.

"깨달음과 복지불사 둘 아니다"

조계종 복지시설 · 단체장 스님 간담회

"깨닫지 못하고 중생 구제에 나서면 그들을 구렁텅이에 끌고 갈 뿐이라는 '禪제일주의'가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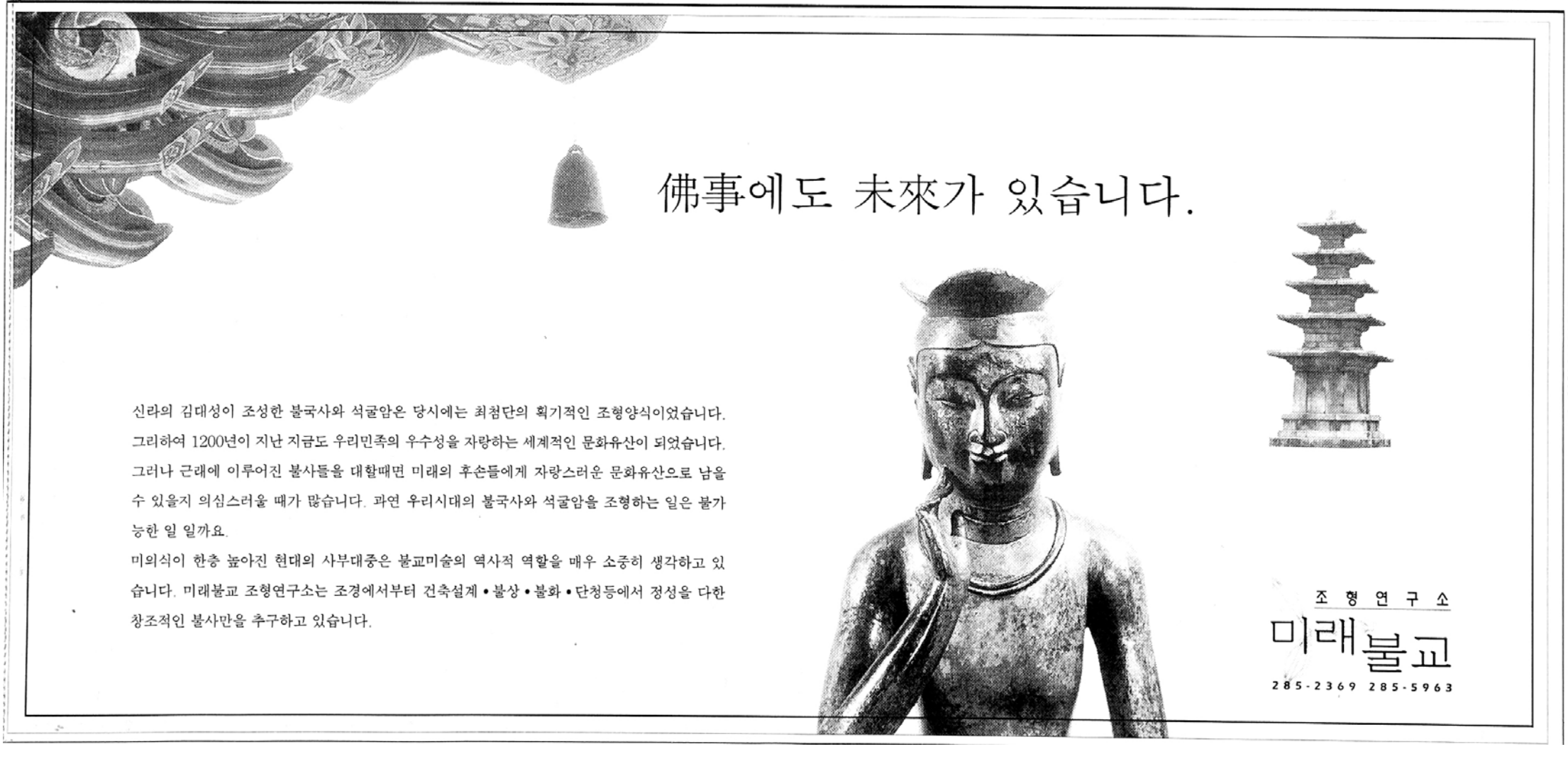
수행과 복지불사는 과연 반대 개념일까. 지난 11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월주)이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마련한 교계 복지시설·단체장스님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결론은 "보현·보살행이 없는 조세간적 禪위주의 불교는 대승불교가 아니다"는 것.

"복지불사 종단차원 지원" 월주스님 약속

불교복지사업의 상호유대와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대둔사 주지 천운, 중앙승가대 총장 지하, 신흥사 주지 도후스님을 비롯 20명의 복지시설 대표스님들은 총무원장 월주스님에게 종단 복지예산의 확충과 복지종사자 스님들에 대한 제도적(인사상)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날 송광종합사회복지관장 현고스님은 "스님들에게 내전교육과 함께 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해야 자리이타(自利利他)를 겸비한 수행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들은 이밖에도 △복지종사자 스님들의 (승가대) 재교육과 제도적 뒷받침 △승가대 복지학과 스님들의 현장교육 강화 △장애인복지의 강화 △종단간부스님들의 1일 장애체험 △중앙승가대 기원학사의 장애인 복지관으로의 전환 △자원봉사자의 양성 등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대해 월주스님은 "포교와 복지를 강조하는 대승보살사상 위주의 교육풍토가 조성돼야만 깨달음의 사회화도 앞당겨질 것"이라면서 "복지불사에 종단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재〉



포교인력 적재적소 활용 '기대'

조계종 '포교센터' 개설 의미와 과제

수요-공급개선…자질함양·전문화 필요
수도권만 운영 '한계'…권역별로 확산돼야

조계종이 82년 이후 배출한 포교사는 2천5백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포교사는 고급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종단 차원의 관리는 부재했다. '각자 알아서' 하는 식이었다.

애초 조계종은 포교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스님들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재가 포교사 배출을 시작했다. 포교대상인 일반대중과 생활상의 정서가 일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배출만 했을 뿐 활용은 못했다'는 비판적 결론이 지배적이다.

포교사단이 운영키로 한 포교센터는 그동안 배출만 했을 뿐 활용하지 못한 포교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포교사 관리의 부재가 포교현장의 황폐화를 불러 왔다는 그간의 지적을 감안하면 포교센터의 운영은 포교의 질적 양적 팽창을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포교센터는 포교사를 원하는 곳에 포교사를 공급하는 포교사은행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신입재소자 정신교육을 담당할 강사가 필요하다는 수원교도소의 요청에 따라 4명의 포교사를 추천하기도 했다. 또 포교사 관리에 종단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문제점도 몇 가지 지적된다. 우선 포교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합당한 포교사를 어떻게 추천하느냐는 문제다. 포교사로 임용은 했어도 해당 포교사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질을 갖췄느냐를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포교사 임용 때와 1년에 두차례 열리는 포교사 연수회에서 인적사항과 포교활동 계획서 및 포교활동 보고서를 서면으로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은 없다.

'포교센터'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포교사의 전문화가 필수다. 장애인포교나 군포교·어린이포교등 분야별로 특성화된 포교인력이 적재적소로 배치되어 포교능력을 극대화 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포교원은 향후 포교사 배출제로 자체를 수정해 포교사들이 의무적으로 전문분야의 활동력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포교사단은 전문포교사 워크숍을 통해 자질을 함양하고 포교 열의를 함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강의와 토론 현장견학, 숙박교육 등 4차례의 교육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화도 시급하다.

포교센터가 서울 중심의 수도권지역에 한정해 운영된다는 한계도 있다. 포교사단은 서울·경기, 대전·충청, 부산·경남, 전주·전북,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전국 6개 권역에 포교사지단이 결성되어 있다. 포교사단은 "현재의 역량으로는 전국을 관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모범사례의 창출을 통해 전국 확산을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신도조직화 '실천없는 메아리'

조계종 중앙신도회 '한 일 없는 1년'

사업계획 못세우고 회장 사퇴설마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창립된 지 15일로 1주년을 맞았지만, 축제분위기는 커녕 중앙신도회가 있는지 묻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중앙신도회 결성에 깊이 참여했던 한 재가불자는 "중앙신도회의 1년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새삼스럽다"는 말로 중앙신도회의 1년을 평가했다.

중앙신도회가 창립된 지난해 이맘 때 불자들은 재가신자의 조직화가 촉진되고, 신행활동의 사회적 회향을 통해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창립 3개월이 지나서야 첫 운영위원회를 열어 부회장단을 구성하는 등 출발부터 더딘 발걸음을 보였다. 이때부터 인선을 놓고 총무원과 중앙신도회의 불화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신도교무금의 관리를 중앙신도회가 요구한 것이 불화설의 표면적인 이유였고, 사업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1년을 보냈다. 작년 12월에는 회장이 소집해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승인할 정기대의원총회도 열지 못했다. 운영회의를 열어 예산과 사업계획을 세웠다.

최근에는 임기 2년중 1년만 채우고 사퇴하겠다고 밝힌 송재건회장의 거취문제가 또다시 불거져나와 더욱 어수선하다. 송회장은 지난 3일 열린 회장단회의에서도 사퇴의사를 밝히고 부회장 중에서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부회장들은 현 회장이 계속 맡아야 한다며 일단 만류하는 선에서 일단락했다. 한 회의참석자는 "송회장은 총무원의 비협조를 매우 섭섭해 했다. 사퇴의사가 강한 것 같다"며 송회장의 심정을 전했다.

총무원은 내심 송회장이 사퇴의사를 직접 밝혀오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호근·안동일씨 등 부회장의 이름이 차기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도 총무원의 입장과 무관치 않은 것이며, 이는 초파일을 앞두고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으므로 회장대행 체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풀이다.

재가불자 공동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중앙신도회는 교계언론으로부터도 주목받지 못했다. 단지 회장 사퇴문제가 언급됐을 뿐이다. 그만큼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흘려보낸 1년이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사퇴문제와 총무원-중앙신도회의 불편한 관계에 매달리지 말고 신도조직화와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불자상 정립에 나서기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포교에 매진해 온 도심포교당들이 IMF장기화로 총체적 경영 위기에 놓여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포교당 법회장면

IMF영향 신도·시주금 '절반으로'

실직자법회등 포교전략 구상해야

도심포교당 운영난 원인과 대책

국제통화기금(IMF) 파고에 도심포교당들이 좌초의 위기에 놓여 있다. 경제난국속에서 신도수와 시주금이 갈수록 격감됨에 따라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전법의 원력하나로 도심속에 둥지를 틀고 포교활동을 펼쳐 온 포교당들. 그러나 IMF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무풍지대일 수 없는 실정. 특히 소규모로 운영되거나 개설 5년 안팎의 포교당은 충격이 더욱 크다. 경제난이 장기화되면 도심 포교당들의 설자리조차 없어질 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처럼 도심포교당들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원초기부터 경제적으로 탄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황무지나 다름없는 도심속에서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적은 시주금으로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등을 비롯 각종 세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IMF상황이 운영난으로 직결되고 있다.

특히 도심포교당들이 IMF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는 신도들의 인식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자들 대부분이 도심포교당보다는 산사의 분위기를 선호해 발길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포교당 신도는 모일 때는 낙엽처럼 쉽게 쌓이지만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흩어진다"는 한 포교원스님의 경험담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한편 도심포교당들이 총체적 경영위기에 처하자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포교활동보다는 사주나 관상, 천도재 등 기복위주의 운영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단이나 대규모 사찰차원의 지원, 포교당스님들의 적극적인 환동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포교당들도 실직자들을 위한 법회나 기도등 시대흐름에 맞는 포교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김중근 기자

목어

향기로운 선물

"이 책과의 인연공덕으로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올해 80세인 노보살님은 최근 출간된 〈생활속의 불법수행〉에 이런 발원을 담아 법공양을 했다. 대중의 갖가지 의증을 풀어주는 대행스님의 법어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다. 이 책을 보시 받은 한 불자는 다음과 같은 회신을 전했다.

"향기로운 선물 잘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의 법문은 법보(法寶)로서 깨달음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다. 법공양은 사람들을 법의 곳간에 들게 하여 결국은 진리에 눈뜨게 하는 전법이다. 우리는 그래서 법공양을 공양중의 으뜸으로 꼽는다.

부처님께서도 여러 경전에서 반복하여 강조하셨다. 수미산왕 만한 칠보의 무더기를 보시한다해도 경의 사구게를 수지독송하여 다른 사람에게 준 한 복덕에 도저히 미칠 수 없다고 일러주셨다.

돈과 보물에 눈먼 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불법이 널리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가르침대로 살게되면, 그때 그곳은 정토다. 따라서 법공양은 법의 향기로 예토를 정토로 가꾸는 불사다. 작은 불서 한권이라도 나눠 읽는 일은 그래서 소중하고 또 소중하다.

요즘 '출판계를 살리자'는 소리가 나라안에 가득하다. 대형 서적도매상의 부도로 출판계가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출판은 지식산업이다. 출판문화의 발전없이는 지식과 정보시대인 21세기에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출판계는 이러한 명분아래 정부에 긴급자금 5백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원력으로 일해온 불서 출판사들도 타격이 크다.

불서 출판사 활성화를 위한 교계의 자구책은 없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1천만 불자를 독자화하는 길이다. 만약 1천만 불자 중 절반인 5백만명이 매월 불서 1권씩을 사서 읽거나 법공양을 한다면 1년이면 6천만권을 유통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전국민이 불서와 만나는 인연 공덕을 짓고도 1천5백만권이 남는 숫자다.

지금부터 불자들은 수시로 향기로운 선물을 나누자. 자신부터 향기로워 질 것이다.

"1심인당-1복지시설 운영"

수요 인터뷰 — 진각복지회 상임이사 회정 정사

수련원·실버타운 건립 국제구호사업도 계획

1990년부터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복지사업을 준비해 온 진각복지회 상임이사 회정정사(진각종 총무부장)를 만나 운영계획을 들었다.〈편집자주〉



- 진각복지회 설립 목적과 사업목표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진각종은 종단 내실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사회에 환원할 때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방법이 바로 사회복지 사업이죠. 복지사업은 포교·교육사업과 함께 종단 3대 사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4년여 전부터 본격적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고, '준비된 재단'으로서 위상을 갖는데 노력을 기우려 왔습니다.

- 주로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실 계획이십니까.

▲이미 단기 및 중·장기사업으로 복지사업 분야를 분류,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시설 위탁운영에서부터 자원봉사센터 운영, 불우이웃 결연 및 후원사업, 장학사업, 사회복지 자원 조사·연구 및 개발은 물론이고 청소년 수련원 및 실버타운 건립, 장묘사업, 국제구호 및 협력사업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복지사업운영의 종단적 방침은?

▲모든 복지시설을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 심인당 1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진각복지회 운영도 지금은 종단 교역자 중심이나 향후에는 경제적 여유와 복지사업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사로 대폭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북녘동포를 위한 복지사업 계획도 있으십니까.

▲물론 국제구호 및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5년 내에 UN국제구호기구 가입을 목표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사위기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북동포 지원이 우선일 것이며, 종단 내부적으로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필선 기자

사부 대중에게 드리는 글

- 우리의 입장 -

해인사를 아끼는 사부대중 여러분!

해인사 각 문중의 재적승으로 구성된 '해인총림문중협의회'와 해인승가대학 동문들로 구성된 '상림회'는 작년(1997)년 가을부터 1,000평 가까운 대규모 성철 큰스님 사리탑을 조성하는 일, 사기성 계약을 맺고 600억원대의 납골당을 가야산에 건립을 추진했던 문제, 400억원대의 대규모 불교문화단지 조성불사(박물관, 만불전, 대불, 연수원, 연구소등)를 타당성 검토없이 졸속하게 추진하는 점,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사업이 1년이 넘게 추진되어 발주단계에 이르도록 수수방관하는 일 등을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무소는 이를 고압적으로 묵살하면서 무리하게 계속 각종 공사를 강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해 왔고 동조하는 말사주지에게는 인사압력까지 넣는 부당한 처사를 자행하였습니다.

급기야 종무소측은 최근 3월 6일 오후 총림문중회의를 가진 뒤 결의문을 채택하여 저녁에 이를 전달하러 간 대표 방문단을 해인사를 점거, 접수하러 온 폭도로 규정하여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 한 스님을 중태에 빠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인사는 지금 가야산을 훼손하여 경제수익을 앞세우는 대형개발불사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연환경을 수호하고 수행과 교육을 중시하는 청정수행도량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여 주시고 해인사가 명실상부한 모범적 수행도량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현재 강행중인 대규모 성철큰스님 사리탑공사를 중지하고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해인사 전체의 비림(碑林) 조성계획을 수립 후 공사를 진행하라.
2.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불교문화단지조성불사(박물관, 만불전 등)의 타당성 검토와 전통사찰의 조형에 맞는 건축을 위해 대중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사업 중지를 위해 해인사 종무소는 적극 대처하라.
4. 대중공의 수렴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인총림 임회를 확대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5. 이번에 참혹한 폭력행위를 한 당사자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 종헌종법에 의한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을 요청한다.
6. 우리는 어떠한 폭력도 거부하며 평화적 토론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인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불기 2542(1998)년 3월

해 인 총 림 문 중 협 의 회 상 림 회



◇BBS특별좌담회에는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강원룡 목사, 김옥균 주교, 최근덕 성균관장 등 4대 종교지도자가 참석해 '범종교 실천강령'을 방송을 통해 발표했다.

"국민화합 종교계가 앞장을"

4대 종교지도자 국난극복 토론회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 우리나라 4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교방송 주최의 '국난극복을 위한 범종교 토론회(14일 오전9:05~10:55 방송)'를 갖고 분열된 국론을 화합하는데 종교계가 앞장서자고 의견을 모았다.

월주 총무원장을 비롯 한국 크리스챤 아카데미 강원룡목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김옥균주교, 성균관 최근덕 관장이 참석한 이번 좌담회에서 월주스님은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사치와 낭비 풍조가 조장돼 현 위기가 도래했다. 여기에는 정신 계몽을 하지 못한 종교인들 책임이 크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강원룡목사는 "분열된 국론을 끌어 모으는데 종교계가 발벗고 나서 화합과 평화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종교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IMF 실직자들을 위한 각 종교계의 역할이 비중있게 논의 됐는데 월주스님은 "불교계는 성북동 길상사 등의 쉼터외에 실직자 직업 알선 기관을 서울에 다섯곳 정도 더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날 △국민에게 용기를 주는 정신적 기틀 마련에 종교계가 앞장설 것 △이기심을 버린 생명 중심 사회를 위해 종교적 가르침을 적극 실천할 것 △교세의 외형적 성장보다 이웃 사랑을 위해 힘쓸 것 △미래의 정신적 문화를 이끄는 일 △근검절약을 실천해 거국적인 경제살리기 △남북, 지역, 계층, 세대의 갈등을 없애고 화합과 조화 추구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종교 실천강령'을 발표했다.

김주일 기자

김충현 대표작 서예전

17일부터 예술의 전당



한국서단의 원로 일중(一中) 김충현선생(77)이 17일부터 4월12일까지 서초동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대표작 특별전을 갖는다.

예술의 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김선생의 대표작들이 연대별로 163점 전시된다.

예술의 전당이 올해부터 실시하는 '현대작가특선'의 첫번째 작가로 선정된 김충현선생은 한글서체개발에 매진, 훈민정음의 고관본체에 한문서예의 전법과 예법을 도입한 '고체'를 구사하여 한글서예의 새로운 표현영역을 제시했으며 한문서예에도 능해해, 행, 초를 두루 섭렵하였고 각 서체의 특징을 한 화면에 담아내는 행 초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경지를 이룩하였다.

이번 특별전에는 독특한 서법으로 쓴 '월인천강지곡' '흥경사비시' '농가월령가'등 1940년대부터 최근에 쓴 '政治民安'등 한국서예사에 큰 획을 그의 대표작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친동생들인 여초 김응현, 백아 김창현(작고)씨 등도 모두 서단 최고원로로 꼽힌다. 〈숙〉

회암산림 대법회 열어



고산 혜원정사 조실은 부산 혜원정사에서 3~12일 제7회 화엄산림대법회를 봉행했다.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혜총 감로사 주지는 8~12일 2천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제47회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를 봉행했다.

'존경받는 인물상' 수상



정각 부산종교인평화회의 공동대표(부산 미륭사 주지)는 7일 YMCA 대강당에서 부산 흥사단이 제정하는 제2회 존경받는 인물상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산신재 · 축대불사 준공법회

선암 강회 적석사 주지는 29일 오전 11시 산신대재 및 축대불사 준공법회를 봉행한다.

교차로



대구불교 청년승가회장에



동진 대구 망월사 주지는 12일 제2대 대구불교청년승가회장으로 추대됐다. 청년승가회는 대구지역 40대 전후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96년 2월 결성했다.

여주서 국난극복 방생법회



지현 봉화 청량사 주지 스님은 20일 여주 신륵사에서 IMF 국난극복을 위한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삼화불교대학 입학식

혜인 삼화불교대학 학장스님은 7일 오전11시 동국대 문화관에서 제9회 입학식을 거행했다.

석굴암 · 감은사지등 답사

이근후 한국석불문화연구회장은 21~22일 경주 석굴암, 삼불사, 골굴암 마애불, 감은사지를 답사한다.(02)760-5171

민족문학작가회 이사장에



신경림(시인) 민족문학작가회 이사장은 9일 민족문학작가 정기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은해사서 '불교를…' 특강



윤청광 방송작가는 30일 오전11시 은해사 대웅전에서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동국대 겸임교수에 위촉



임권택 영화감독은 98학년도 동국대 연극영상학부 겸임교수로 위촉돼 12일 첫 강의를 시작했다.

'IMF시대 여성 역할' 강연



이양길 지사연수원장은 9일 김천파크호텔에서 열린 김천지역 차세대 여성협의회 회원 특강에서 'IMF 시대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방송모니터 구성 워크샵

김재일 보리방송모니터회 회장은 보리모니터회 창립 8주년을 맞아 21, 22일 괴산다보수련원에서 신행단체 및 사찰방송모니터 구성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다.

상담심리학 강의

방기연 선재연구모임 심성계발부장은 23일 매주 월요일 인성개발연구원의 전문상담학교에서 상담심리학을 강의한다. (02)825-7020

춘천 도림원 개원 봉불식



김부봉 혜광맹인불자회장은 26일 오전11시 창립 9주년을 맞아 춘천시 남산면에 도림원을 개원하고 봉불식, 낙성식, 천등불사를 봉행한다. (02)929-0006

'21세기 청소년 봉사' 세미나

이수옥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은 '21세기 청소년자원봉사의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평송청소년수련원 소강당에서 20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김해 시민대법회 봉행

김종팔 김해 가락불교청년연합회는 28일 김해문화원에서 시민대법회를 봉행한다.

부산역 전시실서 사진전

옥명수 부산불교방송 사진작가회장은 19~20일 부산역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051)466-2618



부처님오신날 장엄할 전통연등

Focus

부처님오신날은 연등축제의 날. 온누리에 자비광명을 밝히기 위한 연등제작불사에 한창인 선남선녀들의 손끝에서 아기부처님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전통등연구회(회장 백창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전통등을 재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통등연구회원들은 지난해부터 원로스님과 불교학자들의 구술, 불교고서적등을 바탕으로 전통등 재현작업을 시작했다. 수없이 반복되는 재현불사끝에 선조들의 불심이 듬뿍 배어 있는 전통등이 하나 둘 화려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한파로 모두가 움츠리고 있는 지금, 올 부처님오신날 시방세계를 장엄할 전통연등은 벌써부터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연구회는 4월 22일 조계종 총무원 1층에서 1년여 동안 재현한 40여 종류의 전통등 시연회를 개최한다.

김중근 기자



◇강남석 법사



◇박영동 법사



◇김원수 간사

불심홍법원 '홍법대상' 수상자 선정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이사장 하도명화)은 제10회 홍법대상 수상자로 강남석법사(47, 해군군종감) 박영동법사(40, 전국교법사단 부단장) 김원수총무간사(47, 부산불교교등학생지도위원회)를 각각 선정했다.

군승단에서 추천된 강남석법사는 1977년 해군 군승법사로 임관한 이래 해군본부, 해군사관학교 법당 주지법사, 군승단장을 역임하는등 군포교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공로가 인정됐다. 박영동법사는 공군 군종법사와 동국대 부속고등학교 교법사,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자문위원,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한편 청소년 포교에 대한 논문과 저서로 청소년 포교의 이론 정립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김원수총무간사는 동호여상 교사로 재직하면서 부산정수사 어린이회·불교반 지도교사, 부산불교신도회 제1포교분과 간사, 불심홍법원 사무차장등 청소년 포교를 위해 앞장서 왔다.

시상식은 21일 오후 5시 부산 장전동 골든 웨딩프라자에서 거행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독거노인·결손가정 청소년 후원"

대전 불교청년봉사회 류재희 초대회장



"대전 대덕지구에 거주하는 독고노인과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을 주로 도울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청년불자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일 대전에서 창립된 불교청년봉사회 초대회장 류재희(32·복지사)씨.

류회장에 따르면 대덕지구는 첨단연구단지로 조성됐지만 주민간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고 한다. 대덕지구 거주 세대는 총 1080세대. 이들중 영세민들은 30%에 이른다는 것이다.

봉사회는 올 첫 사업으로 봉축일을 맞이해 대덕지구 독거노인 140명과 결손가정 청소년 50여명에게 연등을 배포, 생계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류재희회장은 "병원 양로원 고아원 등을 방문·지원하는 타종교 단체들은 많은데 봉사활동을 꾸준히 펴나가는 불교단체들은 드물다"며 "청년불자봉사회는 대전 불교계 전위 단체로서 지역 불교 청·장년단체와 연대, 대 사회 봉사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종욱 기자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오현숙 100,000원 △유성현 100,000원 △주옥자 300,000원 △김안식 500,000원 △김용주 40,000원 △황미경 40,000원 △박재영 50,000원 △손인수 30,000원 △남영아 22,000원 △정창수 20,000원 △ 장영주 20,000원 △한 주 한끼굶기 691,000원(총 31명) △밥 한 공기 6,000원 ●나진 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학고재 35,000원 △무주상 60,000원 △서원일 50,000원 △김도영 50,000원 △임무인 120,000원 △이균 100,000원 △마경숙 100,000원 △김영숙 100,000원 외 29명 〈3월11일 현재 총 950,544,692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제 ③ 회 대한음악치료학회 전국 춘계 세미나

♪ Music Therapy 는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된 학과이며, 억제할 수 없는 감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고도로 숙련된 음악치료사의 꾸준한 노력으로 병리학적 항체의 수치를 높이게 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대 상 각 음대교수, 음대생, 초·중·고 음악교사, 특수학교 교사, 음악학원 원장, 사회복지시설장, 가정복지 공무원, 병원 의료진, 음악예술인, 국악예술인, 음악전공승직자, 청소년지도자, 음악전공주부, 합창단원, 뜻있는 인사.

특 ● 강 ● 진



김 군 자 교수
· 이화여대 사범대학 언어청각센타 음악치료사
· 이화여대 평생교육대학원 음악치료과 주임교수
· 대한음악치료학회 회장
· 김군자음악치료연구원 원장
· 미국 공인음악치료사
· 저서 「창조적 음악요법」(역)
「즉흥연주 연습곡」(역)
「자폐아를 위한 음악치료」(역)



신 현 순 교수
· 미국 콜롬비아대학 석사 박사 취득
· 이화교육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치료센터 소장



김 재 은 교수
· 현, 한국 가족학회회장
· 현, 어린이 문화진흥회 회장
· 현, 증이집기협회부회장
· 현, 건강가족 실천운동본부 부총재
· 현, 참의성교육연구소 소장
저서 「이이는 이렇게 키워라」, 「미래를 위한 자녀교육」, 「예술심리학」, 「기의 심리학」,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창조성을 흔들어 깨워라」, 한국 가족의 심리」, 등 98권



강 지 원 위원장
· 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현, 한국 청소년연구회장
· 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저서 「건진기정 30훈」
「욱하고 깨닫은 성자」, 등 다수
· 논문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대책」등 다수
· 포상 정부 홍조근정훈장 수훈



전 해 룡 수석연구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교육 담당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회원
부산필하모니오케스트라 단장
· 21세기예술 영상음악연구원 원장

특 ●강●내●용
◇ 개강인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강 순 자
◇ 음악치료 고급인력의 필요성 - 김군자 교수
◇ 음악과 청소년 - 강지원 위원장
◇ 음악과 생명력 - 김재은 교수
◇ 장애아동과 음악치료 - 신현순 교수

● 개별초청장 생략 ● 당일회비 3만원

■ 일 시 : 1998. 3. 19(목) 오후 2시~6시
■ 장 소 : 부산해운대 그랜드호텔

■ 주관 : 대한음악치료학회 ☎ 02)3436-1904
■ 주최 : 대한음악치료학회 부산·경남지회
☎ 051)861-0034 FAX. 864-3047
■ 후원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한국자폐학회·대한음악치료학회 대구·경북·미국뉴욕지회
■ 협찬 : (주)부산해운대 그랜드호텔·부산필하모니오케스트라·김군자음악치료연구원 ☎ 02)3436-1904 F.3436-1992

◐ 뜻있는 큰스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우리 모임에선

교불련 대구시지부 창립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대구시지부 창립 발기인법회(창립준비위원장 손귀한 능인고 교감)가 오는 19일 오후5시 종립학교인 대구 능인고등학교 법당 반야전에서 열린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칙, 임원내정, 창립법회 일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불교련 회암사지 순례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하용이)는 22일 조선조 전국사찰의 총본산이었으며 2백62칸의 대규모 가람이었던 회암사지로 사찰순례를 떠난다. 이번 춘계사찰순례는 인근 회암사에서 주지스님 법문을 듣고 1백8배 기도정진할 계획이다. (02)398-6164

천불동 울산서 전국모임

천리안불교동호회(회장 심준엽)는 21일부터 1박2일의 일정으로 울산 학성선원에서 전국모임을 개최한다. 이날 모임은 참회정진, 우룡스님 법문, 석남사 참배 순으로 진행된다. 희비는 일반회원 1만5천원, 학생 1만원. 011-302-9425

연지회 무주 안심사 순례

북전주전화국 연지회(회장 나용만)는 29일 무주 안심사에서 사찰순례법회를 봉행한다. 2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는 이번 사찰순례법회는 안심사주지 원행스님의 법문, 적성산 산행 순으로 진행될 예정.

한은불교회 부석사 순례

한국은행불교회(회장 하용이)는 7,8일 1백여명의 회원이 고 강석진 회원 49재 참석을 겸한 부석사 사찰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사찰순례에서 회원들은 근일스님(부석사주지)의 법문을 듣고 참선수행과 1백8배 참회정진을 했다.

보현가족 신병교육대 위문

경기도 고양시 불교봉사단체인 보현가족(지도법사 한연수)은 15일 제9사단 신병교육대 늘푸른법당에서 위문법회를 가졌다. 이날 보현가족은 떡과 과일을 준비하여 신병교육대 훈련병들을 위문했다.

대구산악회장에 장병국씨

대구불교산악회는 22일 오후2시 보현사법당에서 창립3주년 기념법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한다. 2대회장에는 장병국씨(금전철강 대표)가 추대됐다.

제주교사회 금강경 법회

제주교사불자회(회장 김광조)는 10일 제주 태고종 불교회관에서 지명스님 초청 '금강경강의' 법회를 열었다.

경주텔 동호회 보육원 위문

KNTEL(경주텔) 불교동호회 선우모임은 15일 김해시 진우보육원을 방문하여 점심 대중공양을 실시했다.

거리에서 보살행펴기 '10년째'

탐방 **부산 운전불자회**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를 표방하며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가 창립된지 어느덧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88년 7월 신현규 초대회장과 50여 회원이 마음을 모아 결성한 부산불교운전기사회(이하 부산운불회)는 이제 3백여 회원들이 함께 하는 모임으로 자리잡았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개인택시 운전자들로 구성된 부산운불회는 창립 이후 사회봉사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창립 당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딛고 이제 각 사찰과 단체에서 주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장에서 차량정리 봉사를 펼치는 부산운불회 회원들을 만나는 건 너무나 당연시 될 정도. 부산운불회는 그 활동의 왕성함과 조직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까다롭다 싶을 정도의 회원관리에도 불구, 아직도 부산운불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행복한 비명이다.

이는 내실을 기한 활동과 값진 보살행에서 오는 보람을 반증하고 있는 셈.

부산운불회의 대사회적 봉사활동은 일일이 언급하지 못할 정도다. 각종 행사시 교통정리를 비롯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급, 노인 영정무료촬영, 교각 및 교통표지관 청소, 자연보호 활동, 무사고 안전기원법회 등에 이르기까지 구석 구석 일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활동



◇부산 운불회는 매년 할아버지·할머니 영정사진 무료 촬영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회원 300명…사찰행사 때 교통정리 봉사
도로표지판 청소…소년가장에 장학금도

무대로 삼고 있다.

90년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지급해 온 소년소녀가장 장학금은 택시에 껌을 비치해 모금한 정성어린 돈으로 이루어져 더욱 뜻깊다. 특히 96년부터 깨끗한 부산가꾸기의 일환으로 시작한 시내 고가도로 및 교통표지관 청소작업은 각 구청의 협조하에 실시, 올 3월 22일부터 또 한차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더욱 조직적이고 빈틈없는 활동을 위해 70여 회원을 중심으로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자원봉사단' 발족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1천1백여 노인의 영정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주기도 하고 개금복지관과 공창복지관등 교계 복지관의 차량봉사에도 각 15명의 회원이 꾸준히 동참하는등 부산운불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곧바로 봉사의 향기로 번진다.

부산운불회는 또한 매월 범어사, 통도사부산포교원, 해동용궁사 등의 사찰순례법회를 통해 거리의 포교사로서 거듭나는 신심을 다지고 있으며 매년 7월 가족동반법회를 열어 회원과 가족 5백여명이 함께 법회를 가지기도 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헌혈·장기기증 운동 '100일 결사'

생명나눔회 전국서 실시
마스코트 '나눔이' 발표
음악회·사진전도 열어



'경제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자.'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14일 서울 법련사에서 창립4주년을 맞아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100일 결사 선포식을 갖고 생명나눔 운동의 확산과 경제살리기 캠페인에 들어갔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이날 마스코트 '나눔이'〈사진〉를 발표하고, 법련사 문화관에서 작가 최차열씨의 연꽃사진 전시회도 여는등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기총회를 겸한 이날 법회에서 이사장 법장스님은 100일결사 선포문을 통해 "IMF시대, 국가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헌혈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생명나눔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생명나눔실천회는 헌혈운동이 건강관리는 물론 외화를 절약하는 한 방법(혈액 수입액은 연간 3천만불로 한화 약480억원)이란 취지아래 14일부터 오는 6월21일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성남 수원 등 전국 곳곳에서 헌혈운동 및 회원 배가운동, 장기기증 운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4월15일 세종문화회관 분수광장에서 길거리 음악회를 개최하고 △스티커·배지 달아주기 △6월9일 헌혈자와 기증자, 후원회원 등이 참여하는 기념법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02)734-8050

김재경 기자



다보수련원 무료개방

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IMF시대를 맞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직능단체에 괴산 다보수련원(사진)을 무료개방한다.

진흥원은 올해 직장·직능단체 지원사업을 자금난이 겹쳐 유보키로 했으나 신행활동 지원차원에서 수련회를 개최할 경우 숙식비를 무료제공한다는 방침.

현재 진흥원 괴산다보수련원에 수련대회를 신청한 단체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한국불교기자협회 등이다.

탑골공원 노인무료급식소 연다



◇반야라이온스클럽은 2천여만원을 들여 종로구 새마을회관 1층에 무료급식소를 열었다.

반야라이온스 내달 1일부터

탑골공원에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문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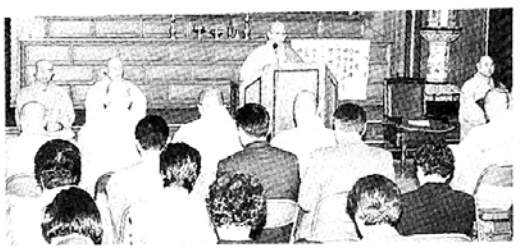
4월 1일 개원 예정인 탑골공원 무료급식소는 1백여평 규모로 반야라이온스클럽(회장 강학일)이 2천여만원을 들여 서울시 종로구 새마을회관 1층에 마련했다. 반야라이온스클럽은 그동안 탑골공원 노인무료급식이 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종로구청과 협의, 인근의 새마을회관 1층을 개·보수하여 20일까지 식당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또 화장실도 수리하여 노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탑골공원 경로식당에는 주방기구, 식탁·의자와 냉·난방시설이 설치됐으며 조계사청년회 지장부와 보현부, 원각사등에서 매주 수, 일요일 5백여명의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봉사한다. 그동안 반야라이온스클럽은 조계사 청년회 지장부에 매월 노인무료급식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해왔다.

강학일회장(청진동 청진장 대표)은 "봉사를 목적으로 그동안 모아온 기금을 탑골공원 경로식당 마련에 사용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활동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계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야라이온스클럽은 4월중순 창립 9주년 기념식을 탑골공원 경로식당에서 노인위문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대체한다. 창립식은 매년 호텔에서 개최해오던 행사로 "어려운 시대일 수록 이웃을 생각하라는 부처님 말씀을 받들자"는 회원들의 의견이 집약돼 이루어졌다.

김원우 기자



사회복지재단 3돌 기념법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월주스님)은 11일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개원3주년 기념법회 및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중앙승가대 총장 지하, 사서실장 성광, 사회부장 능관, 우산종합사회복지관장 천운,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제운,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상덕스님과 불교사회복지 종사자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도봉구사암련 나라위한 대법회

도봉구 사암연합회(회장 자우, 금강사 주지)는 3일 도봉구민회관에서 나라와 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개최했다.

자우스님은 법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은 귀천이 없고 평등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서로 존경하며 IMF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현스님(사암련 부회장) 벽암스님(도봉사 주지) 남전스님(정해사 주지) 유천수 도봉구청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용성스님 추모 대각사상硏 개원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스님) 개원식이 13일 오전 10시 서초동 현대전원오피스텔 201호에서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보광스님은 "용성스님의 뜻을 살려 스님의 사상연구 뿐만아니라 불교전반에 걸친 연구와 인재양성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도업(동국대 경주 정각원장), 조남호(서초구청장), 김상두(장수군수)씨 등이 참석했다. (02)581-3137



불교부인회 '라파엘의 집' 위문

대한불교부인회(회장 구자순)는 11일 시각장애와 정신지체 시설인 서울라파엘의 집을 방문하고 쌀 1가마와 아동들을 위한 간식류를 전달했다.

구자순회장을 비롯 노종임 고흥금 조숙자 이을순 등 5명의 회원들은 장애아동들에게 간식을 먹여주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태화산 마곡사 취담 일현대종사 문도회 결의문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취담 일현대종사 문도 일동은 불기 2542년 3월 9일 오후 2시 마곡사 연화당에서 문도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문도 총회에서는 향후 문도회 운영의 기틀이 되는 문도회 규약을 통과하고 14인의 운영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취담 일현대종사 문도 일동은 문중의 화합과 본말사 발전을 위해 전통 승가의 산중공의 정신을 되살려 세속적 경쟁과 대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중의 대소사 및 본·말사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도 문도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 원만한 본·말사 운영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결 의 사 항

1. 우리 취담 일현 문도 일동은 화합 승가의 전통을 계승하여 문도의 단합을 도모한다.
2. 우리 취담 일현 문도 일동은 한국불교와 본·말사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우리 취담 일현 문도 일동은 본·말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문도 규약 제17조 4항에 의거 문도에 한하여 본사 주지 피선시 단임할 것을 결의한다.
4. 우리 취담 일현 문도 일동은 전통 승가의 화합정신을 받들어 문도 전원의 일치된 결의로 마곡사 차기 주지후보에 진허스님(동화사 기초선원장)을 추대한다.

▣ 취담 일현 대종사 문도회 운영위원

· **운영위원** : 진연 대진 덕상 철웅 진허 성열 진각 성효 원혜 승일 성수 장곡 관웅 승오

문도 일동(무순)

운월 덕상 진연 대진 철웅 진허 진각 진공 성열 동해 동문 성안 철호 무일 동오 경연 경암 혜각
법정 대안 대허 일원 진욱 진원 법산 기웅 도현 진묵 성효 성현 원혜 원종 경덕 정덕 중암 원경
중연 노굉 노휴 정천 혜명 각성 혜진 석전 원묵 석파 석진 미목 석우 태관 승일 양산 행각 여공
학성 승언 서곡 성수 장곡 주광 상초 관성 관웅 승오 승하 만오 석철 주관 도공 만원 학중 자암
기산 석문 성원 성천 만인 성산 주산 태범 태진 성민 혜우 태설 덕치 태조 소천

불기 2542년 3월 9일

태화산 마곡사 취담 일현 문도회 일동

법회안내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 21일~22일 문경 정토수련원 제9차 신앙대회 법문. 29일 오전 10시 무진법장사 7주년 기념법회. (02)932-2333



법륜스님(북녘동포돕기불교운동본부장) 18일~7월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홍제 정토포교원 아니룻다회 〈금강경〉 강의. 17일~6월30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초 정토법당 수행법회 〈금강경〉 강의. 4월 22일~6월 3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불교의 통일론' 강의. 18일 25일 오후 7시30분 〈법성게〉. 6월 24일 7월 1일 오후 7시 30분 〈신심명〉. (02)379-1650



일관스님(보현사 주지) 매일 새벽 4시 30분 〈금강경〉 독송 일과기도법회. 매일 오전 10시 〈천수경〉독송 일과기도법회.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0시 가족법회. 매월 셋째 금요일 오후 7시30분 부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학생회법회. 매월 셋째 금요일 오후 2시 구역법회. (02)952-8800



송묵스님(동원정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셋째 일요일 오전10시 거사림법회. 매월 셋째 일요일 오전10시 조흥은행법회. 매월 셋째 일요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0346)593-6829



원공스님(연꽃피는절 주지) 거사회법회 매월 첫째 수요일 오후 7시. 매월 1일 오전 10시30분 초하루 정진법회. 매월 18일 오전 10시30분 지장재일 법회. 매월 24일 오전 10시30분 관음재일 법회. (062)943-0108



혜명스님(광주 수덕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 정진법회. 매월 음력 7일 오전10시 초이레법회. (062)263-0550~1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수행일기 쓰면 마음공부 잘된다

참선 정진 독경 시간·느낌 등 기록
수행방법·효과 점검…성취감 높여

자신의 수행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참선, 정근·독경일지를 쓰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

'일일참선'을 생활화하고 있는 김의식씨(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는 대학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6시부터 점심, 저녁시간 틈틈히 시간나는대로 참선에 들고 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며 혼자서 간화선을 하다보니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김씨가 생각해 낸 것이 참선일지. 김씨는 3년전부터 좌선·명상일지를 쓰고 있는데 마음공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씨의 좌선일지(표 참조)는 월, 일, 좌선장소, 입정시간, 자세, 호흡, 집중, 느낌상태와 비고란으로 나눠 입정시간은 분단위로, 자세등의 상태는 아주좋음은 3, 보통은 2, 나쁨은 1로 표기한다. 또 느낌상태는 집약적으로 요약표현하고 있다.

김의식씨는 "일지를 쓰다보면 흥미감 성취감이 들고 직장인으로서 화두를 놓치고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며 "무엇보다 참선방법을 스스로 점검하고 고쳐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년동안 정근·독경일지를 써온 윤상호씨(현죽기획 대표, 서울 역삼동)는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며 절을 한다. 한달동안 절하고 독경한 것을 체크해보면 저축한 느낌이 들어 계속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윤씨는 1백일 단위로 끊어서 절과 독경을 하며 자기자신을 관찰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 좌선 명상일지

일자	좌선장소	입정시간	자세상태	호흡상태	집중상태	느낌상태	비고
6/11	광촌 사무실	40	1	2	1	후반부 무념상태	정오
6/12	청계사 법당	40	2	2	2	마음이 맑아짐	새벽6시
6/13	모란산묘소	50	2	2	2	천지허공 동그란 기운	새벽6시
6/14	보림사 법당	20	1	1	1	졸음 더움 답답함	새벽6시
6/14	시선회 법회	30	3	2	2	깨어있음	16:00
6/15	남한성(망월)	35	2	1	1	답답함	새벽6시
6/17	용화사 법당	60	2	1	1	들뜸 폐정후 개운함	새벽6:30
6/17	광촌 사무실	35	3	2	1	무기상태 폐정후 개운	정오

신행수첩

'평생을 불법 실천' 서원
무진장스님 지도 경전반

위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불자의 가장 원초적인 삶의 목표다. 그 목표를 이루기위해 평생동안 경전공부를 할 수 있는 도량이 4월1일 문을 연다. 동산반야회(법주 무진장)가 그러한 원대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무진장스님과 함께하는 평생경전공부반을 시작한다.

매주 일요일 오후 6시~8시 동산법당에서 〈금강경〉을 시작으로 〈육조단경〉 〈발심수행장〉 〈선가귀감〉 〈유마경〉 〈반야심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천태사교의〉 〈법화현의〉 〈법화문구〉 〈법화경〉 〈화엄경〉 등을 꾸준히 공부하게 된다. 매과목 경전공부를 마칠때마다 무진장스님으로 부터 입지수계도 받는다고. 평생경전공부의 원력을 세운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린다. (02)732-1206

신행 다지는 철야정진
정토회 문경 신앙대회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정토를 이루고자 하는 정토회에서 철야정진 제9차 신앙대회를 개최한다.

21일~22일 1박2일간 문경정토수련원에서 열리는 이번 신앙대회는 봄기운에 자칫 해이해진 우리의 마음을 곧추세우고, 함께 살아가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만들기의 참뜻을 되새기게 할 것이다. (02)581-4077

IMF고개 넘는 불교처방
대승불자회 향일암 순례

산새들 지저귀고 봄내음이 가득한 사찰에서 온갖 번뇌망상 떨쳐 버리고 참나를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조계사대승불자회(회장 송지성)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 동안 여수 향일암과 순천 선암사로 구도 정진법회를 떠난다.

철야로 진행될 이번 법회에는 순천 선암사주지 현오스님의 'IMF를 불교로 극복하는 방법'이란 법문도 곁들여 진다.

단 하루만이라도 속세를 떠난 수행자의 자세로 돌아가 부처님의 숨결을 체득하며 정진할 수 있는 불자만의 특권을 누려보자. (02)736-4848

게시판

♣ 알림

△불교통신 창간 기념식=전국 주요불자의 소식과 행사를 전송(FAX) 또는 우편으로 배포하는 '불교통신' 창간기념식이 23일 오후 7시 송현클럽에서 열린다. 문의 신상철 (02)723-9811

♣ 강좌

△생활불교 특강=조계종 복지재단(이사장 송월주)은 생활불교·장의예식교육·건강한 가정만들기·발반사요법 등의 특강을 한다. 동참자 접수는 18일까지. (02)723-5101~2

△'불교와 여성' 강의=제주문화포럼(원장 하순애)은 18일 저녁 7시 적십자회관 강당에서 불교대중강좌를 갖는다. '불교와 여성'을 주제로 곽만연교수(동아대)가 강의한다. (064)22-6914

△조계사 문화강좌=조계사(주지 현근)는 선체조, 다도, 불화그리기, 관소리, 서예, 수지침등 봄맞이 문화강좌를 실시한다. (02)720-6742

♣ 모집

△국제포교사 연수생=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제3회 국제포교사 연수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조계종 스님 및 신도로 영어회화 가능자. 31일까지 접수한다. (02)720-7060~4

△제천불교대학=제천불교대학(학장 원명스님)은 20일까지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선착순 1백명. 입학식은 25일이다. (0443)47-2840

△금화사불교대학=금화사불교대학(주지 대안)이 불교기초교리,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등을 공부하고자 하는 불자들을 모집한다.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18일 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051)582-3042

△자원봉사자=인덕노인복지회관(관장 서성운)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식사보조,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 간병, 수지침, 이·미용, 목욕, 서예, 에어로빅, 멘돌체조 봉사에 나설 자원봉사자를 수시 모집. (02)385-8205

△독거노인·소년가장 후원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설웅)은 구로3동에 거주하는 85세의 무의탁 독거노인과 구로4동에 사는 13세 소년가장을 도울 후원자를 모집. (02)852-0525

△수화교실=원심회(회장 덕신)는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8시30분 수화교실을 연다. 기초반은 16일부터 3개월간, 중급반은 24일부터 3개월간. 회비는 교재비포함 3만원. (02)720-4528

♣ 이전

△물지사(대표 김형균)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장충동 뉴장충빌딩에서 중구 묵정동 18-9 배영빌딩 401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263-1941

나의 수행일기



노익원 〈누에사 사장〉

현대는 어느 시대보다 많은 종교와 신도들이 있다. 그러나 어느때 보다 아귀들이 많아 경제성장이라는 우상을 받들고 지구를 난도질하며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탐욕의 업력을 이기지 못하고 물량화 아귀화되었기 때문이다.

유신보당이 살기 등등하게 전횡의 총칼을 휘두르던 75년, 나는 그들의 폭정과 거기에 빌붙어 기는 소위 언론사 간부들의 작태가 역겨워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두고 태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승려가 되었다. 삭발하고 승복을 입어 외양은 크게 달라졌지만 나의 내면세계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 불교에 대한 지식은 나의 승려로서의 내실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매일 진수성찬에 황제처럼 먹고 살림걱정없이 참선을 한다고 눈을 감았다 떴다 폼을 내기는 쉬운 일이었다. 그리고 삼매에 들어 투명한 침잠속에 소요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았다. 시조그만 것이라도 거추장스러웠다. 여기에 매일의 탁발. 새벽 5시 목욕재계하고, 물기있는 머리에 깨끗한 맨발로 하는 공양은 엄숙한 기도였다. 약간 검먹은 포도알 같은 눈망울과 고사리손의 합장, 두손으로 밥통을 하늘로 받들어 스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긴 치마의 여인, 그 모습은 자유의 여신상보다 거룩했다. 그 앞으로 걸어가는 승려는 한낱 걸인일뿐이었다. 노숙하며 시위하는 가난한 농부의 공양, 다리밑에서 사는 거지의 가사 시주는 충격이었다. 나는 이들에게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합것인가? 우리는 전생에 어디서 무엇으로 만났었던가? 탁발은 날이 갈수록 행선이 되어갔다.

태국의 스님들은 상습 한발지나 화전민촌의 가난한 오지로 들어가 농사를 지도하고 우물을 파고 마약과 술에 젖은 백수들을 사람구실하게 교화했다. 육식을 하는 태국의 승가에서 그들은 거의가 채식만 했고, 하루 한

태국 출가경험 '밑거름'

20년째 '비승비속'…'생태계 보존' 화두



각이 멈춘듯한 고요속에 사물은 새롭고 더 뚜렷하게 보이는 신비한 경지였다. 그러나 삼매에서 깨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각자의 전생의 업력은 현세의 수행을 무력화했다. 타고난 각자의 선정, 좁은 소견, 탐심은 용맹정진도 소멸시키지 못했다. 수행을 하지 않아도 보살이 있었고 참선을 해도 아귀는 아귀였다. 무수히 윤회를 되풀이 해온 한 생명의 업력앞에 몇 년 몇 십년의 수행이란 수미산에서 한점 흙을 덜어내는 정도인 것 같았다.

이러한 내게 승려로서의 자세를 추스리게 한 건 고승의 설법도 불교의 교리도 계율의식도 아니었다. 무소유의 생활이었다. 두벌의 가사와 발우, 돗자리와 베개(이불과 요는 가사로 대신했다) 그리고 몇 점의 책과 세면도구가 모두인 내 살림은 집착할 것이 없는 자유를 만끽했다. TV 라디오 신문 전화가 없는 생활은 무명의 때가 벗겨지는 신선한 것이었다. 불교책도 지식도 시들해져 갔고 소유는 끼 밖에 먹지 않았다. 천행처럼 내려온 몇천년의 가난을 벗어나게 했지만 허황한 부는 추구하지 않는 지혜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일구었다. 마을에서 생산한 모든 식량은 절의 창고에 보관하고 공산품은 최소한으로 공동구매, 가구마다 필요한 양만 갖다 먹고 썼다. 서양인들은 이런 마을을 '부디스트 유토피아'라 불렀다. 보살행을 하는 그들을 통해서 참삶에 대한 많은 감화를 받았다.

태국에서 출가생활 1년을 수행 운운하기엔 너무 짧은 순간이다. 그러나 그때의 업연은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져 비승비속의 생활을 하고 있다.

우선 가난의 선택이다. 오늘의 말 법적인 세계의 작태가 잘 먹고 잘 살자는 탐욕에서 비롯 되었기에 나는 못먹고 못살자는 주의다. 청빈한 생활만이 이 지구의 오염된 환경과 파국의 생태계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요즘의 화두는 불교와 생태학의 접목이다.

歷史는 바뀔 수 있어도
佛教傳統儀式은 바뀔수가 없습니다.



"사찰에 輦[연]은 필수품 입니다"

시연(侍輦)은 각종 재(齋)를 베풀고 불교전통의식을 거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엄의식구로써 의례의식공간을 보다 장엄하게 장식할수 있도록
전통적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수공예장식품으로 제작하였고,
원목을 사용한 정교한 조각,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4단 조립형의
장엄한 예술적 작품으로 이동시 편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종합불사조성회사
藝暻佛美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文培洞 17-1 신화빌딩 3층
TEL:(02)704-5070(代) 704-8850

부처님과 맺은 인연 평생을 부처님을 위해 일하는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영업품목:고건축·대불·옥불·동불·특수불·석불·탱화·개금·단청·법당내부·사찰 홍보기획 및 출판대행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 ■야간 ■통신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4년	■통신		
유아교육과(유아포교과)	2년	■주간 ■통신		
중국어과	2년	■주간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		
동양화(禪畵)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본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위탁교육 수료후)

■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8년 3월25일까지 (일요일도 접수가능)
· 진행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 5. 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 1998년 3월 7일 입학식 (동국대문화관)후 정상수업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511-2026~8)
◑ 인터넷홈페이지 : 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부모은중경〉 최고본으로 알려진 장단 화장사판.

'부모은중경' 最古 언해본 발견

日 동경대 소창문고 소장
1553년 간행 장단 화장사판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언해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장단 화장사판(1553년刊)이 일본 동경대 소창(小倉)문고에 있음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유필재(서울대 박사과정)씨가 〈진단학보〉 84호에 발표한 '화장사판 〈부모은중경언해〉에 대하여'란 글에서 밝혀졌다.

유씨가 일본 유학중이던 96년에 발견한 〈부모은중경〉은 책표지에 은중경이라 쓰여 있으며 크기는 25.0㎝×17.5㎝. 본문 26장, 간기(刊記)·시주자명 1장 등 총 27장으로 구성돼 있다. 책의 뒷면에 '가정32년 계축6월일 경기도 장단지 보봉산 화장사 개판(嘉靖三十二年 癸丑六月日 京畿道 長端地 寶鳳山 華藏寺 開板)'이란 간기가 있어 화장사판임을 알 수 있다. 서울대 규장각 일사문고에 소장된 송광사판(1563년刊)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일치하면서도 십법계송(十法界頌)·십팔지옥(十八地獄) 3장과 발원문 부분이 없다. 또 송광사판은 23·24장이 필사돼 있으나 화장사판은 그렇지 않으며, 송광사판에는 별로 없는 방점의 표기도 나타나 구별된다.

유필재씨는 "세밀한 곳에서는 차이를 보여 삽화가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하나 대체로 일치해 송광사판이 화장사판 혹은 그에 앞선 원간본의 복간이라는 기존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의 효사상을 나타내는 〈부모은중경〉은 16세기부터 언해돼 현재 20여종의 이본(異本)이 남아 있다. 최고본은 1553년 경기도 장단에서 간행된 화장사판이며, 변상도의 완벽함과 섬세함은 정조가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뜻에서 개간하도록 하고, 김홍도의 그림이 첨가돼 있는 수원 용주사판을 꼽을 수 있다.

윤기석 기자

불심시심 〈121〉

세상 일 구름만 못하다

경암대사의 문집에 〈두류산회화기(頭流山會話記)〉가 있다. 이 기는 1803년 보은군수와 옥천군수가 천왕봉에 오르기 위해 찾아와 대화하면서 주고 받은 장편의 기행문이다. 이 기행문 중간중간에 주고 받은 시가 수록되어 있어 당시의 사정을 이해하게 한다. 스님들과 지방 장관들의 격의없는 사귐을 엿보게 하는 자료의 하나이다.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 유불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참다운 지식인은 고승들과의 사귐이 동도자 못지 않았으니, 다음 시에 그러한 단면이 있어 소개해 보겠다.

보은군수가 먼저 읊었다.

萬疊靑山萬疊雲 일만 겹겹의 푸른 산 일만 겹의 구름
(만첩청산만첩운)

悠悠湖嶺共瞻雲 아득히 영남 호서에서 함께 그 구름 보네
(유유호령공첨운)

今朝別意知多少 오늘 아침 이별의 뜻 어느 정도인가
(금조별의지다소)

萬疊靑山萬疊雲 일만 겹겹의 푸른 산 일만 겹의 구름.

옥천 군수가 화답했다.

出岫還同彭澤雲 산에서 솟을 때는 팽택의 구름이더니
(출수환동팽택운)

一樽長憶江東雲 한 술잔의 긴 추억은 강동의 구름일세
(일준장억강동운)

今朝聚散還如許 오늘 아침 만남 이별도 저와 같다며
(금조취산환여허)

笑指天王峰上雲 웃으며 가리키는 천왕봉의 구름.
(소지천왕봉상운)

대사가 이어 읊었다.

山雲隨客我隨雲 산 구름 나그네 따르고 나는 구름 따라
(산운수객아수운)

一席靑雲富白雲 한 자리에 푸른 구름이더니 다시 흰구름
(일석청운부백운)

送客出門成悵望 손님 전송 문에 나서 쓸쓸히 바라보니
(송객출문성창망)

始知人事不如雲 인간세상 일 구름만 못함 이제 알겠다.
(시지인사불여운)

구름 雲자로 운을 삼아 쓴 시이다. 보은군수의 시는 영호서에서 각기 볼 수 있는 구름을 이별의 뜻으로 했고, 옥천군수는 세 사람을 도연명 이백 두보로 견주어 광택의 구름 강동의 구름으로 상징하였다. 대사는 인생의 회합집산이 저 구름과 같으면서도 구름만 못하다 하여 각기 적의한 자신들의 의지를 담았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금상에 도안스님作 '정토발원문'

조계종 창작찬불가 당선작 발표

조계종 문화부가 주최한 제1회 창작찬불가 공모에서 도안스님(광주 향림사)의 합창곡 '정토발원문'이 최고상인 금상을 차지했다. 종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찬불가공모에는 독창곡 12곡 중창 5곡 합창 13곡 등 총 30곡이 응모해 은상에 지장보살예찬(김현지 작·합창곡)과 '까치울음(박상훈 작·합창), 동상은 '공덕하세(장기찬 작 합창)' '불단앞에서(양병철 작·독창)', 장려상은 부처님께 향한 마음(이순희) '수행일기(이용탁)' '성불하시이다(이정면)' '아제아제(홍기성)' 등 4곡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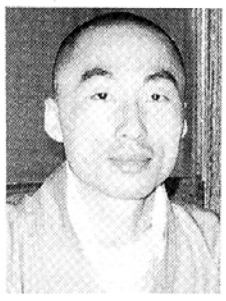
만18세 이상 기성 및 신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공모한 이번 창작찬불가공모 당선작들은 올 하반기쯤 발표회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공모작들에 대해 심사위원인 김동환교수(중앙대 음대)와 박범훈단장(국립국악관현악단)은 "전반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해 성의있는 작품이 다수 출품되어 내년이 기대된다"면서 "금상작인 '정토발원문'은 리듬이 경쾌하고 누구나 따라부르기 쉬운 민요풍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했다.

시상식은 16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거행됐다.

찬불가공모 금상 수상 **도안스님**

"밝고 경쾌한 찬불가 많아야"



"제가 향림사 어린이법회를 지도하며 찬불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찬불가에 대해 그동안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기존 찬불가들이 대부분 느리고 어두워요. 각종 불교행사나 법회때 쉽게 따라부를수 있는 밝고 경쾌한 곡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큰 상까지 받게돼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제1회 창작 찬불가공모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차지한 주인공은 뜻밖에도 스님이다. 더구나 도안스님은 전남대와 청주대 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플란드 쇼팽음악원까지 졸업한 수행자라 더욱 놀라움을 준다. 불교계가 여러 분야에서 인재부족을 겪지만 취약한 장르인 음악계, 특히 작곡에서 이같은 재능있는 서 인물이 나온 것은 불교계 전체의 기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의견들. 도안스님은 94년 제26회 난파공률에서 '목관4중주'로 작곡부문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은사스님인 천운스님(해남 대둔사 주지)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정토발원문 가사를 접하고 '바로 여기에 곡을 붙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악상을 떠올렸다는 스님은 평과리의 힘찬 리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매주 향림사 어린이법회에서 피아노를 직접 치며 찬불가를 가르치고 함께 부르곤 한다는 스님은 "부처님가르침을 노래로 재구성하면 누구나 흥겹게 부를수 있어 재미도 있고 신심도 더욱 증장시킬수 있다"면서 앞으로 찬불가는 물론 대규모 불교행사에서 연주할 수 있는 관현악곡을 만들고 싶다는 원력을 밝힌다.

이경숙 기자

수안스님 개인전

25일까지 부산 세원백화점
그림 · 병풍등 30여점 전시



◇수안스님作 '우리나라'

3월의 봄빛처럼 따스하고 맑은 그림, 수안스님(봉도사 축서암)의 개인전이 부산 세원백화점 신관 11층에서 열리고있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될 이번 전시회는 진주 천룡사(주지 효공)대웅전 건립을 위한 특별전으로, 수안스님의 그림과 병풍 3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내 그림은 기도"라는 스님의 말이 아니더라도 천진하고 해맑은 동자상, 맑고 화사한 꽃송이, 텅빈 하늘을 나는 학을 그린 선화에서 수행자의 맑은 기품과 원력이 느껴진다.

수안스님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도 여러차례 전시회를 가진 선화가로 각종 불사와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기금마련전시회를 수차례 가졌다.

이번 부산전시는 중생들에게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전하고 싶은 스님의 기원, 그 환한 소망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051)550-6256

천미희 기자

"고려때 창건 조선초엔 國刹"

경기도박물관 회암사지 시굴조사서 밝혀
'皇帝萬歲' 새긴 와편 · 청기와 등 출토

조선 최대의 사찰로 알려진 양주 회암사지(사적 128호)가 지난 11월부터 실시한 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에 창건돼 조선초까지 국찰(國刹)로서의 사격을 유지해 왔음이 재확인됐다. 이에 따라 유적의 정비 보존차원에서 종합발굴계획의 수립과 함께 사유지 매입, 주변환경 개선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발굴 현장설명회에서 경기도박물관 발굴조사단(단장 장경호)은 "절터 북측 담장지 바깥에서 유구가 확인되고, 외곽 1백m 범위에서도 절터에서 출토되는 것과 같은 유물들이 수습되는 등 사역(寺域)이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범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밀발굴조사의 확대와 함께 주변 토지 매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표상에 노출된 조선시대 건물지 하단에서 고려시대 문화층이 확인되고 순청자편이 출토돼 고려 명종대(12세기 후반)에 회암사지가 존재했다는 문헌기록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황제만세(皇帝萬歲)'가 새겨진 와편, '지(地)' '현(玄)' '황(黃)' 명문의 상품(上品)백자, 궁궐터에서나 보이는 청(靑)기와 등이 출토돼 국찰로서의 사격을 짐작할 수 있다.

문화재 지도위원들은 "전체적인 구조가 왕실건축에서나 볼 수 있는 대규모의 가람"이라며 "향후 조사의 진전에 따라 초창기의 고려시대 건물지 확인과 가람배치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발굴조사단을 상주시켜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함께 노출된 유구의 손상에 각별히 주의하고, 행궁(行宮:왕의 임시거처)을 비롯 주변의 회암사지관련 차(茶)유적, 와요지, 채석장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주군 회천읍에서는 20일 복원 추진준비위원회(위원 이상원)를 구성, 회암사지에 대한 복원 및 주변정비에 힘쓸 방침이다. 〈석〉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조선초기의 물두.

문화재 소식

부산박물관 재개관
석조여래좌상 첫 공개

부산시립박물관(관장 박유성)이 5개월간의 전시장 보수공사를 마치고 10일 종합역사박물관으로 재개관했다.

시립박물관은 선사고분, 미술공예, 도자, 서화, 부산역사, 민속 등 6개 상설전시관에 지역과 주제에 초점을 맞춘 선사에서 근대에 이르는 유물 6백여점을 선보인다.

통일신라 금동보살입상(국보 200호)과 영태2년명납석제호(永泰二年銘蠟石製壺·국보 233호) 등 부산의 국보 5점 중 2점을 만나볼 수 있다. 처음 공개되는 석조여래좌상도 눈길을 끈다.

"수중문화재법 제정"
박성욱씨 박사논문서 주장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누군가가 수중문화재를 발굴하고도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있을까?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수중문화재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경희대에서 '국제법상 수중문화유산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성욱씨는 "세계 각국이 상업적으로 수중발굴에 뛰어들고 있어 국제적 마찰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수중문화유산 관련법 제정이 하루바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불교미술작가들이 직접만든 화제의 책!

알기쉬운 불교미술



조계종 '98 신도 교육의 해 권장도서

◆불교미술작가들이 직접 만든 화재의 책
◆불교미술 전반에 걸쳐 도판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

일반인을 위한 불교미술해설서

◆불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면서도 어려웠던 불교미술,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부처님과 탱화, 그리고 모든 성스러운 불교미술품에대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사찰의 모든 불교미술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값 9,000원/동국불교미술인회 엮음

동국불교미술인회는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미술가 모임으로 전국 각지의 사찰에 많은 작품들을 조성, 봉안해오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작품전과 주제전, 학술발표회 등을 개최 전통불교미술발전에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원과 불상, 불화의 의미 ·법당과 부처님, 탑 ·석조물, 문루와 그 의미 ·법구, 불교의 상징물, 단청

동국불교미술인회 펴냄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02)738-1117
보급처 : 불교방송사업국 ☎(02)705-5302

새불교운동 전국승가회 운영위원회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운영위원스님들께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새봄을 맞아 회원스님들의 건재와 '백척간두 진일보'의 용맹심을 확인하며 본회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운영위원 여러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회 의 안 건 ●

1. 사무실 이전에 관한 건
1. 기구 확대개편에 관한 건
1. 사무처 활성화에 관한 건
1. 본회 명칭 개정에 관한 건
1. 연구위원 위촉 및 역할에 관한 건(재가불자)
1. 사업안건 : 불교포럼(가칭)내용 및 일정에 관한 건

■ 일 시 : 불기 2542년 3월 20일 오후 5시
■ 장 소 : 조계사내 본회 사무실
■ 연락처 : ☎ 02)723-4302~3

※ 본회 공동의장인 진관스님의 특별사면과 석방을 환영합니다.

새불교운동 전국승가회 공동의장 석담·진관 합장

■ 현대불교, 사찰 · 불서점 95곳 법보시실태 조사

경전류-2천원대 '선호'

"49재 · 초파일때 법보시" 80%
목록다양화-소책자화 '필요'

법보시에 대한 인식이 과거 '형식적인 인사치례'에서 '의미깊은 선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법보시 책 제작자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법보시 책의 종류 다양화와 내용 보강, 편집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3월2일부터 9일까지 전국 각 사찰 및 불교관련서점 9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도들이나 일선사찰 대부분이 법보시는 필요하며,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님을 친견하거나 사찰을 찾는 종전의 단순한 신행행태에서 생활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항상 접하고 교리 등 불교전반에 대해 심도깊게 공부하는 적극적 신행생활로 바뀌는 추세로 볼 때 법보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법보시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경우는 49재등 천도재 때로 80%이상이었으며, 부처님 오신날 회갑 백중 생일 득손(得孫) 순으로 책 법보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로는 경전류가 9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단연 압도적이었는데 이중에서도 〈금강경〉이 50%정도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지장경〉 〈부모은중경〉 〈불설아미타경〉 등이 30~40%대로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일반류로는 생활속의 기도법, 기초교리, 부처님 생애 등을 꼽았으나 10%이내였다.

제작시 권당 가격은 2천원대가 95%이상이었으며 총가격단위는 30만원대가 가장 많았고 1백만원대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당한 권당 가격에 대한 질문에서도 2천원대가 압도적이었으며, 3천원~5천원대가 그 뒤를 이었다.

법보시 책에 대한 불만은 예상보다 높았다. 획일적이며 조악한 편집으로 자신있게 권할만한 책자의 부족과 기존 법보시 전용 책들의 경우 내용부실과 오탈자 등이 많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또 겉표지가 투박해 시선을 끌지 못한다거나 핸드백에 들어갈 수 있는 소책자였으면 좋겠다는 견해도 많았다.

특히 법보시 발원자가 원하는 가격과 책자의 가격차에서 오는 재정적 어려움과 제작시 어떤 내용을 선정해야할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았다. 일정한 모델이 없고 가격대도 천차만별이어서 몇가지 모델을 선정하거나 가격대별 도서목록과 간단한 내용을 포함한 일람표 제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경전류에 몰려있는 책의 종류도 수필류나 시집류 등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불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법보시자들의 안목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책 법보시에 따른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민족사 이상육부장은 "책을 사지 않고 법보시에 의존한다거나 책을 선택할 기회를 빼앗고 경전류 등에 국한돼 있어 폭넓은 독서를 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법보시는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등의 커다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조계사 불교대학을 졸업하면서 1백명의 도반들에게 졸업기념으로 책을 법보시한 김영대씨(39 · 강남구 삼성동)는 "부처님 가르침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 법보시라고 생각한다"며 "주고 받는 사람 모두 기쁨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한명우 기자



◇불교를 심도있게 공부하는 적극적 신행생활로 법보시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법보시용으로 인기있는 경전과 불서들.

'대교왕경' '사익범천소문경' '초의집'

역경원 한글대장경 3권 출간

한글대장경 3권이 새로 나왔다. 동국대 역경원(원장 월운)에서 번역 출간한 한글대장경은 〈현증삼매대교왕경外〉 〈사익범천소문경外〉 〈초의집外〉 등.

〈현증삼매대교왕경〉은 〈진실섭경〉을 송나라 시호(施護)삼장이 한역한 30권본 〈일체여래진실섭대승현증삼매대교왕경〉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이 경 전체가 모두 18회라 칭해지는 〈금강정경〉 가운데 초회에 해당되므로 〈초회금강정경〉이라 하며, 또는 권수가 30권이기에 〈삼십권대교왕경〉이라고도 한다.

〈사익범천소문경〉은 명명(網明)보살이 사익범천(思益梵天) 등을 위하여 모든 법이 공적(空寂)한 이유를 설한 것으로 4권18품으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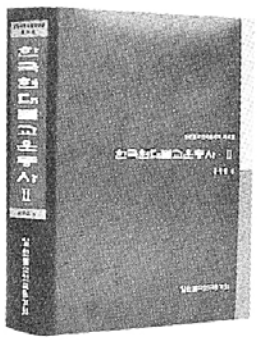
이 책에는 〈등집중덕삼매경〉 〈집일체복덕삼매경〉 〈지심범천소문경〉 〈승사유범천소문경〉이 함께 번역 수록돼 있다.

〈초의집外〉에서는 초의선사의 시세계와 선사상, 차(茶)사상을 깊이있게 살피고 있다. 시 외에도 스님이 일생동안 지은 소(疏) 기(記) 상량문 제문 축문 등을 모은 〈일지암문집〉외 〈초의시고〉 〈선문사변만어〉 〈동다송〉 〈다신전〉 등 스님의 저서에 대한 내용이 함께 수록돼 있다.

'88~93년 불교운동사 '정리'
실천승가회, 통불협편 펴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자료집 〈한국현대불교운동사Ⅱ(통불협 편)〉이 나왔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출판국이 펴낸 이 자료집은 지난 96년 펴냈던 〈한국현대불교운동사Ⅰ(정토 · 대승 편)〉에 이어 두번째. 이번 자료집에는 80년대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와 민중불교운동연합을 계승해 민족과 불교 자주성을 회복을 위해 노력한 '민족자주 통일불교운동협의회'의 활동 전반을 수록했다. 10.27법난 규탄법회 등 통불협 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사진과 함께 강령 및 규약이 실려 있으며, 통불협 신문 창간호(89년 4월)~6호까지, 자료집 〈불교운동〉 창간호(89년 3월)~ 7호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록에는 88년부터 93년까지의 사회동향과 통불협의 활동사항을 시대별로 묶은 연표가 수록돼 있다.

이번 자료집은 첫번째 자료집과 함께 80년대 불교운동사의 전개과정을 담은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며, 추후 발간예정인 90년대 종단 개혁운동에 대한 자료집까지 나올 경우 한국현대불교운동사를 집대성한 자료로서 그 가치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1099쪽 분량에 4×6국배판으로 가격은 7만원이며 도서출판 행원이 펴냈다.



새로나온 책



▲누가 가는 이를 멈추게 하나= 대구 신일전문대학 불교부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허남준씨의 두번째 시집. 산사와 자연 그리고 삶과 사랑을 소재로 자신의 깊은 불심이 절절이 토해내고 있다. 시 전반에 나타난 긍(空)사상은 삶의 지표요 생활의 진리임을 느끼게 한다.〈영하 5천원〉



▲로마에서 중국까지=프랑스 장-노엘 로베르가 쓴 로마에서 중국까지 물질과 사상이 교류된 상황을 총망라한 고대 동서양 교류사. 이중 서양의 기법과 표현양식이 불교의 정신과 융합을 이룬 간다라 미술의 해명은 감탄을 자아낸다.〈이산 1만2천원〉



▲서울문화유적=서울의 문화유적 1백38곳에 대한 역사와 유래, 관련 설화 등을 밝히면서 문화재적 가치를 사진자료와 함께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중에는 종로에 위치한 승가사를 비롯해 문수사 청룡사 보문사 연화사 청량사 봉천동 마애미륵불 등 30여곳의 불교문화유적도 포함돼 있다.〈수문 9천원〉

▲남산스님의 파스요법=파스로 소화기 질병과 호흡 · 순환기질병 등 만병을 다스릴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요법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 남산스님은 무엇보다도 정신건강이 제일 중요하며, 이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명상 1만원〉

2백번째 빛깔있는 책

'고려청자' 나왔다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 2백번째인 책인 〈고려청자〉가 나왔다. 고려청자의 신비로운 빛깔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도 완벽히 재현해 낼 수 없을 만큼 오묘하다. 그 신비의 근원은 바로 청자빛.

도자전공인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발생부터 발전과 쇠퇴의 과정을 따라가며 고려청자의 신비를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고 있다. 고려청자는 은은하면서도 맑은 비색의 유약과 유려한 선의 흐름, 탄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형태, 조각도의 힘찬 선과 회화적이며 시적인 운치가 있는 상감문양의 특색을 밝혔다.

도자 명문의 성격, 연대를 밝힌 편년 유물편에서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소문청자, 동 · 식물을 본떠 만든 상형청자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청자들을 정관장이 손수 찍은 1백컷의 칼라사진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의 참생명… 한탑스님 지음

삶의 문제 어떻게 해답을 구할까



"질문하는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보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저자 한탑스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문사수법회'에서 법문한 내용을 묶은 책으로 금강경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단순한 강의가 아닌 스님의 신앙세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들어있다.

우리자신의 근본적 문제인 삶, 죽음, 인생의 목적 등에 대해,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문제들이 왜 발생하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각각의 주제를 담은 56가지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부처님 탄생 설화의 의미, 윤회, 성불, 기도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돼 있다.〈문사수 6천원〉

화제의 책

장가 안가길 잘했네 우학스님 지음

산문 안팎서 겪은 에피소드 수필로



〈장가안가길 잘했네〉는 우학스님이 산문 안팎에서 겪은 갖가지 에피소드를 짧은 수필형식으로 엮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웃음뒤엔 뼈아픈 교훈이 담겨져 있다.

어느 노보살이 대웅전 기둥을 어루만지며 "스님, 40년전에 이 기둥을 제가 세웠습니다"하니 손주녀석이 "할머니는 옛날에 무지 힘이 좋았나 봐요"한다.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스님은 생각한다. '노보살은 지금도 힘이 장사다.

기둥을 아직도 마음 속에 끌어안고 있다니…' .이 글 마지막에는 '…내가 나란 생각 버리면 마침내 참된 보살 되리라'라는 가르침이 적혀있다.

일화 1백여가지를 소개하고 각각에 '마음을 밝혀 주는 새 법구경'코너를 마련해 일상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잔잔하게 구성돼 있다.〈종은인연 6천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불법수행	한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2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 · 지현	민 족 사
3	불교입문	조계종교육원	조계종출판사
4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5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율 순	신 우 당
6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 윤 수	민 족 사
7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 타	대원정사
8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방불교예술회	반출판사
9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10	팔만대장경속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	진 현 종	혜 윰

구입문의:(02)737-0695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봉축현수막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대한불교 조계종
조 계 사
▲ 불자의집 교패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 차량용 스티카


부처님오신날
▲ 어 깨 띠


〈일반〉 〈고급〉
▲ 리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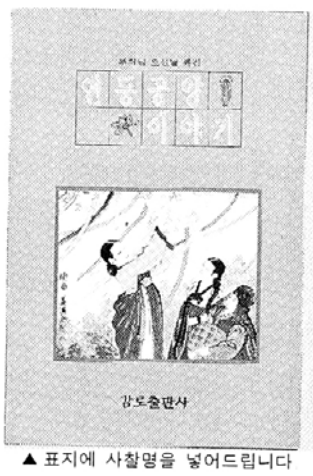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는 물론 전국민의 시야가 집중된 이번 봉축행사에 각 사암에서는 봉축위원회 지정 현수막을 사용하여서 불교계의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공식 지정업체로 선정된
감로기획에서는
국민적 축제인 불기254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현수막을
질기고 품질이 우수한 최고급 천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덕 큰스님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가 격 표 ◈

품 명	규 격	가 격
현 수 막	90cm×6m	40,000원
	90cm×8m	50,000원
	90cm×10m	60,000원
불자의집 교패	2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1,000원
차량용 스티카		300원
어 깨 띠	1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2,500원
리 본 일 반	5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220원
리 본 고 급		330원
리 본 귀빈용		1,000원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앞)
☎(02)723-4306 · 7 FAX·(02)738-8682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안내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스님이 들려주신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봉축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의 의미, 부처님의 탄생이야기, 등공양의 유래와 공덕, 관불의식의 유래, 봉축법문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사찰에서 초파일 법회 홍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초파일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수 록 내 용 ◈

- 봉축 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 봉축 발원문1 · 2/연등공양 발원문/
  어린이 봉축 발원문/봉축시1 · 2/괄상예문(八相禮文)
- 이야기 하나
  흰코끼리의 꿈/어린왕자 싯다르타의 탄생/부처님의 전생이야기/
  새벽별…큰 깨침/생명의 고향 열반으로
- 이야기 둘
  부처님 오신날 등을 켠다/만 개의 등, 하나의 등/온 겨레의 잔칫날, 사월 초파일/
  등 공양의 유래/연꽃 등 밝히며, 거리를 밝히며
- 이야기 셋
  초파일 아기 부처님께 길상수 부으며/관불 의식의 유래
- 봉축 법문
  무우수꽃 피는 룸비니동산/하얀연꽃 피어나라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법보시 특가/1,500원
◆ 크기/신국판, 80페이지

※ 농협 온라인번호
053-01-127096
(예금주 : 선 문 빈)

부처님의 생애 신국판 72페이지, 법보시 특가:1,500원
연등공양 이야기 신국판 64페이지, 법보시 특가:1,500원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팩스(02)738-8682

"21세기는 인터넷 포교시대"

승가대 김응철교수 '불교 인터넷 활용…' 발표
보조사상硏 4월25일 '불교와 인터넷' 세미나

최근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활용한 포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불교와 인터넷'을 주제로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포교사회학과)는 〈승가·僧伽〉지 제15호에 발표한 논문 '불교 인터넷 활용 현황과 포교 방법론 연구'에서 "정보화 사회에 부합하는 한국불교의 포교방향은 세계 각국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인터넷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며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불교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고양 및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논문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30여개의 국내 불교사이트를 △인터넷 운영을 도와주는 도우미 사이트 △사이버 사찰형 사이트 △종합 정보센터형 사이트 △학술·연구·수행기관 사이트 △기타 불교관련 사이트로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했다(표 참조). 또 세계 불교관련 사이트와의 비교를 통해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 분석과 함께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97년 12월 현재 인터넷 검색엔진 Illuminati Online(http://www.io.com)에서 검색할 수 있는 세계 불교관련 사이트는 4백여개. 이 사이트들은 소속 불교단체를 소개하고 온라인 잡지를 발간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운영되는 불교관련 사이트는 언어적 문제와 더불어 지적 생산의 문제, 전문가의 문제, 불교계의 관심 부재 등으로 아직 걸음마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국내 부다피아등 30여 사이트 '접속중'
사용언어 대부분 한글…영역화 급선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국내 불교사이트는 사용 언어가 대부분 한글로 이뤄져 국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사상과 철학, 신행체계 등 독창적인 지적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 지속적인 자료추가(업그레이드)와 편집 등을 전담할 전문가집단 구성이 요청되며, 인터넷 활용이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국제화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교계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사이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포교 자료 개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종단 차원의 조직적 후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포교사업의 선행조건으로 '온라인 잡지' 발행을 제시했다. △자세한 교학체계 설명 △현대적 해석과 실천방안 제시 △문자·음성·동화상 서비스를 활용한 예불, 좌선법 소개 등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김교수는 "간접적 의사 전달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나, 동시에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교계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이견도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 통신 기술 습득과 이를 현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즉 사회는 빠른 속도로 '정보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으나 불교계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저변확대가 아직은 이뤄져 있지 않다는 것.

한편 보조사상연구원(원장 현호 스님)은 4월25일 '불교와 인터넷'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불교와 인터넷(이종완·LG 종합기술원 책임연구원) △고려대장경의 전산화와 인문학적 검증(김종명·한국불교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발표한다. 주제발표를 하는 이종완씨는 "2~3년 전부터 일고 있는 순수학문과 인터넷의 접목은 학문적 성과를 대중화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불교역시 예외일 수 없는 영역으로, 인터넷 포교의 당위성을 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국내 불교관련 웹사이트

분류	이름	웹주소(http://www.…)	내용
종합정보센터	부다피아	buddhapia.com	불교관련 종합정보
도우미 사이트	바바니	bhavani.com	불교홈페이지 제작대행
사이버 사찰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직지사 한마음선원 일승종 법운사 천태종 삼광사	buddhism.or.kr users.unitel.co.kr/~bud0891 seon.buddhapia.co.kr cybertemple.prg samkwangsa.org	한국의 사찰 소개 창건 설화 등 소개 법회안내, 큰스님 설법등 세계불교사이트 소개 천태종 교리 소개
학술·연구·수행기관	고려대장경연구소 동국대학교 선정보센터 조계종 수선회 인도철학회	iworld.net/~hedenein dongguk.ac.kr/dgu.html seon.buddhapia.com zen.or.kr kora.dacom.co.kr/~jungss/kspman.htm	해인사 소개, 경전열람 서울·경주 캠퍼스 소개 불교생활정보, 퀴즈 참선관련 각종 정보 인도철학 논문소개
기타	맑고향기롭게 어린이지도자연합회 승가홈페이지 육아박물관 나우누리 '부처님마을' 부처님의 땅 겨레의 땅 경주 인터넷으로만나는 불교	aju.anudong.ac.kr/~kejn/swet/index.html chollian.net/~bulkook hallym.ac.kr/~sdjeng.san.html moka.or.kr/ blue.nowcom.co.kr/~nowbud bora.dacom.co.kr/~jhsl members.iworld.net/hyemook/toc.htm	활동내역 소개 어린이 포교자료 소개 춘천지역 사찰 소개 박물관학교 등 소개 불교공부방, 한국불교사 경주남산 등 불교문화 국가·학술·신행단체별 불교사이트

인권·여성·지뢰제거등 참여불교운동 왕성


◇사리카스님


◇노르부 라모


◇레슬리 윌리암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여성불자들의 활동

불교계 여성들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인권·여성·동성애 등 특수한 분야의 활동이 왕성하다.

영국인 여성불자 줄리아 밀턴이 운영하는 △불교계 여성활동(http://www.lance.ac.uk/staff/milton/women.htm) 사이트는 여성 불교 지도자·학자, 문헌정보, 정기간행물, 여성 교육 프로젝트 등의 정보를 소개한다.

'여성불교지도자'에서는 서양 여성으로는 최초로 티벳스님의 환생으로 인가받아 불쿠가 된 미국인 노르부 라모(J.A.Norbu Lhamo)를 소개하고 있다.

또 1996년 인도 보드가야에서 열린 '여성불자 교육 프로그램 정보도 '비구니의 삶'에서 제공한다. 계율을 주제로 열린 이 프로그램은 서구 여성불자들의 현실적인 생활문제를 계율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동성연애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리고 있는 미국인 사리카(Sarika)스님의 △다르마디키(Dharma Dykes, http://www.dtsmed-data.com/) 사이트는 현재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는 2백여명의 레즈비안들이 워크샵 강좌 상담실 등을 개설해 놓고 활동하고 있다. 사리카스님은 60년대 반전운동세대로 과격한 시위로는 평화를 이끌 수 없다는 생각에서 틱 타엔 안 스님(베트남)을 스승으로 출가한 미국 비구니다.

"인권을 빼앗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나의 수행 방편"이라고 말하는 할머니 불자 레슬리 윌리암스(美, Lesslie Williams)가 개설한 △참여불교(http://www.engagedpage.com) 사이트는 인권·사회정의의 정보와 활동을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과테말라 르완다 등 제3세계 인권, 대인지뢰방지 캠페인, 달라이 라마·간디·아웅산 수지 등의 인물 전기 소개 환생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티벳의 전통적인 불교 놀이인 '환생게임'은 주사위를 던지고 말을 이동해 33 하늘과 육도윤회를 지나 열반에 이르는 놀이.

이외에도 △부처님의 딸들(http://www.cpsc.suu.edu/users/henderso/) △티벳의 소리·티벳여성연합(http://www.grannyg.bc.ca/tibet/tibvoice.htm) 등 여성불자들이 주도하는 국제단체와 캠페인들이 있다.

"불교에 장수비결 있다"

日 '대법륜' 3월호 특집
스님 평균수명 최고
좌선·小食 등 권장

일본 불교잡지 〈대법륜(大法輪)〉 3월호에 특집-'장수(長壽)의 비결은 불교에 있다'가 실려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궁극의 건강법, 불교 △장수는 좌선으로부터 △장수의 심오한 비법 등 총 7편의 기고문을 통해 불교를 통한 장수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 것. 그 가운데 '궁극의 건강법, 불교'에서는 일본의 '직업별 평균사망연령 조사표'를 인용, 스님의 평균수명이 일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1세에서 8세까지 높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직업별 평균 사망연령이 변호사 78.6세 정치가 76.4세 예술가 75.2세 운동선수 71.5세 등으로 조사된 것에 반해 스님은 79.5세로 총 10개의 표본직업 가운데 최고를 차지했다.

스님들이 장수하는 이유는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스님들의 생활습관에 있다는 것. 우선 자연적 신체리듬에 적합한 생활로, 스님들이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취하는 6시간의 취침은 생체리듬에 가장 적합한 수면시간이라는 것이다. 또 스님들이 자주 드는 좌선은 생리학적 실험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듯이 마음의 안정을 돕는 뇌파발생과 소화촉진 등의 효과가 있다. 이밖에 소식(小食), 자연친화적인 느린 걸음걸이 등도 장수의 비결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일반적으로 행하는 합장인사가 순간적으로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며 마음의 안정을 주는 행동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우리 몸의 각 부위에 대응하는 경혈(經穴)이 모아지면서 신경과 내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선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즉, 신심(身心)의 기능을 조절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절묘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정〉

"만해사상 핵심은 생명사상"

이선이씨 '만해시의 생명문학적…' 발표

〈만해학보〉 제4집에 수록된 논문 '만해시의 생명문학적 표출양상과 의미'에서 이선이씨(경희대)는 "만해 한용운 스님 연구는 '생명사상'이라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만해스님의 시에 나타난 생명사상을 분석했다. 이씨는 "만해스님의 시 전반에 흐르고 있는 '님'은 차별없이 삼라만상에 내재하는 생명적 존재"라며 "만해스님의 '님'을 통해 시대에 대한 저항의식과 범생명에 대한 끊없는 사랑을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해 문화대학' 개설

5월8일까지 매주 숲 이화삼성문화회관
위성·인터넷 중계…정영호교수 '발해불교' 강의

발해 건국 1300주년을 기념하는 '발해 문화대학'이 20일부터 5월8일까지 8주간의 강의를 한다. 또 4월20일부터는 무궁화위성과 인터넷(디지틀조선일보/www.chonsun.com)을 통해 원격강의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구려연구회와 조선일보사,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 주최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서울 이화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발해 문화대학'에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한규철·경성대) △발해 옛땅을 찾아, 현지를 간다(서길수·서경대) △발해의 불상, 발해의 미소(정영호·교원대 박물관장) 등의 강좌가 마련돼 있다. (02)337-1661

학술단신

20일 역경연찬회 세미나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밀원스님)는 제1회 역경연찬세미나를 20일 오후4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역경의 문제와 발전과제'를 주제로 △한역 밀교경궤(密敎經軌) 번역상의 문제 연구(김영덕·위덕대) △팔리어본 원시경전의 번역상의 문제(최봉수·동국대) △대승불교 원전 번역상의 문제(김사업·동국대) △한역장경의 구역과 신역의 용어 비교연구(권오민·경상대) 등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02)732-4921

불교인 의식조사자료집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회과학연구소(소장 류승무)는 불교사회조사 자료집 〈현대불교인의 의식조사연구〉를 발간했다. 97년 한해동안 교계에서 실시된 △불교인의 경제의식과 사원경제의 관리 조사와 △종단발전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가 통계자료와 함께 자세히 수록돼 있다. (02)926-5905

'…동양논리의 응답' 발간

지난해 7월에 열린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이사장 정주영) 국제학술세미나 논문집 〈21세기 도전, 동양논리의 응답〉이 발간됐다. 〈본지 134호 13면 참조〉

△인간미를 지닌 도덕철학-21세기를 위한 초기불교사상(데이비드 칼루파하나·하와이大)△불교와 생명의 논리(데미안 키온·런던大) 등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02)224-4044

泰 롭부리사원 에이즈 환자촌 12월 개원

태국 방콕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롭부리사원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에이즈 환자촌을 설립, 운영하게 됐다.

롭부리사원은 이미 3백40헥타르의 부지를 마련, 태국 국왕의 72회 생일을 맞는 올 12월까지 학교·병원·식물원·농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2천여명의 에이즈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환자촌을 개원할 예정이다. 임종을 앞둔 에이즈 환자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롭부리사원의 환자촌은 정부와 스님들의 기부금으로 건립된다.

롭부리사원 관계자는 "모든 에이즈 환자들이 아무런 차별없이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롭부리 사원에는 이같은 소식을 들은 환자들이 몰려들어 5백개의 병상이 모자라는 상태로 하루 수천명의 환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태국에는 지난 84년 첫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이래, 현재 7만8천2백여명에 이르는 에이즈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50,000字의 名蹟을 集大成한 完璧한 大字典

국내 최고의 서예대가 여초 김응현 선생의 체본을 수록한 서예법첩

주문및문의처:이화문화출판사 출판영업부
T.02)730-6685~6 F.02)735-9366

書道大字典

文字學·篆刻·史學·建築學·畵學의 必須 字典

書藝의 敎本



4×6배판, 2890쪽, 최고급양장, 상·하권 값 100,000원

正統 書藝의 硏究에!!
格調 높은 글을 쓰는데!
集字를 하는데 필수 字典!

東方書範 (1집) 1~10



구입및문의처
이화문화출판사
출판영업부
T.02)730-6685~6
F.02)735-9366

여초김응현 편저/
국배판/
제1집 전10권/
값250,000원

國內 最高의 書藝大家 如初 金膺顯 선생의 체본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제1집(1권~10권의 내용)

第一卷 正音(國文)(板本體·宮體)
第二卷 石鼓文·泰山刻石·琅邪臺刻石
第三卷 禮器碑 예기비
第四卷 張遷碑 乙瑛碑 장천비 을영비
第五卷 張猛龍碑 장맹룡비
第六卷 右軍集字聖敎書(上) 우군집자성교서 上
第七卷 右軍集字聖敎書(下) 우군집자성교서 下
第八卷 孟法師 興福寺斷碑 맹법사 흥복사단비
第九卷 書 譜(上) 서보 상
第十卷 書 譜(下) 서보 하

東方書範 (2집) 11~20



특별보너스
上記 책을 구입하시는 분께는 漢韓大辭典(₩120,000)을 증정하겠습니다.

여초김응현 편저/
국배판/
제2집 전10권/
값250,000원

1集에 이은 最高의 書藝 敎本
광개토대왕비를 비롯한 각종 비문 收錄!!

제2집(11권~20권의 내용)

第十一卷 散氏盤 산씨반 毛公鼎
第十二卷 石門頌·孟琁碑 석문송 맹선비
第十三卷 隋開皇大王碑 수개황대왕비
第十四卷 爨寶子碑·爨龍顔碑 찬보자비 찬룡안비
第十五卷 劉文公碑 장문공비
第十六卷 晉祠銘 孟府銘 진사명 맹부명
第十七卷 枯樹賦·祭姪文稿 祭伯文稿
第十八卷 爭座位稿 쟁좌위고
第十九卷 急就章(上) 급취장 상
第二十卷 急就章(下) 급취장 하

如初金膺顯手墨



如初金膺顯 著/8절판/150멀버트지/올컬러/최고급양장케이스/각권300쪽내외/정가 400,000원

詩·書에 묻혀 살아오신 如初先生님의 七十餘 星霜이 이 書集에 담겨있다.

완벽한 作品解說! 올컬러로 印刷하여 作品의 생생함을 한층 높였고 大規模 作品만도 數十點에 달해 과히 國內最高의 超大型 作品集이다.

주요내용
1卷 天 編 61년 국전출품작부터 난대손으로 나열
2卷 地 編 96년 작품까지 모두 나열하였음.
3卷 人 編 도자기, 비문, 현판, 주련, 인보 등
4卷 釋文編 모든작품을 알기 쉽게 해설하였음.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44

남전의 친절

"남전화상에게 어느 승이 물었다. "다른 사람에게 설하지 않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남전이 대답했다.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다."

"나 혜개가 말한다. "남전은 이 질문을 받고 가진 것을 몽땅 써 버렸다. 칠칠치 못하게스리."

"송하여 가로되, "지나치게 친절하면 네 덕을 깎는다. 말없음 속에 진짜 공덕이 있다. 푸른 바다가 뽕나무밭이 되더라도, 너를 위해 일러주지 않으리."

不是心佛

南泉和尙, 因僧問云, 還有不與人說底法麼. 泉云, 有. 僧云, 如何是不與人說底法. 泉云, 不是心, 不是佛, 不是物. 無門曰, 南泉被者一問, 直得 盡家私, 卽當不少. 頌曰, 損君德, 無言眞有功. 任從滄海變, 終不爲君通.

남전(南泉 748~834)은 벌써 세번째 등장하고 있어 〈무문관〉에서 그가 차지하는 무게를 짐작할 수 있다. 처음 동서 양당이 고양이를 놓고 싸우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고양이에게도 불성이 있을까?" 이 소식을 들은 남전이 대중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요구했다. 다들 더듬고 어물쩍거리고 있자 남전은 다툼의 근원인 고양이를 갈라버렸다. 아픔의 근원인 고양이를 갈라버렸다. 아픔의 섭에게 꽃을 든 소식이나, 부모가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면목을 물은 육조의 다그침과 같은 것이다. 인도에서 태동하고 발전하여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나름의 독자적 전통을 구축했다. 이들 교학의 세 삼태기(三藏) 너머에 또 다른 격외의 가르침이 있는가. 있다면 너는 무엇이라고 알고 있느냐. 이것이 백장의 추궁이었다. 이 물음에 대해 남전은 "있다"고 힘주어 말했고, 그게 무엇이냐는 백장의 물음에 남전은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그게 미진했던지, "대체 그것은 어떤 대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그림 · 이준석

이 대답은 스승 마조의 설법과 연계되어야 이해될 수 있다. 마조는 모든 언설이 우는 아이 달래는 종이돈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울지 않으면 종이돈은 필요없다. 그런데 중생들이 울고 있다. 자신의 본성을 모르고 세상사에 부대끼며 무지에 기인한 고통에 울고 있다. 마조는 인간의 속 깊이에 있는 정신의 비밀을 일러주고 싶었다. 그래서 "네가 곧 부처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 또한 방편이긴 마찬가지이다. 모든 약은 독이다. 모든 방편은 그 반대의 부작용을 안고 있다. 부처는 먼저 깨우친 사람이고, 나는 나중 깨우칠 사람이니 부처와 나

"찾으려하면 길을 잃는다"

모든 언설은 우는아이 달래는 종이 돈

자비련가. 나중에 조주가 돌아왔다. 남전이 대답을 요구하자 조주는 신발을 머리에 이고 나가버렸다. 남전은 그때서야 고양이의 죽음을 애도했다. "네가 있었더라면 고양이는 목숨을 부지했을 것을."

두 번째는 조주의 질문에 관한 것이었다. "도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남전은 "평상심이 곧 도"라고 대답했다. 조주는 의아했다. "그거야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이 없다. 스승이시여, 그곳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나이까." 이 물음에 남전은 "찾으려 하면 곧 길을 잃는다"고 대답해 준다. 진리는 알고 모르고에 있지 않다는 것, 아는 것은 망령이고 도르는 것은 혼미인 바, 논리적 분석적 인지적으로 접근하면 길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이 말에 조주는 문득 깨달았다.

지금의 화두는 과감히 생략되어 있다. 〈어느 승〉이라고 짚은 이 사람은 남전과 동문이자 선의 규율을 제창한 백장(百丈)이기 때문이다. 뒷산의 여우를 만나 "인과에 어지럽지 않다"고 설파하여 오백년의 어둠을 벗겨준 바로 그가 남전에게 촌철의 질문을 던졌다. 백장은 남전보다 28세 선배로 서당(西堂)과 더불어 마조 아래의 3거두이다. 백장의 물음은 선의 근본을 겨누고 있다. 그것은 석가가 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자만하는 선자들이 있다. 이것은 긍정적 어법의 폐단이다. 그래서인지 마조는 자신의 언어를 수정한다. "마음은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니 도시 종잡을 수가 없다는 불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진리는 입체라서 평면적 진술, 긍정이나 부정의 진술로는 다 드러낼 수 없다. 긍정이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다면, 부정 또한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다. 아니 진리는 그 양 극단을 벗어난다. 그래서 중도(中道)이다. 남전은 거기에 다시 한 마디를 덧붙인 것이다. "그것은 도시 일정한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적 구도 아래 파악될 수 없다."

남전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여기서 몽땅 써 버렸다.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혜개는 남전이 너무 성급했다고, 혹은 경솔했다고 질책한다. 마지막 말은 아꼈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약은 독이므로. 또 언어는 아무리 위대해도 실재는 아니므로. 지나치게 친절함으로써 남전은 허물을 남겼다. 혜개는 자신 같으면 그런 우를 범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한 바다로 변하는 그런 변괴가 일어나도 자상한 고구정녕은 삼갔을 것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자비심이고 노파심이라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몸의 소리 듣고 마음 챙기자"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3

정견 ③

미국에서 한때 정자(精子)은행에 대한 찬 · 반 논쟁이 치열했다. 이 논쟁은 윤리 문제로 확산돼 과학자와 여성운동가들 사이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때 노벨 생물학상을 수상했던 美 하버드대학의 조지 왈드(George Wald)박사는 "윤리의 문제로 포장된 이 논쟁의 근원에는 평범함에서 뛰어남을 얻고자 하는 탐욕, 창조한 인간에게 느끼는 두려움, 타인의 육체를 빌리고 싶은 뒤틀린 사탕 등 그릇된 감정이 숨어 있다"며 두 진영을 다 비난했다. 왈드박사는 바로 인간의 무명(無明)을 지적한 것이다.

욕망만 따라가면 불행 초래
감각대상 '관' 하면 지혜생겨
좋고 싫음 변해…집착 놓아야

무명의 세계에서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끝없는 집착과 걱정의 굴레에 얽매인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하기만을 원하며 욕망을 따라갈 뿐이다. 무엇을 하든지 그저 자기 뜻대로 되어지기만을 바란다. 안락과 쾌락을 계속 맛볼 수 없으면 성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치밀어 불행을 초래한다.

사람의 생각이 감각대상만을 좇아간 까닭이다. 생각이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 우리는 따라간다. 그러나 생각과 지혜는 다르다. 지혜의 상태에서 마음은 고요하고 동요하지 않으며 우리들은 알아차리고(正知) 자각(自覺)할 따름이다. 보통의 경우 감각대상과 만나면 우리는 그 대상에 관해 생각하고 숙고하고 분별하고 근심한다.

명상 수행은 세간에 앉아, 즐거움과 고통에 집중하고 소란스러움과 고요함을 듣고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의 관계를 관(觀)하고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몸, 에너지, 소리 등을 정념(正念 · 마음챙김)하고 들어야 한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를 생각해보라! 위장(胃腸)이 "충분히 먹었어"라고 처음으로 포만감을 나타내면 혀는 "글쎄, 과일 맛이 좋은데"라고 음식 맛에 여운을 남긴다. 우리는 눈으로 남아있는 음식을 볼 때 "그래! 음식이 남아있잖아. 더 먹자"고 생각한다. 우리가 몸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몸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육체의 물리적 현실을 보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의 첫 덕목인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즐거움과 고통의 감정을 이해하고 주저없이 감정(소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섣부른 인식의 판단을 하지 않고 몸과 감각의 소리를 들으면 윤회와 무상(無常)의 법칙을 알게 된다. 지혜로써 삼라만상의 변화를 본다는 것이다.

명상을 하는 동안 감각적 대상을 만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애초부터 감각적 대상과 접촉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행자는 그 대상에 때론 집착하고 때론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쓴다. 그 바탕 자체가 욕망이다. 욕망은 싸우면 싸울수록 더 힘이 세어진다. 생각 따위는 신경쓰지 말고 계속 수행해야 한다. 감각의 대상과 접하게 되면 다만 숙고할 일이다.

수행에는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명상으로 얻은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다면, 대상을 꽉 잡으려는 한다면, 그 집착의 꼬리를 물고 고통이 엄습한다. 이때 좋고 싫음 등을 지켜보고 이러한 것들이 항상 변한다는 것을 깨달아 집착을 놓아버리면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다시 찾아온다.

불교의 수행과 가톨릭의 관상(觀相)을 깊게 연구했던 미국인 신부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도 "명상을 하며 마음을 열고 살아갈 때에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사물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도, 수행자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상호관계에서만 존재할 뿐, 자신의 집착에서 살 수 없다는 불교의 깨달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수행자의 초상을 찾을 수 있다. 수행자는 빛, 어둠, 위, 아래, 즐거움, 고통 등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현실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명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52

불교와 수학

47

변화의 원리

김 용 운

우주공간에 변하지 않는것 없어

불교철학 '諸行無常' 가르침 설파

불교의 기본 입장을 나타내는 말로써 '삼법인(三法印)'이 있다. 그 첫머리의 제행무상(모든 것은 무상하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말한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이 구절이었다.

'부모도 변하며 너도 변해간다.' 언제까지나 변치 않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나에게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어머니의 말은 무섭기까지 했다. 그렇기에 처음엔 무상(無常)이라는 말이 감상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졌다. 이 사실에 대해 정면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학교를 다니면서 수학(과학)적 지식을 얻고 난 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1초간 30㎞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다. 또 이 태양 자신도 태양 근처에 있는 다른 별에서 본다면 매초 20㎞의 속도로 헤라클레스 성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 부근에 있는 별들도 은하수 전체의 회전운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 속도는 매초 300㎞로 계산되고 있다. 실제로 우주 공간은 변치도, 움직이지도 않는 중심조차 없는 것이다. 확고부동한 대지로 생각되어 왔던 이 지구상의 한 부분은 한 순간 사이에 우주 공간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처음 알아차린 사람은 17세기의 갈릴레오이다. 그는 자신이 만든 망원경을 이용해서 우주공간 모든 방향에 태양과도 같은 별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 사실은 곧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 것이다. 20세기에 이르러 핫플이 은하수의 분포에도 중심이 없음을 발견했다. 이제 과학은 우주의 어디에도 중심이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지구 자신도 자전(自轉)함으로써 그 위에 사는 인간에게 '하루'의 개념을 주었고, 그것을 24시간으로 쪼개어 시간의 단위를 생각케 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우리는 매초 300m의 속도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도 제트기와 같은 속도로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구상의 인간이 엄청난 속도로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지구를 포함한 우주 공간의 크기가 인간의 척도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아침 해는 올라오고 저녁해는 지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지구 자전을 파악할 수 없다. 하루 24시간을 정하고 생활하는 사이에 어느새 인간은 그 리듬에 익숙해진다. 오랜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은 지구의 자전에 적응할 수 있게끔 되어 버린 것이다. 어림으로 인간의 체내는 25시간 단위로 주기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달의 운행과도 같다.

달은 매일 밤마다 약 한시간 정도 빠르게 자리를 옮기고 있다. 지구는 그것을 뒤쫓는 것처럼 동쪽으로 자전하고 다음날 이동한 달이 머리 위로 오는데 25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은 바닷물의 간만의 주기와도 일치한다. 여성의 주기도 거의 달 주기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체내의 갖추어져 있는 시계의 하루가 약 25시간인 것은 달의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먼 옛날 지구에서 처음 생명이 탄생한 곳은 원초의 바다였었다. 생명체는 바다 간만의 주기이자 달의 주기와 리듬을 같이 해서 진화해 왔다. 신비스럽게 태고의 기억이 우리 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인간은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이 자리를 절대 확고부동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몸에서 느끼는 25시간의 리듬은 우주 공간 전체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않은 채 지구 중심적으로 형성되었다. 지구 탄생 이래의 길고도 긴 세월 동안 인간은 근대 과학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성으로나 몸으로도 우주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다.

석가모니의 시대는 이러한 과학적 지식이 없을 때였다. 그러나 그는 직관으로 이 사실을 알아차렸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 불안을 달래는 데서 불교가 출발했다. 어린 마음에 몹시도 불안했던 이 사실이 과학 지식으로 확신될 때 오히려 그렇기에 인생은 어떤 가의 의미를 분게 된다. 그것이 나의 불교 입문의 계기였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현대인의 건강長壽쑥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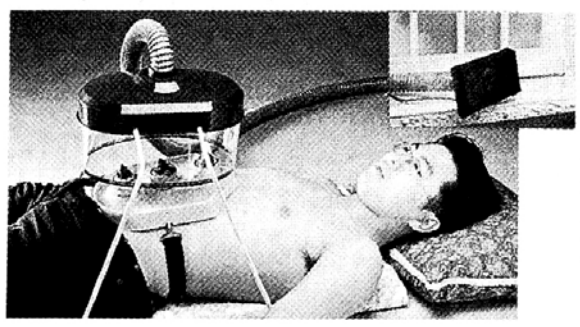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 . .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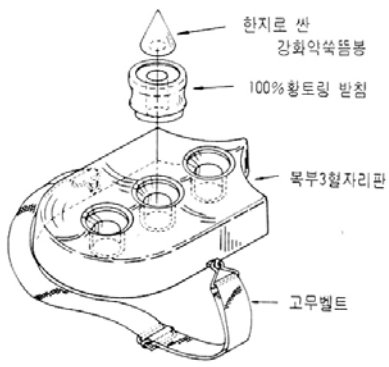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 80,000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왠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보급가격 : ₩ 13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종로 · 서대문구(02)747-7033 송파구(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남: 마산 (0551)23-9016 충북: 제천 (0443)46-3023 경기도: 광주(0347)64-3172 용인(0335)36-4294 강원도: 강릉 (0391)645-2117
부산: 연제구(보문포교원)(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충남: 예산(0458)33-3208 보령(0452)32-5288 경북: 울산 남구(0522)74-7536 울주구(0522)85-1284 포항(0562)75-1560 전북: 익산(0653)856-8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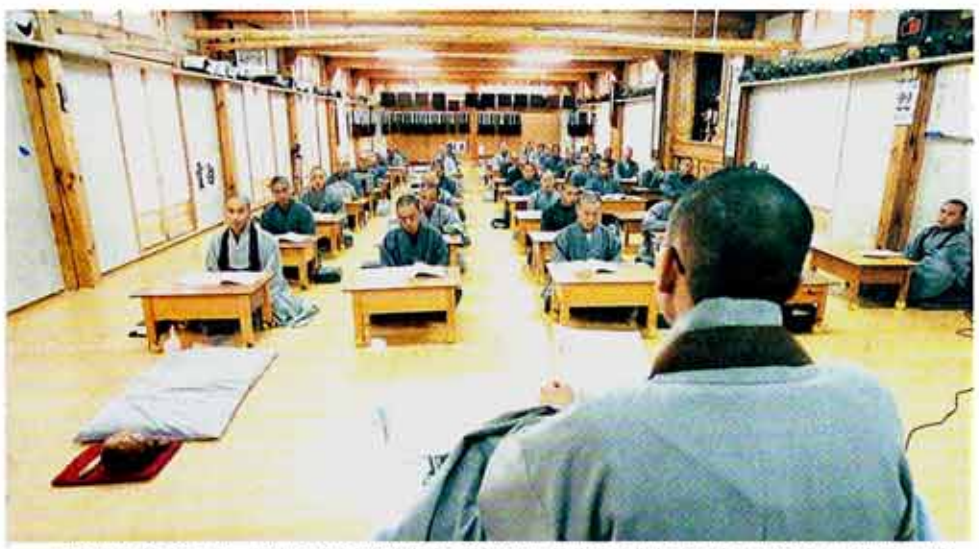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道이고 德차고 仁두르고 義지고 戒받들고



○부처님의 뒤를 따르려는 굳은 신심으로 입산한 초발심자들의 절 생활은 행자생활부터 시작한다. 사진은 조계종 합동 행자교육의 모습.



○행자교육 수료후 사미·사미니들은 승가대(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에서 기본교육을 받으며 스님이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쌓아야 한다. 사진은 승가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미들. 98년부터 사미(니)들은 오조가사를 수하지 못하고 민의를 수하고, 또 올해부터 옷의 깃과 소매에 가사색 띠를 두르도록 하였다.



○기본교육 4년을 마치면 구족계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비구(니)계를 수지하는 그때부터 스님으로서 상구보리 하화중생 수행길로 나선다. 사진은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거행됐던 조계종 단일 구족계 수계산림.

행자에서 스님되기까지

조계종 6~27일 송광사서 합동 행자교육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권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며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라 오로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끝없는 중생을 건지려고 해서이다." 〈선가구감〉

승보종찰 송광사. '도(道)를 머리에 이고 덕(德)을 허리에 차고 인(仁)을 두르고 의(義)를 짊어지고 계(戒)를 받들다가 죽기(치문경훈)'를 다짐한 출가자 182명이 합동 행자교육을 받고 있다. 행자교육 입재날인 6일은 마침 부처님출가절(음 2월 8일)이었다. 부처님이 미소를 머금고 내려다보시는 법당에서 예불을 올리고 백팔참회로 시작했다. '세상의 형상을 버리고 흔신의 힘을 다해 열반에 이르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서원한 남행자 102명, 여행자 80명의 모습에 생로병사의 인생고를 벗어나고자 새벽별을 보며 출가의 길로 나선 싯달타 태자의 모습이 겹친다. 고불식과 서원(誓願)에 임하는 행자들의 눈빛은 물처럼 여여하면서도 금강과도 같이 굳셌다.

출가사찰서 5개월이상 생활후
의식·교리등 23일간 합동교육
사미(니) 된후 대학·강원서
기본교육 4년 받아야 한다
단일 구족계 수계산림 통해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 수지

조계종에서 합동 행자교육을 시작한지 올해로 8년째, 이번이 14기다. 봄 가을 두 번씩 합동 교육을 시킨다. 23일간 매일 백팔참회, 사미(니)율의, 상강례를 하고 사시마지, 식당작법, 위의문, 천수경독송, 정근, 예배안행, 예식의궤 작법, 보현행원품 독송 등 기본적인 것을 익힌다. 이미 출가사찰에서 숙지했지만 사미(니)율의, 초발심자경문, 기초교리, 기본의식의궤 등을 새롭게 배운다. 〈금강경〉, 조계종사, 교육정책 등의 특강도 듣는다. 매일 백팔참회로 시작해 백팔참회로 마감하며 초발심의 의지를 확인한다. 3월27일 3천배로 회향하며 사미·사미니 수계를 받는다.

합동행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출가본사에서 5개월 이상 행자생활을 해야 한다. 통도사는 6개월 해오던 행자생활을 내년부터 1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불가에는 행자때 지은 공덕으로 평생 중노릇 한다는 말이 있다. 초발심때의 구도의지가 그만큼 순일하고 굳세다는 뜻이다. 큰 절에 가서 주의깊게 살펴보면 삭발은 하였으되 가사색 옷(여행자는 주황색)을 입고 침묵을 지키며 부지런히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바로 행자들이다. 그러나 출가를 원한다고 절에서 금방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입방원서를 내면 출가대장부의 그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는 의지가 얼마나 굳센지 1주일간 유예기간을 둔다.

해인사의 경우 일주일동안 속복을 입은 채 침묵을 지키며 선채로 인사만 시킨다. 이 기간은 입산자로서는 자신의 출가결심을 재삼 확인하는 기간이고 은주실에서는 과연 출가자로서 적합한가 아닌가를 지켜보는 기간이 된다. 큰 절의 경우 1년에 40~50명씩 입산하지만 30% 가량이 되돌아간다.

요즘은 출가자들의 평균 나이가 올라가는 경향이고 또 학력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계종 14기 행자들도 20대가 가장 많고 다음이 30대, 40대, 10대순이다. 학력은 고졸이 60%, 대졸이 35%로 고졸이상이 95%를 차지한다. 사실 나이, 학력이나 지위란 일단 출가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출가하면 나이, 학력, 지위 등이 모두 무(無)가 된다. 철저하게 무소유로 돌아가며 비구(니)계를 받은 날로부터 세는 법랍으로써 위계가 정해진다.

사미, 사미니는 아직 정식 스님이 아니고 예비승이다. 옷도 올해부터는 차별화되어, 깃과 소매끝에 가사색 띠를 대야 한다.

사미(니)들은 승가대, 중앙승가대, 동국대, 기초선원 등 어느 한 곳의 교육기관을 거치며 기본교육 4년을 받아야 한다. 승가대(강원)는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운문사를 비롯 17개가 있다. 큰 스님 회상에서 선지식들에게 경전을 배우고 참선, 계율을 익힌다. 대중생활을 통해 대중에 수순하며 법다이 생활함을 익히는 것이다. 1학년격인 사미(니)과에서는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치문을, 2학년격인 사집과에서는 서장 선요 육조단경 등을, 3학년인 사교과에서는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등을, 4학년인 대교과에서는 화엄경 등을 배운다. 특강형식으로 '선종사' '불교사' '세계문화사' 등 다양한 교양·선택 과목과 외국어도 배운다. 이렇게 4년을 지내면 단일 구족계 수계산림을 통해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를 수지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본격적인 구도자의 길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인욕(忍辱)과 하심(下心).' 수행자로서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말이다. 행자때 온갖 허드렛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인욕과 하심을 쌓아 위대한 스승 부처님께서 걸어간 길을 묵묵히 따르기 위한 방편이다. 인욕과 하심이 낸 길을 걷다보면 마음은 망망대해가 되어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다.

한암스님은 평소 부처님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다섯가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참선, 염불, 간경, 예식, 가람수호. 재능이 있어 모두 갖추면 좋겠지만 한가지만이라도 철저히 해야 양가득죄를 면할 수 있다고 했다. 행자·사미(니) 기간은 절집안 안팎의 모든 일에 대해 부처님제자로서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며 '중물 들이는' 기간이다. 그러나 비구(니)계를 받아 스님이 되는 그 순간부터가 완성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출가자들은 지계제일(持戒第一) 우바리존자의 말을 늘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신심으로써 욕락을 버리고 일찍 발심한 젊은 출가자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만을 고고하게 찾아서 가라."

이경숙 기자

큰 스님들의 행자시절

공양간에선 요리사
논·밭에선 신농씨
나무할땐 일류 목수
염불할땐 예식종장

지나간 학창시절이 나이가 들수록 새록새록 추억되는 것처럼 스님들 대부분은 백학간두진일보의 마음으로 생사문제를 해결하러 입산해 계를 받기까지의 행자시절을 잊을수 없다고 한다. 예전에는 사미와 비구의 구별이 분명치 않았다. 따라서 행자생활이 지금처럼 6개월로 정해진게 아니라 스승이 "계 받아라"하기 전까지였으니 3년도 좋고 5년도 좋았다. 또 예전 큰 스님들은 말로 일일이 가르치지 않았다. 고저 행(行)으로 보여줬고 행자들은 큰 스님들의 언행을 본으로 삼고 따르고자 노력했다.

원담스님(72·덕숭총림 방장)은 행자생활을 5년, 석주스님(90·칠보사 조실)은 6년동안 행자생활을 한 후 비로소 계를 받을 수 있었다. 도견스님(74·해인사)은 17살때 오대산 동관암에서 지월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는데 은사스님이 행자옷을 빨아주곤 했고 천수경을 외느라 밤을 태워서 행자가 몸둘바를 모를때 웃으시며 '잘못하는 것은 앞으로 잘할 근본'이라고 다독여 일생 가르침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인곡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한 혜암스님(79·조계종 원로회의의장)이 맨 처음 한것이 공양주. 출가한 날부터 불구를 닦고 밥을 지었다. 밥짓는 양을 잘 맞춰 나중에는 쌀 곳간의 미감일까지 봤고 신발도 손수 지어 신었다. 고된 행자생활중에 '도를 닦으러 왔는데 딴 스님들 공양준비만 하다가 시간 다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에 그길로 떠나 암자로 정진하러 간 예피소드도 들려준다. 20세때 만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서옹스님(87·고불총림 방장)은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예불 모시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이 없어 얼음을 깨고 음식을 준비하곤 했지만 스님 밑에서 공부하다 혹시 실수라도 하면 하루일 다하기 난뒤 참회의 절을 하느라 꼬박 밤을 지새웠다. "행자시절을 돌이켜보면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예요. 제때 발심할 인연이 와주었고 훌륭한 선지식을 모시고 수행할 수 있었으니까"고 말한다.

동산스님밑에서 3년간 행자생활을 한 고산스님(65·쌍계사 조실)은 처음에는 출가를 잘 허락하지도 않았으며 일단 출가하면 공양주에서부터 채공, 밥갈기에서부터 기본교리 등 모르는 것이 없는 만능인이 되어 있어야 사미계를 주었다고 회상한다. "공양주 일과 예불 염불, 시식, 윗사람섬기기, 아랫사람 다스리기, 농사짓기 땔감하기 예의도덕 등에 모두 능통해야 대중의 사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공양간에서는 일류요리사, 논 밭에서는 신농씨, 나무할 때는 일류 목수와 나뭇꾼, 염불할 때는 예식종장, 이렇게 엄격하게 단련이 될 때 최고의 선사, 법사, 율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행자들은 공양주, 청소, 땔래, 논밭일 등 온갖 허드렛일을 하며 수행의 기본이 되는 인욕과 하심을 쌓는다.

경전속 출가인의 자세

"法의 이치 알아 열반의 경지로…"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끊기 위해 출가하여 부처님밑에서 수행한다. 〈집이함경〉

수행자가 일곱가지 법을 성취하면 현세에서 무궁한 즐거움을 누리고 번뇌를 없애려 하면 곧 없앨 수 있게 되느니라. 그것은 법을 알고 이치를 알며 때를 알고 자기를 알며 만족할 줄 알고 대중가운데 들어갈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을 관찰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수행자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 수행자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중일아함경〉

부모형제와 이별하고 출가한 사문은 욕망을 쉬고 애욕을 끊어 자기 마음의 근원과 법의 깊은 이치를 알아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안으로 얻을 것이 없고 밖으로는 구할 것이 없어 마음은 진리에도 매이지 낳고 업도 짓지 않는다. 〈사십이장경〉

출가해 불도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주야로 정진해 머리에 붙은 불을 구하는 것같이 해야 한다. 〈미륵성불경〉

수행자로서 타락하지 않는 일곱 가지 법을 말하리니 명심하라. 비구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화순하고 위 아래가 서로 받들며 선행을 쌓고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하느니라. 서로 화합하여 가르침을 따르고 깨달음을 향해 노력하되 게으르지 않아 악마에게 굴복당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세상일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영화에 힘쓰지 말아야 하느니라. 세상의 잡된 서적을 읽지말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잠을 많이 자지 말고 항상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세상의 음양술수를 배우지 말고 남에게 가르치지도 않아야 하느니라.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수행에만 힘써야 하느니라. 〈중일아함경〉

출가수행자는 여인을 마주보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지도 말라. 만약 함께 이야기할 때는 똑바른 마음으로 '나는 출가 사문이다. 흐린 세상에 태어났으니 연꽃이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것과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라. 나이 많은 여인은 어머니로 생각하고 손위가 되는 이는 누님으로, 나이 적은 이는 누이동생으로, 어린이는 딸과 같이 생각하여 제도하려는 마음을 낸다면 불손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십이장경〉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광연품(廣衍品) ②

人當有念意 인당유념의
每食知自少 매식지자소
則是通欲薄 즉시통욕박
節消而保壽 절소이보수

사람은 마땅히 비추는 맘 있을지니
먹을 때 스스로 적을 줄 알면
이는 곧 욕망이 적어지는 것
쓰임새 절제하여 수명을 보전하라

學難捨罪難 학난사죄난
居在家亦難 거재가역난
會止同利難 회지동리난
懃難無過有 간난무과유

배우기 어렵고 죄 버리기 어렵고
재가자 공부하기 또한 어렵고
모여살며 이익 같이 하기 어렵고
그 어려움 몸 받고 태어나기만 못하다

比丘乞求難 비구걸구난
何可不自勉 하가불자면
精進得自然 정진득자연
後無欲於人 후무욕어인

비구 구걸하기 어려우니
어찌 스스로 힘쓰지 않을까
정진하면 자연히 얻어지리니
거짓말을 하면 지옥에 가까와진다
말해놓고 안했다고 하면
두가지 죄를 함께 받으니
제 몸을 스스로 이끌고 지옥으로 간다

法衣在其身 법의재기신
爲惡不自禁 위악불자금
苟汲惡行者 구몰악행자
從則墮地獄 종즉타지옥

법의를 몸에 걸쳤다 해도
악을 지어 스스로 막지 못하고
오로지 악행에 몰두하는 자
끝내는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無戒受供養 무계수공양
理豈不自損 이기불자손
死嚥燒鐵丸 사담소철환
然熱劇火炭 연열극화탄

계행 없으면서 남의 공양 받으면
이치상 어찌 제 살깎기가 아니랴
죽어서는 불에 달군 쇠구슬 먹게 되나니
뜨겁기가 숯불덩이보다 더하다

放逸有四事 방일유사사
好犯他人婦 호범타인부
臥險非福利 와험비복리
毁三淫泆四 훼삼음일사

방일에는 네가지 일이 있다
남의 부인 범하기를 좋아하여
위험한 잠자리에 누우니 복리가 없으며
남의 비방이 셋째, 음란에 빠지는게 넷째다

不福利墮惡 불복리타악
畏惡畏樂寡 외악외락과
王法重罰加 왕법중벌가
身死入地獄 신사입지옥

복과 이익 아닌 것은 악에 떨어지니
악도 두렵고 즐거움 적으니 두렵다
나라법은 중벌을 가하고
몸 떨어지고 나면 지옥에 들어간다

譬如放管草 비여발관초
執緩則傷手 집완즉상수
學戒不禁制 학계불금제
獄鎖乃自賊 옥록내자적

마치 억새풀 뽑을 때에
느슨하게 잡으면 손을 베는 것처럼
계율을 배워 단속하지 않으면
지옥 장부에 제 이름 제가 올린다

"사람은 마땅히 비추는 맘 있을지니 쓰임새 절제하여 수명을 보전하라"

그 다음엔 남에게 바랄것이 없다

有信則戒成 유신즉계성
從戒多致寶 종계다치보
亦從得諸偶 역종득해우
在所見供養 재소견공양

믿음 있으면 계율은 절로 성만하고
계를 따르면 많은 보배가 이르며
또한 그에따라 어진 벗 얻으리니
가는 곳마다 공양을 받게된다

一坐一處臥 일좌일처와
一行無放恣 일행무방자
守一以正身 수일이정신
心樂居樹間 심락거수간

한번 앉거나 한번 눕거나
한결같이 행하여 방자함 없고
오직 한마음 지켜 몸 바르면
숲속에 머물며 마음 즐거우리라

지옥품(地獄品) ①

妄語地獄近 망어지옥근
作之言不作 작지언불작
二罪後俱受 이죄후구수
是行自牽往 시행자견왕

방일에는 네가지 일이 있다
남의 부인 범하기를 좋아하여
위험한 잠자리에 누우니 복리가 없으며
남의 비방이 셋째, 음란에 빠지는게 넷째다

不福利墮惡 불복리타악
畏惡畏樂寡 외악외락과
王法重罰加 왕법중벌가
身死入地獄 신사입지옥

복과 이익 아닌 것은 악에 떨어지니
악도 두렵고 즐거움 적으니 두렵다
나라법은 중벌을 가하고
몸 떨어지고 나면 지옥에 들어간다

譬如放管草 비여발관초
執緩則傷手 집완즉상수
學戒不禁制 학계불금제
獄鎖乃自賊 옥록내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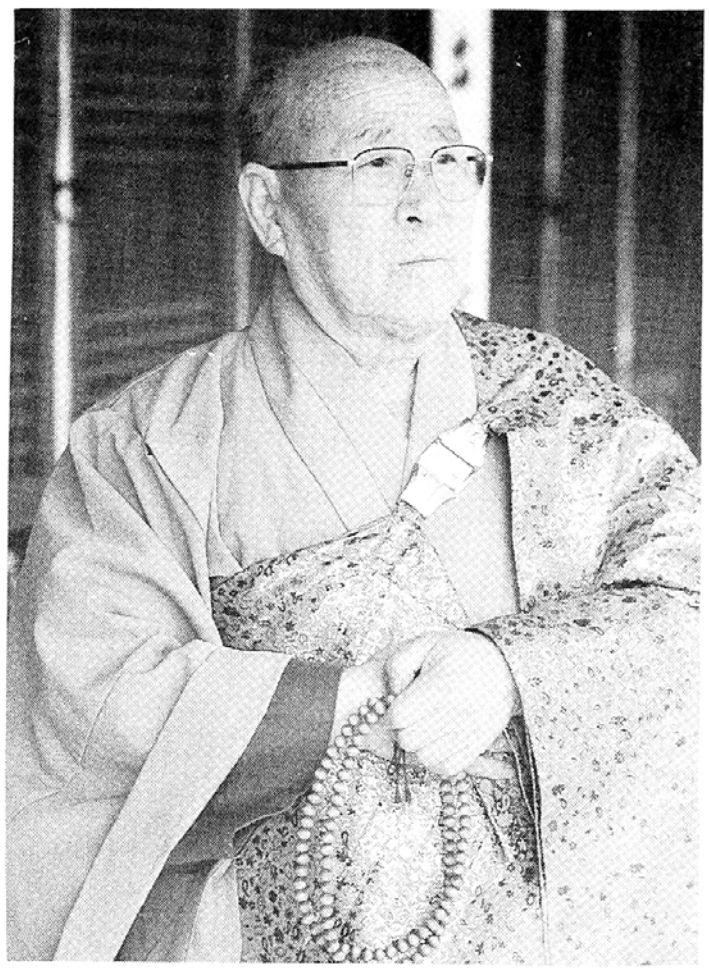
마치 억새풀 뽑을 때에
느슨하게 잡으면 손을 베는 것처럼
계율을 배워 단속하지 않으면
지옥 장부에 제 이름 제가 올린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미혹한 눈으로 세상보니

태허스님 〈본원종 종정〉



약력
- 1916년 경북 문경 生
- 1927년 문경 김용사에서 정경원 스님을 은사로 이화신스님을 계사로 득도
- 1938년 김용사 경흥강원 대교과 졸업
- 1941년 혜화전문학교 불교학과 졸업
- 1945년 문경 봉암사 주지
- 1950~58년 서악사, 부석사, 연방사 주지
- 1970년 태고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 1980년 총화종 종정 역임
- 1988년 대한불교 본원종 종정 취임
- 現 예천 연방사에 주석

어느날 임제선사(?~867)가 제자들에게 "붉은 몸뚱아리에 지위없는 참사람이 있어 너희들의 눈, 코, 귀, 입으로 늘 드나드는바 아직도 이를 보지 못한 자는 나와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스님이 나와서 "지위없는 참사람이란 무엇입니까?"라고 되묻자 선사는 법상에서 내려와 제자의 멱살을 쥐고서는 "지위없는 참사람이라니, 그 무슨 똥막대기냐?"고 힐난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똥막대기라니…? 제자들은 "스승이 왜 똥막대기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곧 화두가 된 거지요. 화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하늘에서 눈이 계속해서 내릴때 마당을 아무리 쓸어도 눈은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천막을 치고 쓸면 깨끗이 마당을 쓸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화두를 드는 것은 주변에 천막을 치고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두가 성성하게 살아있으면 숙세의 업연과 현세의 그릇된 집착으로 인해 일어나는 망상잡념이 차단됩니다. 차단이 계속되면 업장도 덩달아 소멸됩니다. 업이 소멸된 후에는 마음가운데에 화두인 똥막대기 하나만 남게되는데 그 똥막대기마저 놓아버리면 비로소 지위없는 참사람이 현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채 무작정 외우듯이 화두를 들어봐야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지요.

또 화두는 제대로 된 선지식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삼세의 인연도리는 알아야 해요. 예를 들면 전생에 뱃사공이었던 사람에게는 물과 관련된 화두를 주면 좋을 것이고 대장장이였던 자에게는 불이나 쇠와 관련된 화두를 주면 공부가 수월할 겁니다. 받는 사람의 근기에 맞게 화두를 주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화두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캄캄하니 화두가 살아있을 리가 있나요?

비롯이 없는 거기에는
끝도 또한 없음이다
가도 가도 한이 없는
그 생명에서
무엇이 새로 있으랴
남도 죽음도
그대로 나로다

요즈음 참선한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검은 산 귀신굴에 들어 앉아서 허송세월만 보내는 격이니 업장만 잔뜩 키우는 꼴입니다. 말법시대라 중생들의 근기가 그런지 요즘 정토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미타불 정근은 정토삼부경인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근본으로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추구하는 공부입니다. 가장 쉬운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른데 가 있더라도 오직 입으로 아미타불만 염송하면 되니 일자무식인 자도 쉽게 들어올수 있는 큰 문입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에 끊임없이 염송하다 보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 의식적인 부분과 잠재의식적인 부분의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전에 보면 아미타불의 명호를 간절

화두든 염불이든 일념으로 자나깨나 그것을 놓지 않으면 생사일여의 길로 들어갑니다

하게 부르면 죽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극락세계라 함은 따로 존재하는 불국정토를 말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현재당처에서 수행을 통해 도달한 깨달음의 경지를 일컫는 것이기도 하지요. 깨우치면 바로 그곳이 극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여여하고 구족한 것을 미혹한 눈으로 보니 괴로움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염불정근은 근본자성을 덮고 있는 망념의 먹구름을 조금씩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숙세의 업장들을 조금씩 소멸시켜줍니다. 오래하다 보면 정신이 맑아지고 신통력이 생겨서 앞일이 내다보이기도 하니 중생들이 생활속의 수행으로 하면 좋습니다.

견성했다는 것은 자기의 성품을 본 것으로써 본질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환연대오한 것과는 다릅니다. 견성이 성불은 아닙니다. 본 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승가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겉만 멀쩡하지 껍데기 뿐인 스님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출가를 하셨습니까? 열반 잘 하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서는 병들고 늙고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 생로병사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고뇌하다가 출가의 길을 택한 겁니다.

부처님은 초발심을 끝까지 견지하며 정진해 오도했고 또 그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고스란히 회향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굳은 초발심으로 출가한 스님네들이 세월 지나면 초발심이 어디로 갔는지 흐트러지고 분별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법답게 살지 못하면서도 자기를 속이면서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출가자들은 부처님 밥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해요.

제대로 수행하는 스님들이 드문 세상입니다. 부처가 되기위해 머리를 깎았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중도에 포기하고 타협해버리면 오히려 재가자로 있음만 못합니다.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게진 아나운서가 우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10~10:00
13:25~14:15
22:00~22:50
매주 일요일
18:40~19: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게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벗고 나섰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놓보세요.
가슴속은 시원해지고 어깨는 으쓱해진답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tn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큰스님 수행한담

괴로움 투성이지요"

차별없는 마음자리에서 번뇌소굴이 법신불임을 관하면 청정심 볼 수 있어요



◇1947년 열린 조선불교지도자수련회 기념 사진(둘째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태허스님).

나는 12살되던 해 당시 큰 본찰이었던 문경 김용사로 입산을 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절에 의탁하게 된 것이지요. 세속의 잣대로 보면 불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다 나에게 주어진 인연도리였습니다.

절에 와서 초등학교도 다니고 불법공부도 두루 섭렵하게 됐으니 절은 나에게 있어 큰 복밭인 셈이지요. 대강백이셨던 정경원스님을 은사로 모셨는데 계를 받기전에 입적하시는 바람에 육주(六洲)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육주스님은 김용사주지를 역임하는 등 학식과 덕망이 높은 스님이었습니다.

데 하루는 법춘스님이란 분이 찾아와서는 "지금 순호스님이 전염병에 걸려서 격리되어 있는데 그대로 두면 목숨을 잃게 될 것 같다"면서 모셔오자고 했습니다. 청담스님은 이질에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는 약이 변변치 않던 시절인데다 일본인들은 이질에 특히 약해서 가장 무서워하는 병중의 하나였습니다.

나는 경찰서와 병원을 찾아가서 책임지고 간호할테니 맡겨달라고 했습니다.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야채를 많이 먹고 요양을 잘하면 이질쯤은 큰 병이 되지 못했습니다. 6개월쯤 같이 지내는동안 병도 완쾌되고 사건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삼과 의복을 제정하는 등 청정가풍을 정립하기 위한 정화불사의 기치를 올리게 되었지요.

47년경에는 불교 대구중앙포교사로 부임하여 경상북도 전역을 포교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땐 오직 불교를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조계종 총정까지 지내셨던 청담스님은 후일 7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요청에 의해 다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가게되었고 나는 태고종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원주에 있는 모 군부대에서 사찰을 건립, 낙성식에 초대를 했습니다. 각자 종단대표로 참석해서 만났는데 그날 저녁 청담스님은 숙소로 돌아가다가 유경을 달리하고 맙니다. 그때 그 안타까웠던 마음은 이루다 표현할 수 없었지요.

김용사 중암에 있는 선방에서 한 5년간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염불삼매로 일관했습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미타불에 의거해서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여든 두 해동안 살아왔지만 그렇게 심한 환란과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던 것도 돌이켜보면 아미타불 염불정은 다문견고(多聞堅固)하고 또 다음 5백년간은 조사견고(造寺堅固)하며 마지막 5백년간은 투쟁견고(鬪爭堅固)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처님께서 입적하신지 2천5백년도 훨씬 지난 시점이므로 가히 말법시대라 하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언교(言敎)는 난무하되 행증(行證)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법시대는 지계견고하고 상법시대는 선정견고하며 말법시대는 염불견고라 하였으니 말법시대에는 아미타의 교법인 염불수행이 수승하여 가통입로(可通入路)라 하겠습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불, 무량광불 혹은 감로불이라고도 하는데 아득한 과거세에 법장비구의 몸으로 있을 때 시방세계 2백10억의 국토중 가장 훌륭한 곳을 골라 이상세계를 구현할 것을 서원하고 48가지 대원력을 세운 분입니다. 아미타불은 근기가 낮은 중생들도 쉽게 성불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나무아미타불만 부른다고 성불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화두드는 참선이나 염불이나 수행자 자신이 궁극적으로 일념이 되어야 합니다. 자나깨나 그것 한가지만 들고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매일여가 되고 나중에는 생사일여로 나아갑니다. 화두는 사무치는 분심과 대의심이 생명인데 오늘날에는 좀처럼 되질 않습니다. 생활하다보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응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공부 따로 생활 따로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는게 우선 필요합니다. 모든 생활이 곧 공부와 직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용시키려 노력하세요.

모든 현상의 원인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화두를 타파하기 위하여 용맹심으로 치열하게 정진하세요. 지성으로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자신의 잘못된 업장도 차츰 소멸되고 번뇌가 사라지고 청정한 자신의 마음자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체의 차별이 없는 그 마음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기질투가 난무하는 번뇌소굴이 곧 법신불의 전신체(全身體)임을 관(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이윤호 기자

"공부따로 생활따로 나누어 생각마세요"

"모든 현상의 원인 '나'로부터 비롯됩니다"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다보니 잔심부름도 많이 해야했지만 온통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은사스님을 시봉하는데 있어 밥은 공양주가 했지만 나물장만은 내가 직접 산이나 밭에서 뜯어다가 했습니다. 대신 어른스님들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이 제자를 거두었습니다. 옷을 장만해주고 학교도 보내주었으며 경전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혜화전문학교도 은사스님의 도움으로 다녔습니다.

28세때 김용사 상주포교당 주지로 머무를 때 일입니다. 먼 훗날 조계종 승려로서 정화불사의 최선봉에 섰던 청담스님이 항일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상주경찰서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청담스님은 순호스님으로 불리웠는데 청담스님을 만나려고 전국의 내로라하는 수좌들이 상주포교당으로 많이도 찾아왔지요. 그중에는 지금은 입적하신 성철스님, 자운스님, 홍경스님도 끼여 있었습니다. 도반들 끼리의 만남은 옆에서 지켜 보기에도 참으로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해방되던 해 문경 봉암사 주지를 거쳐 김용사 법무국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봉암사는 김용사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산선문의 하나인 봉암사에 선방이 없어서야 되느냐는 여론이 비등했어요.

정화를 추진하는 스님들과 함께 새로이 선원을 건립하고 제방의 납자들을 받아 들였습니다. 청담스님 향곡스님 성철스님을 비롯 전국의 수좌들이 모여서 장근 덕택이 아닌가 합니다. 염불정근이 몸과 마음의 전체로 순숙해지면 화두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 신앙의 소의경전인 〈아미타경〉은 다른 대부분의 경전들이 제자들의 간청으로 인한 부처님의 설법인데 반해 부처님 자신이 자청해 설하고 있는 이른바 '무문자설경(無問自說經)'의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의 시대를 3등분하여 정법(正法)시대, 상법(像法)시대, 말법(末法)시대로 구분했습니다. 즉 경전에 의하면 불멸이후 첫 5백년간은 정법시대이고 이후 1천년은 상법시대며 다음 1만년은 말법시대라 했습니다.

또한 부처님 열반후 첫 5백년간은 해탈견고(解脫堅固)하고 다음 5백년간은 선정견고(禪定堅固)하며 그다음 5백년간

나와 경전 45

미륵경



오 형 근
대승불교연구원장

미륵은 범어로 '마에트리아(Maitreya)' 즉 '자비'를 뜻한다. 자비를 뜻하는 미륵의 명칭을 갖게 된 것은 수행할 때 자심정(慈心定)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미륵은 성불하기 전의 수행기간에는 보살이라 칭하고 앞으로 인간계에 나타나서 성불할 것으로 믿고 불타라고 칭하는 두 가지 이름이 있다.

미륵과 관련된 경으로는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출생하여 일생보처보살로서 천인들을 교화하는 내용을 기록한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경성 역), 도솔천에서 인간세계에 하강하여 성불하고 정토의 세계를 건설하는 내용을 기록한 〈불설미륵하생경〉(축법호 역)이 있다. 또 〈불설미륵하생경〉과 내용이 중복되는 〈불설미륵대성불경〉(구마라집 역)이 있는데, 세 경전을 〈미륵삼부경〉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다른 번역이 있으며 이름이 중복되지만 소개한다면 구마라집의 번역인 〈불설미륵하생성불경〉과 의정법사의 번역인 〈불설미륵하생성불경〉과 번역인을 알 수 없는 〈불설미륵내시경〉 등이 있다.

도솔천서 미륵보살 하강은 방편 용화세계 기원하는 민중신앙으로

본래 미륵보살은 석가모니불의 제자였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미륵보살에게 미래에 틀림없이 성불한다고 말하면서 수기를 하고 우바리라는 제자에게 "미륵보살은 지금으로부터 12년후에 명경(命終)하여 도솔천에 상생하며 일생보처보살로서 5백만억의 천인(天人)을 교화하고 제도하게 될 것이다. 한 대신은 선법당을 지어 주기도 하며 모든 천인들이 칠보로 된 장식물을 공양하고 음성과 악기를 연주하며 미륵보살을 즐겁게 모시게 된다. 그리고 모든 천인들은 미륵보살의 설법을 듣고 무상도심(無上道心)을 발하며 보살의 위상을 구족하게 된다"고 예언하였다.

이와 같이 미륵보살은 도솔천에 상생하여 선법당에서 설법하고 천인들을 교화한 후 56억만년이 되어서 인간세상인 염부제에 하강하게 된다. 대바라문인 묘범(妙梵)이라는 분을 부(父)로 하고 범마바리(梵摩波提)라는 분을 모(母)로 하여 금색의 32상을 구족하고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된다. 미륵보살은 곧 출가하여 화림원의 용화보리수 아래에서 출가한 당일에 설불(說佛)하게 된다. 그 후 세 번의 법회를 열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여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한다. 그때 왕과 신하를 비롯 모든 사람들이 미륵불에게 귀의하여 성인(聖人)이 된다. 그때는 또 미륵불의 복력과 인간들의 복력이 수승하여 인간의 마음이 청정함은 물론 자연환경도 인간을 즐겁게 하고 하나도 유해한 것이 없다고 한다. 인간의 수명도 길고 생노병사의 무상함도 없으며 오직 선정과 지혜로써 생활할 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이루어진 세계를 흔히 미륵정토라 하고 용화세계라고도 한다. 미륵불은 도솔천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많은 사바세계에 몸소 하강하여 무지한 인간을 계몽하여 보살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미타정토사상 보다도 더욱 훌륭한 사상이라고 평하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미륵정토사상은 미래에 극락과 같은 이상세계를 건설하려는 불자들에게 널리 퍼져 민중들에게서 많이 신앙하게 되었다. 이 미륵신앙은 특히 법상종에 도입되어 법상종의 사찰에는 미륵불을 모시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법상종의 존전인 유가사지론 등 오대부론(五大部論)이 도솔천의 미륵보살이 하강하여 설하였다고 신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은 삼국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대에도 56억만년이 선정의 일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믿고 미륵부처님이 하강하기를 고대하며 신앙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어려움으로 중도에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때마다 나는 이런 얘기를 들려주곤 한다. "미륵불은 미래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깊어 마음을 열 수 있다면 미륵불은 지금 바로 우리마음 속에 있습니다"라고. 불교에서의 시공간의 의미는 방편일 뿐이다. 이 이치를 안다면 미륵불도 용화세계도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 법어집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문(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일타큰스님. 일타큰스님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 Ⅱ.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 Ⅲ. 베풀며 살자 / Ⅳ. 밝은 삶을 여는 계율 / Ⅴ.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Ⅵ. 화두 드는 법 / Ⅶ. 마하반야바라밀

※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고된 삶의 감로수 같은 일타큰스님의 책모음

·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 모음집 B6 / 3,500원
· 祈禱(기도) 일타스님과 도반 · 선배 · 제자 · 신도들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스님 주변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5,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 辯(변)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육성법문 테이프 / 5개 1세트 /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582-6612 팩스 : (02) 586-9078

생명의 근원… 걸림없는 法 상징



◇중생의 목마름을 해소해줄 감로수가 담긴 정병을 든 석굴암의 십일면관세음보살상.

월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④

물

아금청정수(我今淸淨水)
봉헌삼보전(奉獻三寶前)
변위감로다(變爲甘露茶)
원수애납수(願垂哀納受)

제가 지금 맑은 청정수를
감로의 차로 변하게 하여
삼보 전에 받들어 올리오니
원컨대 어여삐 거두어 주소서.

세상만물이 아직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의 대웅전. 작은 종의 마지막 울림을 받아 큰 법당의 분수승인 노전(爐殿) 스님은 목탁이나 경쇠(磬釘)를 한차례 쳐서 대중에게 예불의 시작을 알린다. 스님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노전 스님은 모든 대중을 대표하여 새벽예불문의 첫 구절인 다게(茶偈)를 외운다.

새벽예불에 앞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초를 밝히고 분향한 다음 맑디 맑은 청정수를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이다. 곧 6종의 공양물인 향 등 꽃 차(茶) 과일 선열미(禪悅味, 보통 쌀로 대신함) 가운데 하나인 차 대신에 물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왜 차를 대신한 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일까.

우주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지(地) 수(水) 화(火) 풍(風) 4대(大) 가운데 하나인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모든 생명을 낳고 길러주는 그 물로 정성껏 달여 바치는 공양물이 차인 것이다. 따라서 청정수 공양에는 모든 진리의 근원인 법신(法身)께 생명의 물을 바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물의 덕성이 이처럼 뛰어나기에 물은 道와 法의 성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물로 인식되어져 왔다. 〈도덕경〉에서는 물의 덕을 이렇게 표현했다.

"가장 훌륭한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 물은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있다. 그러므로 道에 가깝다. 거처함은 땅과 같이 하고 마음은 깊은 못과 같이 하는 것이 善이다."

수행자나 불자가 물의 덕성을 살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물처럼 걸림없이 유유자적(悠悠自適)한 일생을 향유할 수 있으리라.

■ 감로(甘露)

생명력의 상징으로서의 물은 흔히 '단 이슬(甘露)'로 비유된다.

경전에서 감로는 깨달음을 증험하는 법수로 표현된다. "모든 사물의 실상을 깨달으면 모든 자재력을 낱낱이 실현하여 뛰어난 해탈에 이르고 시방의 모든 보처(補處)로부터 성불의 약속을 받을 수 있으며, 감로의 법수(法水)가 이마에 부어질 것입니다. 감로의 법수가 이마에 부어지면 법신은 허공에 충만하고 시방세계에 안주할 것입니다."〈화엄경〉

법수로서의 감로는 생사로부터 해탈하는 '불사(不死)' 혹은 영생(永生)이라고도 하는데 곧 열반을 뜻한다.

■ 차(茶)

차는 신성한 물(聖水)을 의미한다. 그래서 불·보살이나 신성한 사람(神人, 仙人)에의 공양물로 쓰인다. 신라의 "정신 효명 두 태자는 오대산에 들어가 골짜기의 물을 길어다 차를 달여 5만 진신(眞神)에게 공양했다"(삼국유사)는 기록이 있다. 중국 후한 이후 남부지방에서 시작되어 전세계에 보급되었다. 우리나라 차의 유입은 가락국의 허황옥에게서 유래한다는 인도 전래설이 있다.

선사들의 선시(禪詩)나 계송에서 차는 계달음의 본질을 암시하는 초월적 경지를 상징한다. 또 언어적 표현을 초월한 경지와 그 이후의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진실한 삶의 방법을 차와 함께 이야기한다.

■ 계욕과 관욕

부처님오신날 불자들은 아기 부처님의 몸에 청정수를 부우며, 자신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태어날 것을 발원한다. 이는 계욕(戒浴)과 관욕(灌浴)의 전통에서 비롯됐다.

〈삼국유사〉에서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산욕수(產浴水)에 몸을 적셔 성불한다. 이들이 산욕수에 몸을 적시는 것은 계율이라는 정화의식의 행위이다. 즉 몸을 씻음으로써 세속의 욕망과 더러움에서 벗어나 극락에 왕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망자의 영혼을 극락으로 천도받게 하기 위해 관욕이라는 목욕 의례를 거치게 한다. 이승의 때를 씻은 영혼만이 천도의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병(淨甁)

정병(淨甁) 또는 수병(水甁)은 물 가운데서도 가장 깨끗한 청정수를 담는 물병이다. 정병에 넣은 정수는 중생들의 고통과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감로수(甘露水)와도 서로 통하여, 감로병 또는 보병(寶甁)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스님들의 물수풀이었으나 부처님 전에 정수를 바치는 공양구로 사용되어 그 용도의 폭이 넓어졌다. 불화에서는 관세음보살 이외에 미륵보살이나 제석천, 범천 등도 들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청동 정병과 청자 정병이 상당수 제작되었다. 국보 제92호



◇국보 92호 정병.

■ 샘

청정함과 생명력, 정화력, 고요함 등의 성질을 두루 갖춘 물은 흔히 샘물 또는 약수물로 대표된다. 정화수(井華水)의 한자를 우물 정(井)자로 쓰는 것도 이를 의미한다. 밥을 에서 정화(淨化)를 연상할 뿐만 아니라 의미상으로도 이를 상징한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 새,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용비어천가〉

샘은 홍수에도 끊임없이 물을 뿜어낸다. 그래서 유구하게 흐르는 물은 마침내 크고 넓은 바다에 이른다. 여기서 샘은 인류문명의 근원과 겨레의 정신을 상징한다.

■ 정심(井心)

금강수보살이 대일여래에게 유가행자(瑜伽行者)의 상상(心相)에 대해 물었다. 이에 60心으로 답했는데, 그 25번이 정심(井心)이다. 사람 마음의 참과 불선을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우물을 보기만 해서는 그 깊고 얕음을 헤아릴 수 없음에 비유한 것이다. 이때 우물은 사유의 깊음을 상징한다.

■ 강

깊은 산사의 약수물에서 흘러나온 시냇물은 드디어 강물을 이루며 바다로의 대장정을 떠난다. 이 강의 상징적 의미가 가장 잘 녹아있는 것이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다. '월인천강'이란 부처님이 백억 세계에 화신(化身)하여 중생에게 교화를 베푸는 것이 마치 달이 즈믄(千) 강에 비친 것과 같다는 뜻이다. 달은 하나이나 강에 비친 모습은 무수하다는 것은 부처와 중생에게 해당되는 비유이다. 중생은 각자 자기의 인연과 조건을 벗어날 수 없지만 완전한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거울처럼 부처의 상징인 달을 받아들인다.

■ 황하(黃河)

강물이 이런 신성함을 지녀서인지 인도에서는 갠지스강을 항하(恒河)라고 부르며, 성지로 여기고 있다. 불경에서는 '무수히 많음'을 '항하의 모래(恒河沙)'에 비유하고, 항하를 복덕갈하(福德葛河)라고 한다. 인도인들은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모든 죄업이 소멸된다고 믿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고, 이 강가 녹야원에서 최초의 설법을 영었다.

인도에서는 '은하수'를 이 항하의 하상(河床)이라 부른다. 〈정법염처경〉에 의하면 "제석과 수라(修羅)가 싸울 때, 제석이 탄 말이 토해 낸 흰 기운이 하늘로 흘러들어 은하수가 되었다"고 한다.

■ 구름

여행에 지친 강물이 체중을 줄여 하늘로 승천하면 구름이 되고, 다시 눈·비가 되어 내리며 윤회아닌 윤회를 거듭한다. 끝없이 유행하는 운수(雲水)는 곧 수행과 수행의 여정을 상징한다. 그래서 수행승을 운수객(雲水客)이나 운수납자(雲水衲子)라 부른다. 경한선사의 시에서는 구름이 형체가 없고 빛깔이 희며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모습에서 무심무아(無心無我)의 경지로 승화되어 나타난다. 구속됨이 없는 구름은 인간의 사심(邪心)과 대비되는 초월적 원리로서의 무상함과 무아심을 표상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 비(雨)

떠도는 구름이 쉴 곳을 찾아 지상으로 내려오면 비는 깨달음의 법수(法水)가 된다.

"깨달음은 산에 내린 비가 계곡에 모여 개울이 되고 강에 합류해 바다로 가는 것과 같다. 거룩한 가르침의 비는 차한 곳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린다. 이 비를 맞는 자는 그것을 작은 우리로 모아 조직과 생활공동체로 모아들이고 마침내 자신이 깨달음의 대양에 들어 있음을 발견한다."〈팔리 증지부〉

김재경 기자



◇불일사상의 나툼인듯 4계절 변환없이 승보종찰 승광사를 끼고 흐르는 불일폭포(사진 · 김대벽).

다툼없고 낮은 곳 위치 만물 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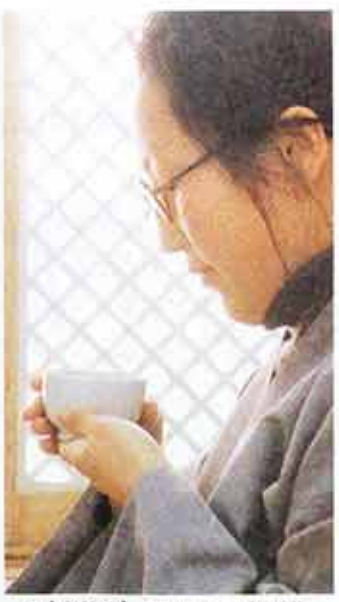
관욕 세속욕망 씻어 몸과 마음 새롭게 정병 청정수 담는 물병…자비심 상징



◇매년 부처님오신날이면 불자들은 아기부처님의 몸에 청정수를 부우며 자신의 몸과 마음이 정화되길 기원하는 관욕의식을 갖는다.



◇ '물확'은 물을 담아두는 큰 통으로 수조 또는 석조라고도 한다. 사진은 해남 일지암 경내에 있는 물확.



◇ '다선일미'. 불가에서는 차마시는 행위를 우주생명과의 교감이며 곧 세계로의 몰입과 같게 여기고 있다.

자연을 연출하는 —— 우리옷

연/지/곤/지

개량한복을 50% 할인가격(₩80,000)으로 판매합니다.
사업하실 분에게는 위 가격에서 충분한 마진을 드립니다.

★ 단체복(승복,원아복, 사원복, 도복)을
최저가로 주문받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
본점 02)3461-8552-3 각전점 507-7852
평촌점 (0343)88-7852 분당점 (0342)702-7373



IMF를 이기는 불자님의 지혜
- 우리옷을 입읍시다.



(능인선원 건너편)

• 연지곤지는 최고의 품질을 최저가로 보급합니다. •

감정 변화무쌍 … 참선지도로 조절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21〉

청년의 심리적 특징과 불교적 지도

흔히 청년기를 인생의 '제2의 탄생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청년기는 그 이전의 유아기, 아동기 및 그 이후의 성인기, 노인기와 확실히 구분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심리적 특징도 그 이전 및 이후와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청년기에는 급속한 신체 및 성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기 신체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지며 뚱뚱한 것, 왜소한 것, 얼굴 모습 등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은 성에 따르는 특징을 뚜렷하게 하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인생 전체에 불행을 초래하는 씨앗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강한 성적인 욕구를 지닌 청년들에게 무엇보다도 사음(邪淫)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불자인 청년들에게는 '혼전순결서약' 의식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남·녀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기 위한 견전한 동아리 모임을 사찰별로 조직하여 부처님 앞에서 스님들의 참여 하에 남녀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림 · 이준석

EQ 교육의 중요성 최근들어 부각되지만 이미 부처님께선 '정서통제' 말씀하셨다

둘째, 청년들은 발달의 불연속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감정의 불안 동요가 심하게 나타나며 양향성(兩向性) 감정을 지닌다.

아동기라는 따뜻한 기류와 성인기라고 하는 차디찬 기류가 맞부딪치는 불연속선상에 놓여진 시기이기 때문에 감정의 불안 동요가 나타난다. 마치 불연속선 지대의 날씨가 변화무쌍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 웃고, 잘 울며, 희망에 부풀어 있는가 하면 금새 낙심과 실의에 사로 잡힌다. 또한 감정이 격하기 쉬우며 열중하고, 반항적이며, 비관적이다. 성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져 강한 성적 충동을 느끼나 그 해결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하여 심한 욕구 좌절과 갈등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기를 주변인의 시기라고도 한다. 아동기에 속할 수도 없고 성인기에 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변을 빙빙 도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아무 책임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탐색하고 사고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변인들은 사회적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수가 많다. 일탈은 낭만적 일탈도 있으나 반사회적 행위자도 있고 심지어 범죄적 일탈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최근에 정서지수(Emotional Quotient)라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능지수(IQ)는 인간의 지적능력에 관련되어 있지만 정서지수(감성지수라고도 함, EQ)는 인간의 정서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청년들의 도덕성 함양에 직결된다.

정서지수(EQ)의 개념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감정의 통제 및 조정 능력을 말한다. 희노애락을 여과함이 없이 그대로 나타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서지수(EQ)가 낮은 사람이다.

정서지수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그 하나는 자기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정서를 평가하는 영역이며 두 번째는 자기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고 세 번째는 정서를 활용하는 영역이다.

불교는 마음을 닦는 종교이다. 마음을 조복(調伏)시키고 조어(調御)하며 최복(催伏)하여서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종교이다. 이때 '닦는다', '조복', '조어', '최', '쓴다'의 개념 속에는 감정의 통제 및 조정, 활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마음 닦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정서지수(EQ)가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지수라고 하는 개념은 서양사람에 의하여 최근에 제창되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득한 옛날에 이미 '정서통제'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러면 정서지수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정서지수 향상의 가장 좋은 방법은 참선(參禪)이다. 왜냐하면 참선이야말로 마음을 닦는 즉 마음을 조복시키는 첩경(捷徑)이기 때문이다. 감정을 제어하고 통제하며 조절하고 마음대로 활용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 참선이다.

청년기는 감정의 불안동요가 심한 시기이므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칫하면 반사회적, 범죄적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서지수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하며 이는 참선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기는 자아발견의 시기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토대,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자기의 존재, 위치,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이리하여 직업의 세계에서 자아발견을 위하여 진로문제에 고민하며, 친구, 이성, 가족과 같은 인간사회라는 세계에서 자기의 존재를 의심하며, 국가·사회와의 관련에서 자아발견을 위하여 방황하며 심지어 역사 속에서의 자아의 위치, 공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인생이란" "죽음이란" "행복이란" 등 청년시절엔 철학적 사고 왕성 이 '발심'을 부처님의 길로 이끌자

이러한 자아발견의 과정에서 자칫하면 갈등과 좌절의 감정을 느끼게 되며 이 감정이 심하면 자기부정이 나타나고, 자아 정체감을 상실하게 된다. 이때에는 명시적이고 일관된 길잡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길을 올바르고 환하게 비쳐 주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 선세(先世)의 업(業)에 따르는 진로관,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의 인간관, 불국토 건설의 국가관, 진여(眞如)의 역사관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도록 청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청년기는 철학적 사고를 깊게 하는 시기이다.

아마도 청년기에 인생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행복이란?", "나는 왜 태어났나?", "극락세계와 지옥은 과연 있는가?", "무한이란?" 등 철학적 사고는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심지어 데카르트는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심 끝에 '내가 생각하는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내세웠다.

필자도 청년시절 인생문제에 대하여 깊은 회의에 빠진 일이 있었다. 길을 가다 말고 눈을 감고 내 앞에서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이 실제로 있느냐 하고 생각하면서 눈을 떠보기도 하였고, 한줌의 흙을 움켜쥐고 이것이 네 모습이다 라고 웃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철학적 사고가 바로 발심이다.

청년기는 누구나 발심을 한다. 이 발심을 부처님의 길로 올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이 성인 불자들의 포교이다.

〈前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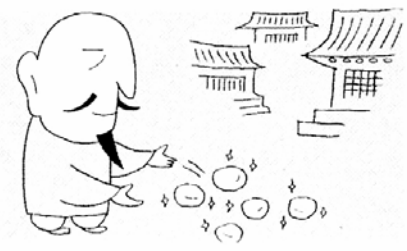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투기란 말은 땅투기 · 정치투기 · 경제투기 · 입시투기 심지어 인생투기 · 투기거래 · 투기심리 · 투기매매 등등으로 사용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나쁜 뜻으로 쓰인다. 말하자면 확신도 없이 요행만 바라고 큰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가리킨다. 경제용어로서의 투기는 시세가 크게 변하는 것을 틈타 요행히 이익을 얻으려는 매매행위다.

그러나 투기란 원래 좋은 의미를 지녔다. 불교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기원정사도 일종의 투기에 의해 세워진 절이다. 이곳에는 한창 전성기에 12채의 큰 법당, 72채의 강당, 3천채의 스님방, 5백채의 누각이 있었다. 기원정사 대지는 당초 민간인 소유였던 것을 수달장자가 사서 부처님께 기증했다. 이때 수달장자는 전 대지에 황금을 깔아주는 만큼의 돈을 지불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부처님이 설법한 경전으로 〈금강경〉을 먼저 들 수 있다. 기증자의 뜻이 좋았듯 그곳에서 편 부처님의 법지도 넓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퍼져나가고 있다.

이처럼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투기(投機)'라는 용어는 불교에서 유래된 매우 훌륭한 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치의 차이도 없이 훌연히 깨달아 얻는 것'을 투기라고 한다. 또는 '조사(祖師)의 기(機)와 학인(學人)의 기가 일치되는 상태'를 투기라고 한다. 여기서 기(機)란 말은 근기(根機)의 준말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배운 진리를 깨달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기능성을 말한다.

불교에서 '투기했다'고 할 때면 '기가 투합(投合)했다'라는 말의 변형이다. 특히 선종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서로 투합한 경지를 '인가받았다'라고 말한다.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은 수도자의 최고 영예다.

참선공부란 언어도단(言語道斷)이고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이다. 투기란 또한 그런 것이다.

※참고 안길모홈 '이판사판 야단법석'

투기(投機)

조사와 학인의 근기가 일치 요행을 바라는 행위로 와전

감 · 로 · 심 · 장 · 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범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단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현대불교 전국 지사,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강 •

한방암정보
02)
700-6366

승가 전통의 손맛…
손돌방 전통메주
〔음식조리용 장군죽염〕



▶ 재래콩 메주에 음식조리용 죽염으로 담근 죽염 된장 간장은 영양가득 약성이 풍부한 무공해식품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 **보리가족**
02)3141-1011/011-786-0817
· 손돌방 전통메주 소두1말(작) 5개 값 39,000원
· 음식조리용 죽염 특별포장 5Kg(1) 값 35,000원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선착순 20명 모집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대보생식
02)
427-9162~3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치료사례 비디오 테일 무료로 드립니다.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밀교 수행자
연락처 015-8487-3674
당뇨 · 간경화 · 비만관리
※ 3~7일간 치료 지도 ※
能仁 看病會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6-16
011-337-0353
02-809-1831

• 강좌 •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학 생 모 집
■ 모집과정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종무행정과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 지원자격 : 1) 전공과정-포교상담의 시명감을 가진자
2) 연구과정-법회상담의 지도지로 시명감을 가진자
■ 수업년한 : 1) 충북괴산에서 월 2회~4회 강의
2) 수업기간 : 2년 소형버스 통학가능
(교육청 인가 57호) **만대교학대학원**
☎ 0582)535-1987
☎ 02)931-6075~6

氣明 綠岑子 ↔ 禪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밝고 쉽게 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철저한 생활위주 방법과 방편,
심리상담, 성격교정, 삶에 의욕을 잃으신 분들 매사에 기가 없으시고 지치신분, 허약한 정신과 마음, 생활속에서의 선, 살아있는 선으로 길을 찾아 드립니다
02)897-7731 ●
016)340-4459 ●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 대 불 교 신 문
강 릉 지 사
0391) 43-5599

명리학 배우실분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진 로 선 택 · 작명 · 기타
기초부터 종강후 자신있는 간명에 이르도록 책임지도합니다.
■ 강의기간: 3월 3일부터 3개월간
매주 화요일,금요일(주2회)
오후 1:30~4:30(3시간씩)
■ 수강료 : 교재제 포함(월 10만원)
마포구 대흥동 801-57
T. (02)713-4852~3
한국명리연구원

건강과 수행의 등불
禪 氣 功
2년과정으로서 총장수료증과 협회의 「지도자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 접수기간: 1998년 3월 16일까지
■ 교 학 과: 02)260-3727
■ 지도교수: 설적운 스님(골굴사 주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세계 선무도협회 대금강문

• 수련원 •

전 워커힐 신라 피아니스트
PIANO 전문 LESSON
⊙ 찬불가
(찬불가곡 · 찬불가요 · 찬불동요)
⊙ Jazz Piano
⊙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자 3개월 완성(가요 · 팝송 · 가곡)
강남피아노 교습소
02)554-1512

동양철학 학인모집중
●현재 수업진행중 ●자격 및 년령 제한없음
●3개월 졸업 ●철학관 개관시 적극지원
● 명리, 작명, 풍수 중심으로 교육
■ 강사 : 철학박사 학장 직접강의
◐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가능
◐ 개인 운세도 직접 감정중
◐ 장소 :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혜능불교대학 內 ☎ 02)482-4550, 488-1569

• 공고 •

공고 (해동제 98-6호)
성명 : 김 재 풍(정화)
백 종 현 (지성)
상기자는종헌종법 제 21장 131조 1항에 의거 제적을 공고함
(제적일 1998년 2월 28일자)
1998. 3. 3.
대한불교 해 동 종 총무원장
사단법인 해동자비원 이사장

탈 종 공 고
한국불교 태고종 귀하
● 사찰명 : 윤 창 암
● 주 소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산41번지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5. 3. 10.

• 구인구직 •

구인단체명 : **혜명보육원**
■ 설 립 일 : 1946. 1. 26.
■ 직원총수 : 14명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모집부문	인원	자 격
사회복지사(총무)	남1명	사회복지사 1,2,3급중 자격증소지자 운전면허 1,2종 소지자(무교 및 불교)

■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224-1
■ 전화번호 : 02)802-0358 ,802-5038

대리점 모집 및 대출상담
◆ 무자본
◆ 대상 : 만 20세이상
(주부, 정년퇴임, 명예퇴직자 대환영)
◆ 특전 : 교육비 40만원, 초기 1년 활동비 지원, 육아수당
※ 성과급 (30~90만원보장)
◆ 대출상담 환영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삼성생명보험(주)
전화 02)959-8966~7
호출: 015)908-6427 PCS:019)321-5880

• 법회안내 •

대 모 집
■대 상 : 만 25세 이상 남녀
■기 간 : 1998. 2. 27~ 3. 5
■대 우 :
15일 교육후 30만원 교육비 지급
6개월까지 30~50만원 보장
일속에서 참자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 명퇴자 적극환영 ※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
051)818-7601~2

• 불교용품 •

● **무료담선법회**
:월~금 오전10~12시까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 금강경
● **심신건강상담소**
-개인상담: 월~금 오후 1~6시
-직장인 · 대학생: 월 · 수 · 금 오후 7시~9시
-방문상담: 토 · 일요일
강남구 역삼동 제일생명 4거리 부근
02)539-1478
015)8312-5478

◆ 보 리 수 ◆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수련원 •

도원불교수련원
(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0374-32-7464 F:0374-33-7464
※ 명퇴자 대환영 ※

• 불교미술 •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응각 목천함
● 음성(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 수미단 단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 회판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趙貴玉 함장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638 호 출 012-210-1401

• 기타 •

행운결혼상담소
모범허가업소로 **초혼 · 재혼**
만남에서 결혼까지 성혼을
책임지고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02)960-4564~5
02)967-5133
※ 1시까지 Momory(음성녹음)

불자님을 위한 전문 광고회사
광고다운 광고!
"광고천문 개와 만나십시오"
- 기업홍보 브로셔 제품 카다로그, 리플렛 상품전단
- 이 미 지 메가폴 실물 크고작음 특수인쇄
- 신문광고 잡지광고, 포스터, 카렌다 POP
WILL
광고는 해야 하는데 아무곳에나 맡길 수도 없고 아시는 광고회사가 없으십니까 ?
생고생해서 시작한 사업을 광고(카다로그 · 광고전단) 잘못으로 날려를 보시 겠습니까 ?
광 좋 수십시오 ! 눈이 아닌 한마음으로
고 불자님의 광고을 천단해 드리겠습니다.
컨 체을 대접하고 경쟁사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문 생생한 광고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가 참 큰 광고회사는 아니지만 근본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광고회사 **애드 · 윌** 입니다.
광고문의 :(02) 512-8868 · 8869 元春 합장

• 학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APT.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사찰안내 •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전국무료전화직통 :
080)723-4082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 부 지 : 60평
◇ 건 평 : 36평
- 임법당 13평
- 방 4칸, 부엌 · 목욕탕
◇ 가 격 : 1억 3천만원 (절충가능)
02)936-7032
011)419-7032

◇ 위 치 : 경남 합천
◇ 대 지 : 300평
◇ 법 당 : 23평
◇ 요사 2동, 방4칸, 지하수, 차고, 시장 주차장 5분거리
◇ 가 격 : 8천만원
0599)34-0076
011)847-0076

사찰 운영하실 분
◆위 치 : 경북 예천
◆부 지 : 696평 등기평수
◆법 당 : 18평
◆요 사 : 32평
◆가 액 : 8,500만원
◆시 설 : 시설일체 무상기증
◆특 징 : 불교 중흥을 위하여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투자비용 원금만 받고 양도합니다. 가액 분할도 가능하오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양도의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일반인,무속인,보살님 대리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불교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동국불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 : 012)1648-6334
(24시간 호출중)
상담전화 : 02)512-4447
※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 3동
◇ 대지 : 시유지 1,200평
- 법당 13평, 방4칸, 입실부엌, 목욕탕, 거실, 창고2, 화장실1, 대형 주차장 · 우물샘 있음.
◇ 가격 : 8천만원
032)422-5739

◆ 도심포교당 허실 분
◇ 위치 : 서울 송파구 잠실 (석촌호수 부근 대로변)
◇ 평수 : 4층건물에 4층, 법당40평 (옥상 사용가)
◇ 가격 : 보증금 2천만, 월세 60만원 (시설비 별도)
◆ 사정상 급매합니다.
011)833-1712, 011)301-1711
0525)33-0705

◆ 개인주택 · 포교원 명당자리
◇ 위치 : 종로구 평창동 111번지 157평
◇ 위치 : 종로구 평창동 111-16 220평
◇ 가격 : 350만원
◆ 북악파크호텔 정문에서 150m (도보로 1~2분 소요)
02)379-8404
02)379-8425

◇ 위치 : 마산시
◇ 평수 : - 대지 200평
- 전답 430평 - 합 630평
◇ 법당 : 17평(단층스레이트 건물)
◇ 요사 : 20평(방 3칸)
◇ 삼성각 : 5평(완전목조 단층)
◇ 지하수 200M(전기시설 : 농사용 전기사용)
◆ 사찰마당까지 주차함.
◇ 양도금액 : 2억 2천(가격 절충가능)
011)563-0108(주지 직접)
0551)21-5737

물좋고 산세좋은 사찰부지
(정 남 향)
◇ 위치 : 경북 김천
◇ 평수 : 전 6,000평(평당가 2만)
전 2,000평(평당가 6만)
(현재 과수원)
◇ 두충나무, 과일나무 등 심어져 있음.
0547)33-4609

◇ 위 치 : 서울 강서구 화곡 8동
◇ 대 지 : 93평
◇ 건 물 : 건물 50평 (구옥)
◇ 가 격 : 평당 240만원
◇ 급매 (교환가능, 분할가능)
0454)43-7681

◇ 위 치 : 경북 대구 단서구 성당시장 사거리 최고요지
◇ 건 물 : 3층집 3층 60평
- 법당, 큰방2, 요사채, 주방, 화장실,
- 종무소, 옥상사용
◇ 가 격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입주후 당장 법회할 수 있음
053)656-6609
053)654-7163

◆ **포교당** (위 치 : 능 곡)
◇ 건 평 : 50평(4층 건물중 2층)
◇ 방 2개, 사무실
◇ 보증금 : 3천만원
◇ 월 세 : 50만원(관리비 없음)
◇ 시설비 : 8백만원
※ 특징 1) 법당 원목 사용하여 여법하게 잘 조성되어 있음
2) 대로변과 아파트 밀집역이므로 포교 최적지임
사찰전문용역 **금강기획**
전 화: 02)736-3578~9
02)359-9492
핸드폰: 011)789-2255

◇ 위 치 : 서울시내 북한산 국립공원 안
◇ 국유지 : 약 3 천평
◇ 전통 목조 법당등 건물 6동
◇ 계곡, 기암괴석, 울창한 숲속
◇ 서울 강남까지 조망가능
◇ 가 격 : 협 의
02)512-3092

◇ 위 치 : 구로구 6차선 대로변
◇ 건 물 : 4층 약30평
◇ 법 당 : 방2, 주방, 욕실겸 화장실
◇ 가 격 : 보증금 1,500만(시설비 포함) 월 35만원
◆ 특 징 : 입주즉시 포교활동 가능
02)867-3803
015)8457-3803

기도도량, 포교도량, 휴양지
◇ 위 치 : 경북 예천군 용궁면내
◇ 평 수 : 법당과 요사채 50평 (기와채 증축)
◇ 가 격 : 전세 4천만(월세가능)
◇ 시 설 : 현대식 완비
◆ 산택마을 복판에 자리잡고 있음
011)810-2073

◆ 명당 사찰 부지
◇ 영월군 주천면 관운리 (대 · 전 6,000평, 준농림)
◇ 동남향으로 땅가운데로 맑은 물 흐르고 주변 모두 국유림으로 완전 무공해 청정지역
◇ 사찰, 농 · 목장, 연수원, 동호인주택 외, 다목적 용도 가능
◆ 주변시세의 1/3價, 평당 1만 5천원
0373)374-0029
판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 대 지 : 53평
◇ 건 평 : 39평(2층 건물)
◇ 가 격 : 상담후 결정
02)885-4165

사찰 및 불교대학 · 고아원 · 양로원 · 최적지
◇ 위치 : 광명시 고속도로 옆
◇ 부지 : 6,100평(지하1층, 지하 2층)
◇ 내용 : 이 부지는 경인 2고속도로와 안산방향 6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요지의 명당터임
02)502-0338
02)507-0408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마음공부, 노예 벗어나 자유인 되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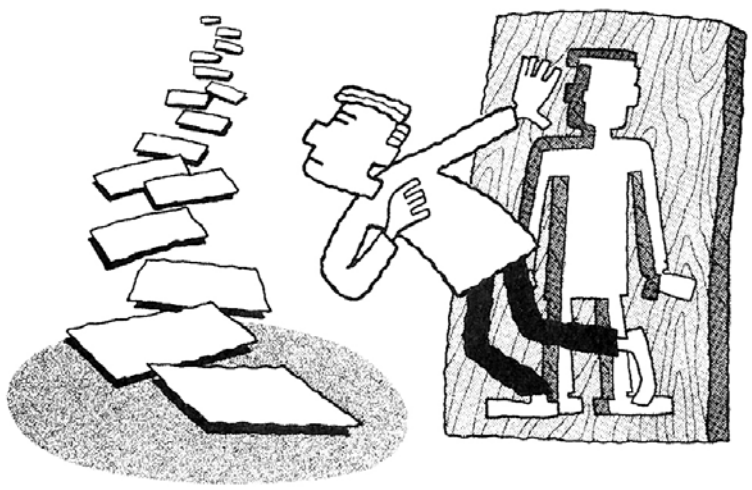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운명 · 미신 · 부적에 의지하는 건 자기 고귀한 생명을 굶어서 부스럼 만들고 고귀한 삶 허비"

"진리를 떠나서 무엇을 따로 믿겠습니까"
"만법은 자기로부터…밖으로 찾지 말길"

기복으로 믿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삶 자체에 진리가 있고 과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으로 형상을 세워 놓고 그걸 믿으려 합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해도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것, 말하자면 참자기를 믿는 게 진짜 불자다운 태도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이상스럽다고 하고 조는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따로 따로 해 놓고 거기에 다 빌고 기대는 게 옳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쉬우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가령 몸이 아픈데 너 자신을 믿어라 하면 이게 영 실감이 가지 않고 그 대신에 약사여래를 찾고 거기에 매달리라고 하면 한결 쉬워 보인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용왕님 찾고 산신을 찾고…, 어디 바위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물 떠놓고 빕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인되는데 말입니다. 그거 자칫하면 정신병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비유하자면 빈 집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 빈 집이 되니까 영계에서 들락날락해도 자신은 어찌해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정신병자가 되기밖에 더하겠습니까?

최초에 한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나로부터 벌어졌고 나로부터 생겼으니 믿기로 한다면 뭘 믿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너 자신을 믿고 진리를 믿으라고 하셨지 다른 걸 믿으라고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참자기를 믿고 둘도 참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의심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체만법이 자기로부터 들고 난다는 이 진리를 외면하면 어느 때에 참자기의 맛을 보겠습니까?

일찍이 말씀해 놓으시기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만물 어느 것을 둘러 보아도 열이면 열이 보이는대로 다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찰나도 쉬지 않고 변하면서, 나투며 화해서 돌아가고 있으니 어느 때를 꼭 집어서 이거다! 할 게 없더라, 그러니 무엇을 고정되게 말할 것이냐 한 뜻이지요. 참으로 너무 빨리 찰나를 다투며 돌아가니까 '공'이라 했던 겁니다. 주인공도 그래서 고정된 게 아니라 이름인 것입니다. 찰나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합쳐서 돌아가고 무궁무진으로 진화하며 가는데 이름이 아니고라면 달리 고정된 무엇을 말할 수가 없지요.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 하는 것도 그렇게 돌아가는 근본을 알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나, 너는 너로 고정되게 있다면 어찌 둘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볼 것 없이 네 근본을 보아라, 밖으로 끄달릴 것 없이 너의 참자기 근본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입니다. 무조건적인 믿음.

내가 근본을 의심한다고 해서 진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지요. 법이 그러하고 진리가 그러하니 믿는다면 뭘 믿고 어떻게 믿는게 진짜냐 하면 자기 근본을 믿어야 하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요.

만약에 밖으로 대상을 찾고 그걸 믿는다면 꼼짝없이 노예 노릇을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언제 그 많은 바깥세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일찍이 문자에도 얽매이지 말고 물질에도 치우치지 말고 모든 것을 네 마음 안으로 돌리라고 하신 것도 그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랬음에도 그 뜻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대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자기가 제 몸 하나 제대로 끌고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인도한다면 그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절마다 부처는 다 한 부처지만 그 절에 사람이 없으면 부처도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설법을 하더라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면 설법이 아니지요.

자기가 목 마르면 그냥 물 떠먹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누구라도 다 말을 할 줄 아는데 지어서 할 건 뭐고 구상해서 할 건 뭡니까? 목이 마른데 무엇을 먹을까, 어떤 그릇으로 떠 먹을까 그런 것 따지지 않듯이 그냥 한마디라도 법답게 하는 것이지요.

말 한마디가 그대로 법인데 한데에 떨어뜨릴 수 있느냐? 백마디 천마디 죽은 소리보다는 제소리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니 어딜 믿고 무엇에 의지하겠습니까? 자기를 믿고 제 근원으로, 마음 안으로 돌릴때 그야말로 한마디 한 사이 없이도 되고 길없는 길을 발없는 발로 내 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불교는 죽은 불교가 아니라 생동력있게 살아있는 불교입니다. 찰나찰나 나투며 화해서 돌아가는 일체 만법이 곧 불교이니 그대로 살아있는 법이고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자동적인 평등공법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일체가 공생하고 공용하고 공식하며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저 태양의 근본이나 천지의 근본이 내 근본과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세워 놓아도 저 미생물이나 초목이나 동물이 다 나 아닌게 없고 그래서 굶어 죽을 일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그 도리를 우습게 알고 그런다면 이건 꼼짝없이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손은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뭘 집으려해도 먼데 있으면 집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열린다면 만법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란 말이지요. 그래서 부처님 도리를 공부하는 것은 자유인이 되자는 공부입니다.

노예공부가 아니라 대자유인 공부입니다.

하물며 자신을 얽어매는 그런 일에 매달리겠습니까?

흔히들 무슨 백일기도를 붙인다, 인등을 몇날며칠 밝힌다 하는데 그래야만 잘 될 일이라면 백일 지나고는 어찌 합니까? 백일만 살고 말건가요?

이 지구가, 아니 우주가 백일만 돌아가고 그만 안 돌아가나요?

우리는 지금 단 일초도 머무르지 않고 항상 불을 밝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인등이 따로 있고 기도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굶어서 부스럼을 만들 일이 뭡니까? 굶어서 부스럼 만들고 없는 미신을 만들게 뭡니까?

마음을 그렇게 쓰게끔 한다면 미신이 꼬여들고 팔자운명이 어떻다는 소리를 하게 되지요. 저절로 그렇게 되질 않겠습니까?

그런거 실은 불을 사이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재빨리 돌아가는데 어디 먼지라도 붙을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와같이 티끌 하나 붙을 사이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갑니다. 어찌나 빨리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미생물에서부터 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지은 업이라도 이 도리를 알면 찰나에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100%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이 세상이 대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견성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왕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갈 수는 없죠. 더구나 수 억겁을 거쳐 이렇게까지 진화했으니까요.

그런데 예까지 진화하도록 나를 형성시킨 그 근본, 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바깥 형상만 찾으러 다니고 고귀하다는 이를 찾으러 다니고 큰 돈으로 공덕을 표시해야만 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부적이다, 무슨 운명감정이다 해서 쥐야 다녀야 한대서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안되고 자기의 고귀한 삶을 그렇게 값싸게 허비해도 안 될 일입니다.

참으로 뼈에 사무치는 눈물, 그냥 눈물 한방울이 피 한방울이었는데 어떻게 인간으로까지 태어나서 자기의 생명과 삶을 그런 것하고 바꿔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도매금으로 말이죠.

그래서 화두를 들더라도 너 자신 태어난 것, 자기를 화두로 삼으라고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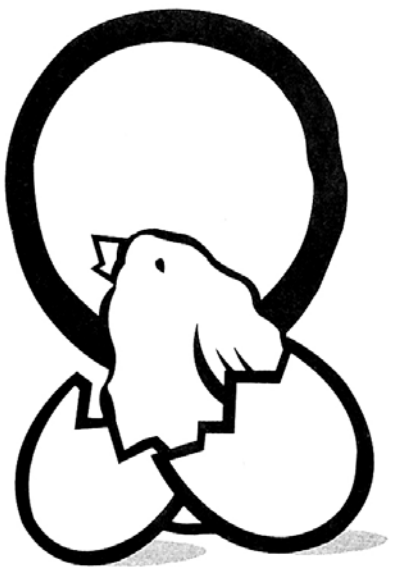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서 모습을 바꾸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61)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 같은 삶을 즐거워 한다면…



"살아 생전에 아귀 축생의 마음을 자주 냈으면 죽어서도 아귀 축생계를 면치 못할 것이고, 살아 생전에 천상에 오래 있었던 이는 죽어서도 극락에 갈 것이다. 그것은 누가 보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짓는대로 엄연한 법칙에 따라 그리되는 것뿐이다.

상천 · 중천 · 하천 세계가 체로 거르듯이 돌아가고 있으니 천당 지옥이 따로 없다. 인간이 하천으로 떨어져 두더지 집에 들어간 게 지옥이다. 그러므로 살아서 천상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천상에 태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인간까지 올라온 것도 천 년의 공은 닦아서 온 것이다. 사람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된 후에도 살던 습을 못놓고, 항상 자기 자신 자기 것만 아니까 고가 끊일 새가 없다.

또 그렇게 살다가 진화해서 승진하기는 커녕 끝간 데를 모를만큼 세세생생에 쳇바퀴 돌아가듯 빙빙 돌거나 아니면 좌천하여 짐승의 허물을 뒤집어 쓰게 되면 먹고 먹히는 처절한 삶을 살게 되므로 한생각 바르게 해 볼 겨를도 없게 되어 수억겁을 가도 그 허물을 벗기가 어려워진다."

맹자(孟子)의 모친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세 번 집을 옮겼다. 처음 저자거리 인근으로 옮겨 살았는데 어린 맹자가 어느새 물건을 사고 파는 흉내놀이에 열중하는 것을 보고 한적한 산 밑으로 이사를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이 죽어 장사지내는 모습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것이다.

맹모는 이에 놀라서 이번엔 서당 근처로 집을 옮겼다. 그로부터 맹자는 매일 글 읽는 흉내를 내더라는 것이다.

환경은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은 삶의 내용을 좌우한다. 가령 갇힌 사람은 오로지 풀려날 생각에 사로 잡혀 있을 것이고 굶주린 사람은 한 끼니의 식사를 갈구할 것이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은 생각이 지나쳐 상사병에 이르기도 한다.

현대인의 삶은 너무 복잡다단하다. 알아야 할 것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거기에 얽매여 살 것이다. 평생동안 그로부터 자유로운 시간,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갖기란 쉽지가 않다. 자나 깨나 그저 재화때문에, 생활때문에, 인연에 얽히고 명예 · 체면 따위의 허상에 얽매여서 세월을 보내게 된다. 마치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를 닮았다.

다람쥐는 아무리 달려도 쳇바퀴속에 있다. 그러나 다람쥐는 그걸 모르거나 혹은 재미를 느껴서인지 그 일을 계속 한다. 우리들이 평생토록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로 씨름하면서 사는 게 꼭 다람쥐를 닮은 것 같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삶의 내용도 바뀌지 않는다. 평생 재화를 쫓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모든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쏟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보람으로 알며 인생의 성공을 말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재화의 노예로서 산 것이지 자기의 삶을 산 것은 아니다.

삶의 내용을 좌우한 것은 재화였지 자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한번 먹은 생각은 자기가 바꾸고 지우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오랜 세월을 두고 쌓고 쌓은 생각이 채곡채곡 의식의 창고에 쟁여져 있다가 내 삶의 진로와 내용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 다음 순간의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듯이 쌓이고 쌓인 생각은 미래의, 내생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독사같은 마음을 냈으면 언젠가는 독사같은 삶의 순간이 내게 찾아 오게 되어 있다고 한다. 반면 보살의 마음으로 살면 내일의 삶이 보살같아 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환경에 얽매여서 주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 다닌다면 누구라도 다람쥐 쳇바퀴같은 삶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맹모삼천(孟母三遷)을 실천해야 한다. 부처님말씀을 많이 듣고 따라 배우는 것이다. 윤회를 믿건 안믿건 간에 적어도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즐겨서는 안된다.

마땅히 진화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협 찬 : 이 인 제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자기 진짜 주인은 전체 포괄한 '나'

☞ 17면에서 계속

고 바뀌서 어른이 되었는데 아기적의 나냐? 젊었을 때의 나냐? 늙었을 때의 나냐? 어느 때의 나를 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공했다고 한다는 그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사는데 걸리는데 실은 죽는다 산다가 없습니다. 본래 산 게 없으니 죽을 게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유언으로나 할 얘기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굼벵이가 한 순간에 매미가 될 때에 그 과정을 모릅니다. 자기가 굼벵이로 산 걸 모른단 말입니다. 굼벵이는 매미를 모르고요.

그러기 때문에 믿을 것은 자기의 진짜 주인공 밖에 없다, 자기 주인공을 믿되 의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목마를때 어떤 그릇으로 떠먹을까 따지지 않듯 자연스러워야 법다운 법"

앞서도 말했지만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마음이 움직이고 사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진짜 주인을 믿고 맡겨 놓아라,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풍차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바람만 불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듯이 돌아가는데 왜 내가 나서서 걱정을 하느냔 말이지요. 내 것이라 하고 내가 산다고 하고 야단들인데 자기 주인이 어엿해서 한생각 냈다 하면 우주법계가 전부 알게 되는데요. 자기 진짜 주인은 개별적인 '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나, 전체를 포괄한 나이기에 '나'라고 세울 것도 없는 나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을 이름 해서 부처라 해도 되고 대자유인이라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름에 또 걸리진 마세요. 그까짓 이름이야 어떻게 짓든지 환경따라서 부르면 그뿐입니다. 왜 어떤 부인을 보고 아무개 엄마라거나 고향 이름을 따서 무슨 댁이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지요.

물론 의정이 일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참지기라는데 누구냐?' 한다든가 '도무지 아리송한 이 문제는 참자기가 알지 난들 알 수 있나?' 하는 의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주춧돌을 튼튼히 해놓고 기둥을 세우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이라는 걸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의정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어서 하는 의정은 진짜가 아니구요.

아무튼 자기 근본을 아는게 불법공부이고 그게 진짜이지 용왕이다 칠성이다 산신이다, 이 이름 저 이름 지어놓고 비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자기의 주인공은 내가 병이 나면 약사가 되고 박사 의사가 되고 참나찰나에 화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팎을 다 경영하고 안팎으로 다 운행을 합니다.

이렇게 광대 무변하고 좋은 법이라서 부처님께서 장광설을 하셨는데 그 좋은 법을 좋게 쓰지 못하고 왜 미신적으로 아주 졸렬하게 쓰느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언제 그렇게 졸렬하게 가르치셨던가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바르게 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대로 가난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지혜를 끌어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삶을 좌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슬픈 생각만 하면 슬픈 일만 생길 것이고 옹졸하게 생각하면 삶이 옹졸해질 겁니다.

불법은 그런게 아닙니다. 발랄하고 생동감 있고 활달하고 지혜롭고…, 아무튼 풍부하게 사는 그런 법입니다.

번뇌 · 보리 둘아닌 까닭

문 우리들의 마음 작용을 관찰해 보면 잠시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합니다. 그걸 생멸심이라고 하는데 그 생멸심이 멸하면 고요하고 고요한 경계에 들어 참 낙을 맛본다고 했습니다.

생멸심과 적멸심, 번뇌심과 보리심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스님께 질문없는 질문을 드립니다.

답 하하하…,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 한 발 떼었다가 놓고 또 한 발 떼었다가 놓고 하는게 생멸입니다. 마음이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불이란 말도 없을테고 중생이란 말도 없을 겁니다.

방편삼아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노릇 하다가 남편노릇 하다가 아들노릇 하다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금방 이 노릇 했는데 금방 다른 노릇을 하니 말입니다.

그렇게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생겼다 없어졌다 해도 그냥 여여하게 돌아갈 뿐입니다. 그걸 잘 응용하면 선도 되고 악도 되고 중생도 되고 부처도 되고 그렇지요.

그렇듯이 둘이 아니게 여여하게 돌아가는데 번뇌니 보리니 하며 관습적인 딱지를 붙이지 마세요. 우리가 요 생각 조 생각 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광대무변하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요 마음 조 마음, 요 생각 조 생각이 나기 때문에 부처를 이룰 수도 있고 광대하게 창조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니 번뇌심이 번뇌심이 아니라 그냥 수행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재료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공부시키는 재료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짓날에 팥죽을 쑤는데 방울방울 끓어 오르니까 요것도 문수, 조것도 문수 하면서 주걱으로 두드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내 몸뚱이가 팥죽 솥이라면 방울 방울 일어나는 걸 번뇌라고 하겠는데 그게 다 한 솥에서 나온, 그러니까 화해서 나오는 업식이지요. 그러니 그걸 재료로 알아야지 거기에 속아서야 되겠습니까?

요것도 문수 조것도 문수 한 것은 다 자기 마음의 주장자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 자리에 되놓아라 하는 소리였지요.

그러니까 번뇌 망상이니 보리심이니 하는게 둘이 아니고 번뇌다, 도다 할 이름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걸을 때 발 걸음 떼는 걸 의식하지 않고 여여하게 걷듯이 한군데서 나온 것을 한군데로 되놓으면 생멸과 적멸이 둘이 아니요, 번뇌와 보리가 다르지 않지요.

깨달으면 세상구제도 됩니까

문 언젠가 '길을 묻는 이에게' 난을 통해서 '한 사람만 깨달아도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경전말씀에 대한 응답을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중생의 생각으로는 요즘 같은 때에 그 말씀을 다시 여쭙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시 대답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답 아마도 이 큰 세상을 어떻게 능히 구할 수 있다고 하느냐는 물음인 것 같은데 이 마음이란 멀고 가깝고가 없고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한 나라, 한 회사라고 하면 지도자에 따라서 바뀔수가 있겠지요.

지도자를 발전소로 비유해 봅시다. 발전소가 돌아가고 거기에 전깃줄이 잇대어 있다면 그냥 한순간에 불이 들어와 다 밝힐 수가 있겠지요. 마음엔 크고 작고가 없으니 그 도리를 안다면 안 그렇겠습니까? 어두운 밤길에 한사람이 횃불을 밝히면 다 그 사람을 따라가게 마련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을 밝힌 사람이나 따라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밝아집니다. 마음도리입니다, 그게.

구하는데는 임시변통으로 하는 수도 있겠지만 한 지도자가 정말로 마음도리를 알아서 거기에다 한마음으로 응해 준다면 우주 삼천대천세계, 천백억 화신이 한 손이 되어 그대로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깨우치면 가정은 가정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한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물 한방울 떨어뜨리면 그대로 물 한 그릇, 한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다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놓고 슬렁슬렁 물레방아 돌아가듯 돌아가세요.

'안되는 것도 법' 무슨 뜻인지요

문 스님의 말씀 중에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는 대목을 읽었습니다. 얼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답 주인공에 일체를 놓고 맡기라고 하니까 개중에 '스님, 그래도 안될 때가 있습니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는 데는 뜻이 있지요.

우리가 돌아서서 갈 때도 있고 앞으로 그냥 갈 때도 있지요? 어떻게 앞으로 가는 것만 가는 것이고 돌아가거나 뒤로 가는 것은 가는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싸울 때도 전진하는 경우가 있고 후퇴하는 경우도 있지요? 가령 포위를 당했다고 합시다. 그때는 물러서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후퇴를 해야 산다 이겁니다. 그걸 법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전진하는 것도 법이지만 물러서야 산다고 할때 그것 또한 법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의 바른 뜻은 양면을 다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소리 입니다. 그래야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은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어. 되는 적은 데서는 적게, 큰 데서는 크게 천차만별로 건지는데 이건 건져도 건진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 네가 했다 내가 했다도 없이 그냥 전깃줄이 이어져 불이 들어온 것 뿐이니 이쪽에서 했다고 하겠습니까, 저쪽에서 했다고 하겠습니까?

만물만생은 그렇게 상대성원리로 돌아가면서 개발하고 발전하고 창조하고 그럽니다. 그것도 이름입니다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크다 작다 하는 것도 없다는 뜻을 잘 참구하시기 바랍니다.

"둘 아니게 여여하게 돌아가는데 번뇌니 보리니 하며 관습의 딱지 붙이지 마세요"

'남전참묘' 공안의 참 뜻

문 다시 여쭙고자 합니다. '남전참묘'에 대하여 한말씀 일러주십시오.

답 남전스님이 없는데 고양이가 있으랴, 고양이가 없는데 죽일 것이 있으랴, 여러 대중을 위해 함이 없이 하되 한 몸을 두동강이 되게 보인 것은 서당도 동당도 둘이 아님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질문 하신 분, 당신 내면 깊은 곳에 관해 보십시요. 몸 떨어지면 입도 말도 다 떨어지나니.

제사에 안가고 마음으로만…

문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 제사를 큰 집 작은 집에서 각각 지냅니다. 저는 양쪽에 다 안가고 마음으로만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여쭙습니다.

답 이 주먹을 쥘 줄만 알아도 주먹이 아니고 펼 줄만 알아도 주먹이 아닙니다.

쥘락 펼락 해야 정상이지요. 그래야 조상님들도 좋고 제 마음도 넉넉하겠지요.

그런데 이 몸뚱이가 뭐 잘났다고 나는 안간다고 그럽니까?

그 '나'라는 것을 빼놓지 못하기 때문에 간다 안 간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환자인 아내 짜증만 늘어요

문 스님, 제 집 식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엘 갔는데 간이 무척 상했다고 합니다.

여러 달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환자가 짜증만 늘어서 시중드는 가족들과 싸우려고만 합니다. 스님! 마음좀 내주십시오.

답 나는 의사도 아니고 선원이 병원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은 이 병이라는게 80~90%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런데 어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푸르르 병원으로 달려 갑니다. 그래서는 무슨 검사다 조직 검사다 하는데 그러다가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의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날보고 심한 욕을 해대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의사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병원을 찾고 의사에게 보이더라도 이 내 마음의 불을 밝히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다리가 썩어들어서 잘라야 할 형편에 놓였는데 지극하게 마음도리를 관하니까 마음에 불이 켜져서 서서히 낫게 되고 나중에는 다리를 자르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내 몸뚱이 속의 수많은 생명의식이 전부 동원되어서 작용을 해준 것이지요. 마치 전깃줄과 전깃줄이 만나서 불이 들어오듯이 된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 병원 의사들이 모두 의아해 하고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종교가 뭐냐고 묻더랍니다.

이 얘기와 마찬가지로 내 몸 속의 일체 생명들이 내가 생각하는 뜻을 알고 내 마음과 한마음이 되어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온 국민이 팔걷고 나서듯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마음이 되니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는 없질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다리를 자르고 자기 손가락을 꺾고 제 오장육부를 못쓰게 할 까닭이 없죠.

본래는 둘이 아니지만 내가 그 도리를 모르고 내 주장자는 팽개치고 밖으로 매달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급한대로 작용을 해주고 대치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 둘 아니게 모든 생명의식들이 응해야 병도 가벼운 것은 가벼운대로, 위중한 것은 위중한대로 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좀 나쁘다고 하면 겁부터 집어먹고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으면 '아이구, 이젠 죽는가보다'해 버리니 도무지 마음도리를 돌아다 볼 겨를이 없어요.

그렇더래도 좀 여여하게 '주인공, 네가 끌고 다니는 몸이니 네가 고쳐 써야지'하고 내 한마음에 턱 맡길 줄 안다면 밖으로는 치료를 받더라도 안으로 불이 들어와서 병이 완치 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전깃줄을 이어서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 선을 까고 붙이듯이 그렇게 하는게 마음도리의 작용입니다.

"주인공이 한생각내면 법계가 알아요" "업식에 속지말고 공부재료로 삼아야"

여시아문의 새책
대행 스님의 신행 문답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A6신 410쪽
여시아문 刊行
값 5,000원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앎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눈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빚어낸 깨달음의 和音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38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3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난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최근의 절박한 경제난 타개의 한 방편으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고자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불필요한 경비를 제거하고 재생용지를 사용한 것도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여시아문의 의지를 실현한 것입니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협찬 주인공

기지개 못켜는 불교학생회

불교학생회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줄어드는 회원들, 독특한 프로그램의 부재.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새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현상유지에 급급해 온 것이 불교학생회의 현실이다. 게다가 IMF 한파로 사찰 재정도 어려워졌다.

종로 대각사 불교학생회. 지난해 이맘 때에는 신입회원 가입으로 북적거렸지만 올해는 형편이 다르다. 불교학생회 최기현간사는 "해마다 학생회 회원들이 친구나 후배들을 소개해 주는 형태로 신입생 회원들이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신입생이 한명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소년 봉사활동을 학교 성적에 반영하게 돼 봉사증을 받을 수 있는 사찰봉사활동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불교학생회 자체의 활동은 침체기로 빠져들고 있다. 사찰의 재정악화와 무관심도 활동 부진의 한 원인이지만 프로그램의 부재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신입회원 크게 줄고 재정악화
흥미유발 프로그램 개발 절실

대다수의 학생회들은 매주 봉행하는 법회와 1년에 한두차례 가지는 수련회, 체육대회, 부처님 오신날 행사 등이 프로그램의 전부다.

파라미타 사무국의 한정갑과장은 "사찰이나 학교의 지속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변화없는 법회는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불교를 지루하고 고루한 것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불교학생회의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은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시킨다.

물론 예외도 있다. 서울석촌동 불광사, 서울갈현동 수국사 등은 꾸준히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사찰 학생회들은 제각기 풍물, 탈춤반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다. 자신만의 색깔이라는 것이 꼭 불교적이지만은 않지만 학생들은 그러한 부대활동에 흥미를 느껴 불교학생회 활동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많다.

동대부고 명성여고 등 종립학교 불교학생회는 사찰 불교학생회와 비교해 볼 때 그나마 나은 편이다. 교법사의 프로그램 개발노력과 지도 뿐만 아니라 종립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도 학생들이 불교적인 생활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강지연 기자

건강 365일 〈15〉 알로에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요즘 시중에 알로에 비누, 알로에 화장품 등 알로에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변비나 위장병에 좋다고 해서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알로에란 멕시코 등지의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의 진액을 말한다. 한방에서는 그 진액을 노회(蘆會)라는 이름으로 옛부터 사용했다. 최근에 그 약효가 집중 조명돼 새로운 것처럼 유행하고 있을 뿐이다.

어린이들이 잘 걸리는 병 가운데에 복학(腹虐)이란 병이 있다. 현대의학에선 비장종대, 한의학에선 감병(疳病)이라고 하는데 배가 남산만큼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 잘 먹으면서도 얼굴과 팔다리 살은 빠지는 병이다. 이런 복학병에 쓰는 비아환(肥兒丸)이란 처방에 이 알로에가 들어간다.

복학 · 변비 · 췌장병 등 치료
달이거나 진액 하루 2번 복용

팔상체질 중에 소양인은 췌장병이 오기 쉽다. 소양인은 병이 걸렸다 하면 췌장부터 이상이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 병이 췌장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상하면 곧바로 췌장에 염증이나 열이 생긴다. 열이 생기면 조혈작용이 되지 않아 빈혈이 오고 눈이 피로하며 얼굴이 누렇게 뜨고 건성피부가 되어 화장이 먹지 않는다. 쉬이 피로가 오고 다리에 쥐가 나며 부종, 손발저림, 변비, 위장병 등이 온다. 또 췌장에서 췌액이 위장으로 공급되지 않아 위산과다증상이 생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췌장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주변을 살펴보면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대장에 열이나 냉이 많으면 변비가 오고, 기의 순환이 되지 않아도 변비가 되는 등 변비의 원인은 다양하다. 알로에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는 대장에 열이 많아서 나타나는 변비의 경우이다. 이상 열거한 여러 병세를 호전시키는데, 다시 말해 췌장열을 식혀주는 민간요법으로 알로에가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단 체질이 소양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

복용법 1회 8g을 달이거나 진액 그대로 하루 두 번 복용한다.

신라문화원 유적 답사
충담스님 추모 茶공양

신라문화진흥원(원장 진병기)은 29일(일) 오전9시에 청소년 문화 유적답사를 간다. 오전에는 경주 향교, 계림, 첨성대를 둘러보며 신라의 향기를 만끽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11시부터는 반월성에서 열리는 충담제에 참가하게 된다.

신라고승 충담스님을 기리는 충담제는 스님에게 올리는 헌다공양과 국악공연 등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를 대상으로 차와 떡 공양도 이루어진다. (0561)771-1950





"청소년에 희망과 용기를…"

선일스님 '10대도 행복할 수 있다' 출간
학교 · 가정생활 갈등 문제 해결책 제시

"출간되어 있는 책들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 없더군요. 청소년 책이라고 나온 것들도 어른들 참조용 뿐이지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볼만한 책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책을 내고 싶었습니다."

청교련 인천지부장 선일스님(부루나포교원 주지)은 청소년들을 위해 〈10대도 행복할 수 있다〉(대교출판刊)를 출간했다.

도심포교당을 설립해 운영하다 보니 포교의 핵심은 바로 어린이 청소년불자들에게 있었다는 선일스님. 스님은 진정한 포교란 자라나는 새싹들을 불자로 키우는데서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10대도 행복할 수 있다〉는 가정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로 갈등하는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용기 희망을 주는 짧은 이야기들을 항목별로 담고 있다. 책의 내용은 불교경전과 설화 우화 등에서 뽑은 이야기들과 일반적인 교훈이 담긴 이야기들로 꾸몄다.

선일스님은 "어른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른들이 가지는 약간의 관심이 아이들을 항상 밝고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가출청소년 쉼터를 인천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등 선일스님은 청소년 포교에 힘쓰고 있다.

〈연〉

인터넷서 무료과외 서비스

에듀넷등 초중고생 대상 영 · 수 · 미술 강의

인터넷을 통한 무료 과외의 길이 열렸다.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해 인터넷 상에서 영어 수학 과학 미술 등의 교과 내용과 수능문제들을 서비스하는 사이트들이 늘고 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에듀넷'의 학생용 자료실에 들어가면 위성교육방송 서비스를 비롯해 학습지서비스, 초등영어, 사회과 지역학습정보, 과학, 수능시험 길잡이 등의 메뉴가 지원된다.

특히 학습지 서비스는 각 시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간한 학습지만 모아서 제공한다. 초등학교 수학 · 한자 · 도덕, 중학교 국어 · 영어 · 수학, 고등학교 언어영역 · 수리탐구영역Ⅰ(수학) · 수리탐구영역Ⅱ(과학) · 수리탐구영역Ⅱ(사회) · 외국어영역(영어)의 학습지를 볼 수 있다.

이밖에 특수학교의 학습지도 서비스하고 있다. 에듀넷은 각종 교육기관 자료와 교사용 자료실도 마련하고 있다. 문화광장에는 음악감상, 미술작품관람, 문학에의 초대 등이 청소년들을 기다린다. 행정지원마당에서는 한국의 교육지표, 교육관련 법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EBS가 개설한 'EBSnet'을 방문하면 EBS TV와 라디오, 위성1TV에서 방송하는 전 프로그램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97년 11월 방영분부터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소리 지원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의 직접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고등학교 공통수학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High Math'도 있다. 하이매스는 앞으로 수학Ⅰ Ⅱ도 올릴 계획이다.

'skydream's English'에서는 영어의 전반적인 문법과 단어, 영자뉴스를 비롯해 토익공부까지 겸할 수 있다. '미토의 집'을 방문하면 중고생 생물, 공통과학, 화학, 물리에 대한 자료와 문제를 만날 수 있다.

'천재들의 과학백과'에는 초등학교 3·4·5·6학년의 교과 과정에 맞는 과학자료를 담고 있다. '함께하는 미술교육'에는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실 미술 배움터 작품감상방 등이 개설되어 있다.

◇인터넷 무료과외 사이트

이름	주소
에듀넷	edunet.nmc.nm.kr
EBS	www.ebsnet.net
High Math	www.netian.com/~ptsa
skydream's English	www.inote.com/~skydream/
미토의 집	soback.kornet.nm.kr/~jbh3047
천재들의 과학백과	neowww.soivit.co.kr/Dk_web/02/02/science/science.htm
함께하는 미술교육	soback.kornet.nm.kr/~cymoon/ed/edc.htm

단 신

서울시 파라미타 지원

파라미타는 3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98 청소년건전육성사업 운영단체로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파라미타가 기획한 사업은 서울시 거주 청소년 3백명을 대상으로 한 겨울 수련활동으로 12월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청담학원 IMF장학금 모금

청담학원(이사장 동광스님)은 청담IMF 장학기금 마련에 나섰다.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수업료 미납학생들이 늘어나자 3천만원~5천만원을 목표로 조성에 들어갔다. 장학금은 1구좌 80만원이다. 또 학교내에 알뜰시장을 상설 운영하고 교복 교과서 참고서 물려쓰기도 추진할 방침이다.

청교련 자원봉사 모집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1차로 4월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이후 수시로 모집한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청교련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홍보물을 받을 수 있고 봉사시간의 취사 선택도 가능하다. 회비는 무료. (02)735-8165

붓다의 메아리 성황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지부(지부장 광명스님)는 8일 태고사에서 청소년 발표의 장인 제47회 붓다의 메아리 공연을 가졌다. 수국사 불광사 봉은사 불교학생회 등 7개 단체의 불교학생회가 출연해 풍물 탈춤 꽁트 허슬 등의 장기를 선보여 동참한 3백여명의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청교련 종합예술 경연

청교련 중앙본부는 5월17일에 열릴 제11회 청소년 종합예술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경연종목은 전통예술부문(국악연주 사물농악 탈춤 마당극 등)과 대중예술부문(연극 꽁트 현대무용 시낭송 피아노연주 등)이다.

이번 경연대회는 부문 구별없이 시상하던 예년과 달리 전통예술부문과 대중예술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참가신청은 4월6일까지. (02)733-5138

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6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①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다루는법,도량석, 쇳송,상단예불,각단예불,천수경,행선축원,불공시식등
②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③작 법 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등 의식전문 법사 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8년 3월 10일 ~ 4월 20일
■ 개강일시 : 1998년 4월 20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해외대학과정
※ 본원은 초중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시찰) 칭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教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염불 禪 철야정진
올곧은 자세로 심신을 이완시키고 특히 허와 턱을 완벽하게 이완시키고 불성의 운률에 맞춰 행주좌와 동정간에 불성으로 염불하고 자성이 귀로 듣는 일념의 수행으로 염불삼매 환희심에 찬란한 자성의 부처를 체험하십시요.
1. 염불수행시 허가 입천장을 탁탁쳐야 대뇌가 각성되어, 정신이 또렷또렷해지며 번뇌망상이 사라짐을 체험
2. 들숨시 염불이어짐과 자동으로 침이 넘어가고 몸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력이 좋아짐을 체험
3. 호궤합장 염불은 자동단전호흡되며, 올곧은 자세가 지속 유지되는 완벽한 자세로 몸병 마음병, 전생병이 치유됨과 단전형이 뚜려 완벽한 호흡이 됨을 체험
4. 수행중 자금빛 부처님, 황금연꽃, 백색광명, 수행자의 몸에서 황금빛 오로라를 보게되며 업장소멸 체험
5.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박자에 맞춘 염불삼매로 한두시간 정도는 손끝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세로 몸뚱이 집착 극복을 체험
6. 목탁소리나 타인의 염불소리는 잘 들리나 자신의 염불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때 자신의 귀를 스테레오로 들리게 하여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은 올곧은 염불삼매체험.
7. 염불수행시 무의식 자동단전호흡되고 수승하강되어 손, 발, 배는 따뜻해지고 이마와 정수리는 시원하며 머리는 맑고 또렷또렷해짐을 체험
8. 상근기가 아니면 화두참선하지 말고 염불소리 들으며 호흡을 세고 단전복부를 관하며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자나 깨나, 좋으나 싫으나, 삭가모니불 명호를 끊임없이 칭명하면 자동으로 염불됨과 신비한 신통력을 체험.
9. 비전의 수행통해 일생 감기, 몸살, 위장병 안걸리고 화병, 상기병, 불면증, 우울증, 디스크, 스트레스 쉽게 극복됨을 체험 특히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단시일에 극복한 수행자 많음
⊙수행내용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한글금강경 봉독, 참선기초수행, 와선호흡법, 행선염불, 신비의 도인 건강법
⊙공양미, 넉넉한 복장, 수련회비(2만원:한가족 동일)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일요일 아침 8시 철야 용맹정진
⊙일요일~금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불자의 기본수행법 수련
출가희망자 수행체험(3일,7일,15일,30일,50일,100일)
「비전의 수행테크닉 전수로 올곧은 수행체험과 신심증대」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0338)71-7745 (수행상담시 간 오후 5시~8시)

생전예수재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
생전예수재의 공덕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빚과 량,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예수재 행사 동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불자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200권 이상 주문시 책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국판 72페이지, 개정판
●법보시 특가 1,500원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FAX.(02)738-8682
생전예수재 용품 판매합니다.

환상과 신비의 섬, 제주도
佛心으로 모시겠습니다.
◈ 제주관광! 이제 달라집니다.

▣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저희 제주운전기사불자회는 제주관광의 파수꾼으로 건전관광 및 알뜰관광을 위해 여러분과 도반이 되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특 전 : 불자가족에게 기본요금의 10%할인.
신혼및 가족단위, 단체관광 미리예약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귀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제주운전기사불자회
회장 오 중 수 합장
제주시 도남동 920-33
☎ 064)51-0108(백팔번) FAX 겸용

불자 세상보기

돈에 물든 상아탑

교수임용에 돈 개입·자기사람 뽑기
연구비유용·고액과외 등 불법 속출

임용제도 개선등 대학 자정노력 절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양심의 보루인 상아탑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유용(승실대 도갑수교수·화공학)하거나 교수임용 대가로 시간강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챙긴 교수(서울산업대 김영길교수·사회체육학)들이 검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대 치대 교수 임용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간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전국 각 대학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연거푸 폭로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수 공정임용을 위한 모임'(회장 박창고 강원대교수)은 7일 18개 대학의 불법임용 사례20건을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제 이 문제가 검찰권 발동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수 공정임용 모임'에 참여한 교수들은 "금품수수, 자기 사람 심기 등 불법적인 임용관련 비리는 철저히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학의 수준은 세계 1백대에 드는 곳은 하나도 없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골찌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대학이 배출하는 인재들의 질이 낮으니 국가가 경쟁력을 잃은 것도 당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교수의 50%가 교수임용이 불공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 대학 부조리중 9%가 임용에 금전이 개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자체가 잘못 채용되는 상황 아래서 대학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교수채용은 교수간의 채용담합, 모교출신 교수 뽑기 등 학둔적인 '근친상간'의 폐해도 낳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교육받은 실력있는 두뇌들이 잘못된 대학풍토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대학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서울대는 지난 2월20일 최근 사회문제화된 교수의 성희롱사건과 치대교수 임용비리와 관련, 교수들의 논문표절, 과도한 정치활동, 입시관련 개인지도 등을 규제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교수 사회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교육부와 대학은 공정임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근본적으로는 △정년(65세)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교수사회의 구조를 대학과 일반사회, 대학 상호간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열린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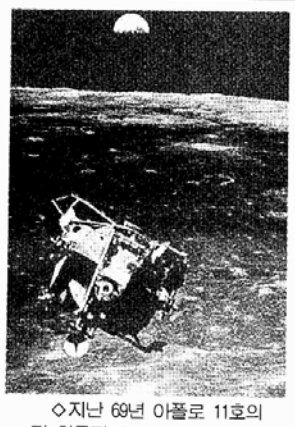
불교의 눈 "지식 파는자 스승아니다"

동국대 박선영교수(교육학)는 "교육의 본질은 인간(도덕성) 육성에 있기에, 교수는 단순한 지식·기능의 교수자가 아니라 인생에 깊은 시사와 감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교사, 학생, 교육내용이 교육의 3대 요소라 할 때 교육을 주도하는 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이기에, 스승의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교수로 채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래 십호(十號) 중의 하나인 천인사(天人師)를 비롯, 개도자(開道者) 설도자(說道者) 장도자(將導者) 대도사(大導師) 등 수많은 명호들이 이상적인 스승이 갖춰야 할 자질과 역할을 상징하고 있다. "선지식이라는 사람은 곧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이니 교화하여 보살계를 배우게 하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곧 인도자가 되는 것이니 교화하여 피안의 길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대방광불화엄경〉

달서 '물' 발견

생명체 존재 가능성

불교 우주관 증명 '눈앞'



◇지난 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장면.

달의 남극과 북극 표면에서 얼음형태의 물이 발견됐다고 미항공우주국(NASA)이 5일 밝혔다.

이에따라 몇년전 달에서 미생물인 연쇄상균(連鎖狀菌)이 발견된 것과 더불어 지구이외의 행성 또는 위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더욱 높졌다.

이와관련 교계는 "무수한 부처와 중생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다"는 불교 우주관의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학사상〉 김용정(전 동국대교수·철학) 편집인은 "불교는 우주가 기본적으로 지·수·화·풍·공(地水火風空)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것으로 구성된 생명체(사람) 역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대과학은 불교의 우주관을 증명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인왕경〉에는 "1백억개의 태양과 달, 그리고 열한 개의 대국과 5백개의 중국, 그리고 1만 개의 소국이 있으며…"라고 하여, 1백억개의 행성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대학은 반성해야 한다"

인문·사회과학 교수들 문제 제기

지식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지금·여기에서 필요한 지식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요즘 한국 지식인 사회에 던져진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지식인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송호근교수(서울대·사회학)의 〈또 하나의 기적을 향한 짧은 시련〉(나남출판 간)에서 송교수는 국가 부도위기를 예측하기는커녕 대처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한국 사회과학의 대실패를 자인하고 있다. 최근 서점에 나온 계간지들은 송호근 교수의 고뇌가 한국 지식인 사회의 '반성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임을 보여준다. 〈문학과 사회〉 〈현대사상〉 등 계간지는 물론이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한국 학술단체 협의회'(학단협)는 한국 지식인 사회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있다. 특히 민교협과 학단협이 최근 발표한 건의서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학문정책의 기본 방향〉(대표 작성자 강내희·유초하 교수)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의 위기가 학문의 위기, 더 크게는 문화의 위기에서 말미암았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 야영·산장이용 7월부터 예약 의무화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국립공원에서 야영하거나 산장에서 숙박하려는 등산객들은 관할관리공단에 미리 이용 신청을 접수해야 하는 국립공원 사전예약제를 설악산과 지리산 등 일부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실시한다.

이 제도는 등산객이 등반에 앞서 야영장과 대피소 이용신청을 해야 숙박이 가능한 제도. 환경부는 국립공원내에 온천시설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와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는 관리공단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불길속 어린이 15명 구조

중앙대 의과대 휴학생 윤유상(26)씨가 불길에 갇힌 어린이 15명을 구해내 화제.

6일 오후 서울 강동구 길동 연세독서실 건물 지하1층 레스토랑에서 불이나 2층 유아방에 어린이 15명과 교사 2명이 갇혔으나,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윤씨에 의해 발견돼 구출됐다.

정신대 할머니들에 무료인술

대구 곽병원 곽동협(41) 내과1과장은 6일 대구지역 정신대할머니 7명을 무료로 보살펴 온 점을 인정받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김난경·유가효)이 수여하는 '여성권익 디딤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철모아 이웃사랑 실천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지회장 조호능)는 11일 '나라사랑 고철모으기 운동'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9백여만원으로 20kg들이 쌀 2백포대를 구입, 소년소녀가장과 모자가정,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 2백가구에 전달했다.

복권당첨금 장학금으로

지난 94년 미국 사상 최고액인 1800만달러(한화 2백80억원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재미교포 이옥자(58)씨가 서울대·연세대에 장학금을 희사했다. 이씨는 9일 서울대를 방문해 법대 신입생 가운데 여학생 5명에게 1천달러씩 지급을 약속했으며, 다음날인 10일 연세대를 찾아 1만달러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고시생 등친 고시계 대부

서울 관악경찰서는 8일 '고시계의 대부'(90년대초 어려운 고시준비생들에게 무료숙박 제공)로 알려진 신림9동 설봉서적 주인 이모(41)씨가 고시생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96년부터 고시생 등에게 "한달에 2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40여명으로부터 6억여원을 챙긴 뒤 지난해 11월 잠적했다는 것.

경비원이 근무은행 털어

경북 안동경찰서는 9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비업체의 용역제공 은행에서 현금 3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조일제(24)씨를 긴급체포하고 한모(25)씨를 수배중이다. 조씨 등은 지난 8일 삼산동 J은행 안동지점에 미리 복제해 둔 열쇠를 이용해 들어가 현금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빚갚으려 '보험금 자살'

남편의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주부 김모(49)씨가 9일 오후 '보험금으로 빚을 갚아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친척과 이웃에 진 빚 5천만원에 시달려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김씨가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면 자살하는 경우라도 그동안 납입한 보험금에 얼마간의 위로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들었다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동의안을 둘러싸고 극한 상황으로 치닫던 여야의 대결양상이 11일 정치와 경제현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합의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MF정국 극복에 온 지혜를 모아야 할 이때 한가로이 정쟁을 일삼는 모습은 온 국민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여야없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합을 통해 국난을 극복해야 할 때다. 경전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政爭 "공동체 사회의 생명은 화합"

▨만일 어떤 비구가 설법할 때에 그 중에 어떤 비구가 있어 이렇게 말했다 하자. '저이가 말하는 글귀는 바르지마는 뜻은 바르지 않다'고 한다면 비구는 그 말을 듣거든 옳다고도 말하지 말고 그르다고도 말하지 말라. 마땅히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하라. '어떤가 비구여, 내 뜻은 이러하고 너의 뜻은 이러하다. 너의 뜻이 이겼다'고 하거든 그 비구가 이렇게 말할 때 또한 그것을 옳다고도 말하지 말고 그르다고도 말하지 말라. 마땅히 그 비구를 충고하고 꾸짖고 그치게 하고 또 마땅히 함께 바른 것을 찾도록 하라. 이렇게 비구는 다 함께 화합하여 싸움질을 하지 말라. 동일한 스승의 제자는 동일한 물과 젖이다. 여래의 정법 가운데서 마땅히 자기 등불로 유래한 안락을 얻어야 하고 안락을 얻어 마쳐야 한다.

〈청정경〉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대도 같이 싸우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뇌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쟁인연경〉

▨비구들이여, 어진 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인욕을 닦아 지키며, 서로 다투고 송사하는 것을 삼가야 하느니라. 사람들을 책망하여 예경(禮敬)하게 하지 말고, 남을 위하여 법을 설하되 은혜와 덕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물반니환경〉

▨횃불을 들고 나온 초인은 사람의 형상을 띠고 나타나서, 지혜와 자비심으로 이 세상을 밝혀 주시는 부처님이시다. 그 빛 속에서 인간은 제 자신과 남들을 발견하고 인류애와 화합하는 정신을 깨우친다.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환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범부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켜 진실하다느니 진실하지 않다느니 하는 대립관념에 빠져있기 일쑤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다툼을 일이키는 일이 없으니, 현상세계의 상황을 샅샅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네의 설하신 가르침에는 다툼이 없느니라.

〈승사유범천소문경〉

색상품 '불펜겸용 녹음펜'

운전중이거나 그 밖에 갑자기 급한 메모가 필요할 때, 영어단어 및 수학공식 등을 녹음 재생해 반복학습 효과를 기대할 경우에 유용한 '불펜겸용 초소형 녹음펜'이 출시됐다.

불펜에 IC칩을 내장해 20초동안 녹음이 가능한 이 제품은 불펜·녹음기능 이외에 야간시 램프 역할과 이어폰 기능까지 있어 편리하다.

(주)21세기통신. 가격은 3만9천원. (02)992-5431



춘천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파장이 활발하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엘파파(α) 현상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20여종의 뇌내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정혈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두통, 불면증, 심장병, 귀울림, 치매, 신장병,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꼭쥠으로서 사아민 효과가 있습니다.
玉山家 옥의 신비!
玉山家 옥산가 옥의 신비!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우원판매가)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禪筆(眞品)
佛子體의 神秘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병풍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수강생 모집. 사경문제와 풀이 있고 법복 대가 있습니다.(통신도 가능)
반야심경, 법화경 모든 경전 서예 수강생 특별지도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시론

문화관광부의 행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종교인, 문화 예술인들의 관심을 모은 분야는 문화부의 개편에 관한 일이었다. 대통령도 유세기간 동안 한결같이 문화정책의 고양을 외쳐왔으니만큼,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느닷없이 문화관광부가 되었다. 경제통상, 건설교통, 보건복지 등 업무가 합쳐지면서도 상당히 동질적인 연계에 비해 볼때도 '문화관광'이라는 작명은 좋아보이지를 않는다.

인류공존의 공통분모 이젠 문화에서 찾아야

20세기는 '힘의 논리'가 지배한 세기였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서냉전, 그리고 작금의 경제위기 등 끊임없는 대결의 시대였다. 금세기 중반까지는 무력대결의 양상이었고 지금은 경제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총칼이 돈으로 바뀌었을뿐 그 속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는 명백히 문화의 시대가 되리라는 예측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힘의 대결이 맞는 종착역은 공멸(共滅)이기 때문이다. 승자와 패자의 편가르기는 국가간의 무력대결로 압축되었고 오늘날은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편치를 낳았다.



정병조
〈동국대 부총장〉

이제 인류는 공존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구하게끔 되었다. 이미 미국의 기업들 간에는 재구성(Re-Structuring)이라는 말이 보편화되고 있다. 여태까지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였다.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그와 같은 목표설정이 통용될 수 없게 되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때 등장하는 필연이 '문화'이다. 인류의 공통적 선인 자유·평등을 실현하는 길은 서로가 지닌 문화적 공통분모를 '나누어 가지는 일'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정책은 보다 거시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문화재를 보호한다거나 국립박물관을 으리으리하게 짓는 일이 능사가 아니다. 국민들의 생활행동, 의식 모두가 문화적 감각을 지닐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으래전부터 하바드대학에서는 건축철학(Philosophy of Building)이라는 전공학과를 운영해 왔다. 환경, 주변여건, 역사성, 전통미 등을 고려하는, 말 그대로 '집의 철학'을 모색해 왔던 것이다. 일본 교토에는 고층아파트가 없다. 기술과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들이라고 주거공간부족이 없어서가 아니다. 전통과 문화를 온존하려는 나름대로의 문화의식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관료·정치·경제인들도 그와 같은 거시적 안목을 지녀야 할 때이다. 그러나 문화관광부가 제 목소리를 지니려면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려운 여건일망정 문화관광부 종사자들이 그러한 긍지를 지녔으면 한다.

한국적 문화란 무엇일까. 깨진 토기조각을 치켜 들고 세계 제일을 말하는 것이 온당할까? 문화의 흐름 또한 물결같은 것이다. 저질문화는 고급문화에 흡수되기 마련이며, 전통문화는 끊임없는 도전에 흔들리기 마련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불교이다. 유형문화재의 70%가 불교문화재라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적 정서의 밑바닥을 관통하는 불교적 정신이다. 우리가 세속오계를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고려대장경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한국불교는 언제나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여태까지의 문화정책은 하드웨어적인 발상이 전부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방향은 그 내면의 세계, 즉 소프트웨어를 계발해 나가는 일이어야 한다.

신학전공한 장관 '집의 철학' 모색했으면

나는 문화관광부의 신임 장관이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몰이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점이 종교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타인에 대한 배려, 다른 종교나 문화에 대한 외경심리는 문화의식의 기본이 아니던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문화관광부의 정책과 행보들이 이 메마른 대지와 생명들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서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열린마당

불교출판계 위기 타개책

국내 출판업계에 불어닥친 연쇄부도는 불교출판업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적 도매상 1,2위인 보문당과 송인서림의 부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가하면 증이값 등 출판비용의 상승으로 '출판=손해'라는 등식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교계출판사 부도는 물론 불교지식 인프라의 붕괴까지 부를 수 있는 현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대안은 없는가. 출판관계자들은 유통구조 단일화, 출판전문화, 사찰도서관 확충 및 법보시 확대, 책읽는 풍토조성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들 방안은 어떤 것들인지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최근의 출판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유통구조 단일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침체된 출판시장을 북돋기 위해 설치된 영풍문고 할인매장.

유통구조 단일화로 운영비 절감

윤창화 〈민족사 대표〉



현재 교계출판사의 유통구조는 소매점과의 직거래나 운주사 등 총판을 통한 두 가지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독자의 방문이나 전화 우편주문 등을 통한 직접 판매, 법보시 판매 등도 20~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판매방법은 다양한 편이다. 이같은 유통구조는 출판사-총판-중간도매상-서점으로 이어지는 일반출판사보다는 훨씬 건실한 편이다. 그러나 운영경비 절감과 양질의 블서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경우 불교소매서점은 물론 전국 소매서점에 불서를 공급하는 등 판매망을 확대할 수 있고 수금 배달 등 영업을 총괄할 경우 기획 편집에만 불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일반서점에도 '불교코너'를 마련케 하는 영향력을 갖는 등 영업 및 포교적 측면에서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단 유통구조 단일화는 기존의 유통구조를 하나로 묶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유통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다.

단일화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각 출판사가 서점을 상대하지 않아 독자의 흐름과 시장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지금과 같은 영세한 시장에서 과연 영업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찰도서관 확충 책읽는 풍토 조성

김형균 〈불지사 대표〉



현재의 상황이 지금 당장 독자수를 급격히 떨어뜨리지는 않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2~3년 후에 현격한 독자감소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출판사가 책을 내지 못해 읽을 책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찰도서관 확충은 이같은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다양한 출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찰도서관에서 불교관련 출파물을 흡수한다면 최근의 위기타개는 물론 불교출판문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도심사찰의 경우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제대로 운영만 한다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책읽는 풍토조성 또한 사찰도서관 확충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출판사보다는 교계 언론매체나 불교계 지도자와 일선 사찰 스님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교계 언론매체에서 매년 종류별 계층별로 독후감 대회를 열어 시상을 하거나, 독서와 관련한 기획물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면 그 효과는 상당하리라 판단된다. 교계 지도층 인사와 스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학술등 전문서적 출간 종단 지원

남동화 〈불광출판부 편집부장〉



학술서적의 경우 출판사마다 내기를 꺼려하고 있다.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다. 출판사는 기본적으로 영업성을 띠고는 있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곧 불교지식산업의 황폐화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각 종단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각 출판사별로 학술 및 전문서적에 대한 기획안을 받아 이를 심사해 매년 한 곳씩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 불서를 일괄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는 독서인구를 늘리고 포교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서계층 다양화는 오랜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것이지만 불교중흥과 출판활성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는 곧 포교활성화라는 시각으로 출판사뿐만 아니라 전 불교인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지금까지 펴냈던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책들이 전문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고, 대상 또한 어머니 어린이 등 두 세 계층으로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점은 출판사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경전·소설등 장르별 출판전문화

김시열 〈운주사 기획과장〉



일반 출판사의 경우 종교, 학술, 경영 등 큰 영역에서의 세분화를 의미하지만 교계출판사의 경우 경전, 교리, 학술, 소설, 법어집 등 그 종류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 따라서 좁은 시장속에서 전문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세계출판시장이 이미 전문화돼 있고 국내 출판업계도 본격적인 전문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궁극적으로 교계출판사도 이에 대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시장이 좁다고 해서 지금의 체계를 그대로 고수한다면 양질의 도서 양산과 효율적인 판매가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현재로서 가능한 방법은 출판사별로 각사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출판에 비중을 두는 것이다. 학술, 교리, 경전 등 어느 한 두 분야에 중점을 두되 그 외 수익성 있는 책을 발간하는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것이다.

또 출판종류에 주부, 청소년 등 독자층을 고려한 특성화도 고려해봄직하다. 저자와 소재 발굴에 대한 출판사의 노력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최소한 현 시장규모의 몇배 이상 수요가 늘어난다면 출판 전문화는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출판사와 모든 불교인들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출판업계가 맞고 있는 연쇄부도와 관련해 교계출판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언제 어떤 형태로 더른 위기를 맞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최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월말 국내 최대서적도매상 보문당과 송인서림 등 크고작은 도매상과 서점의 부도로 인해 교계출판사는 8억여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또 올 1·2월 교계 출판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절반수준에 머문 상태며, 미리 잡아놓았던 출간계획을 대폭 줄이거나 무한정 보류하는 등 위기의 중심에 놓여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출판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이 올해 말까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이경우 불교지식산업의 편중과 퇴조를 동시에 부르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구조 단일화, 출판전문화, 사찰도서관 확충, 종단지원, 책읽는 풍토조성, 독서계층 다양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유통구조 단일화와 출판전문화는 향후 국내출판계의 보편화된 형태로 자리잡을 전망이어서 교계도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렸냐는데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한다. 사찰도서관 확충과 책읽는 풍토조성, 종단지원과 독서계층 다양화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손쉬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다.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불교계 전체의 노력과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포교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일석이조라는 평가다.

법정스님이 신도들에게 하나의 책을 권하고 이를 읽고 다음 법회에 참석토록 하는 것은 포교뿐만 아니라 책읽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출판문화의 풍토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범사례다.

한명우 기자

불교출판계의 현실

도매상 부도여파 피해 속출
1·2월 출판량 작년 절반

韓國佛教 海東宗 創宗公告

佛教가 우리나라에 傳해온 이래로 昨今과 같이 많은 分派가 일어 나기는 처음이다.
우리는 護國佛教의 精神으로 通佛教를 實現하고 一佛第子로 和合과 佛教界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百年大計인 教育宗團으로 설립하였다.
우리는 석가세존의 一乘圓音의 教義와 元曉聖師의 海東教學을 이어받아 佛祖의 慧命을 이어가려는 時代的 使命感과 大願力으로 清道를 修練硏磨하는 길을 整備하며 度生의 門을 활짝열어 教育布教의 使命을 다하려는 것이다.
宗徒 대중은 이 헌장을 준수하며 海東精神을 生活化 現代化 大衆化의 길위에서 菩薩道 精進의 서원을 굳게 다짐하는 동시 세계평화와 불국토 건설에 이바지 하기를 바란다.

宣布文

宗正 李耕牛 總務局長 金道眼
顧問 李昔泉 教育局長 方覺圓
顧問 金虛無 財務局長 辛正一
宗會議長 元慧牛 企劃局長 金道峰
元老院長 裵西光 總務課長 李道雲
總務院長 張慧惺 財務課長 金報蓮
教育院長 金九潭 事業課長 慶道慧
監察院長 姜天江
(部長級은 未結定함)

(한국불교해동종인)

(종정직인)

(해동종계인) (총무원장직인)

■ 해동종유래 : 佛紀 2531년 9월 5일
■ 창립선포일 : 佛紀 2541년 11월 11일
■ 통합공고일 : 檀紀 4331년 3월 26일
■ 총무원주소 : 忠北 忠州市 利柳面 長城里 257-8 番地
■ 전 화 : 0441-853~3168, 3169
■ 팩 스 : 0441-853~3169

海東宗刹 祥瑞山 慧圓精舍
韓國佛教海東宗 總務院

護國安民 傳法度生
및 創宗 大法要式

귀의 삼보하옵고.

……囫覺山中 生一樹 開化天地 未分前……

새로이 설립도 아니요, 파벌도 아니요, 추세에 휘말림도 아니라. 본래자리를 이름하여 非靑非白이라. 그것을 이름하여 海東이라고 합니다.

百年大計의 教育爲主로 창종하는 해동은 불교사상을 바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속됨에 물들지 않는 동쪽바다에 태양이 떠오르듯 새로솟는 활기찬 햇살을 삼천대천세계에 비치고자 합니다.
본 해동불교교육연구원은 호국안민과 불교 근본교리를 奉體하고 전법도생의 대승불교 이념실현을 목적으로 년중행사로서 금년 제2회 법요식을 맞이하여 창종법회와 李耕牛 大宗師 宗正推戴 대법회를 奉行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불기2542년 3월 26일 오후 2시
● 장 소 : 해동불교전문대학 (혜원정사)

韓國佛教海東宗
(해동불교 교육연구원)

종단소식

조계종

마곡사 주지 진허스님



마곡사 일현문도회(대표 윤월·철웅)는 9일 연화당에서 회의를 갖고 차기 주지로 동화사 선원장 진허스님을 추대키로 결의했다. 또 이날 문도회는 문도회규약을 통과시키고 14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한편 △승가의 전통계승 문도화합 △본사주지 피선시 단임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해인사 대장경 정대불사

합천 해인사(주지 보광)는 4월 3일 제38회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한다.

이번 팔만대장경 정대불사에서는 시련, 대령관욕, 영가천도, 대장경정대법회 등이 진행된다.

통도사 보살수계 산림

양산 통도사(주지 월파)는 4월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수계산림은 전계사 청하, 갈마사 초우, 교수사 현산스님을 계사로 진행된다.

태고종

강원도민 위한 영산재



강원교구종무원(종무원장 백운)은 강원불교대학(학장 이선행)과 공동으로 7일 춘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강원 도민과 불교발전을 위한 사상 강연회 및 영산 대법회를 봉행했다.

외국인에 다도예법 강의

신촌 봉원사(주지 대운)는 25일 오후 2시 삼천불전에서 싱가폴 말레이지아 태국 등 동남아에서 온 관광객 및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다도예법 및 시음회를 개최한다.

천태종

금강불교대 총동문회

금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박용관)는 21일 오후3시30분 제1 강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연다. 이날 총회에서는 97년 결산보고에 이어 회장 및 간사를 선출할 계획이다.

진각종

서울밀교대학 입학식

진각대학 부설 서울 밀교문화대학(학장 석봉)은 11일 총인원 대강당에서 제 2기 기초과정 및 제1기 중급과정 입학식을 가졌다.

총지종

7사단 점등철탑 조성

통리원(원장 총지화)은 7일 종무회의를 열고, 강원도 화천군 7사단 내에 점등철탑을 조성키로 했다.

대한법화종

전방 점등불사 논의

총무원(원장 대호)은 17일 회의실에서 교구 종무원장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방 점등불사, 분담금 납부 독려, 교화승 교육문제, 승려신분증 갱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원효종

원효사상硏 설치키로

총무원(원장 무진)은 7일 회의실에서 15명의 각 교구 종무원장 및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 연석회의를 갖고, 종단 부설 원효사상연구원을 설치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종보를 매월 16면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키로 했다.

법륜종

종도단합대회 연수교육

총무원(원장 혜우)은 18~19일 충남 연기군 보림사에서 제10회 종도 단합대회 및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혜우스님은 "IMF시대 극복과 불교 중흥을 위한 종단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이를 계기로 종도들 모두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통도사 대학생 기숙사 맡아

남녀 400명 수용…종교 교양강좌 등 실시

양산 통도사자비원(이사장 월하)은 경상남도학생기숙사를 경남도로부터 위탁받아 14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불교계가 대학생기숙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창원시 팔용동 171-1번지에 소재한 경상남도학생기숙사는 총2천1백평의 대지에 남학생 건물 6층, 여학생 건물 4층규모에 방사와 회의실, 다목적실, 식당등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인원은 남학생 2백50명, 여학생 1백50명이며 입주비는 월10만원이다.

경상남도 학생기숙사의 입주자격은 창원대, 경남대, 마산전문대, 창신전문대, 창원전문대학교를 비롯 경상남도에 소재한 대학생 가운데 저소득층과 농어촌 자녀를 주입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3백62명이 입주한 상태이며 실직근로자 자녀,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도 문호를 확대해 입주신청을 받고 있다.

통도사자비원은 특정종교행사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 불교, 천주교, 개신교등의 성직자를 초청하는 교양강좌를 비롯 심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상남도기숙사 초대관장 진철스님은 "경상남도기숙사 위탁운영은 고급인력인 대학생포교의 신기원을 이룩할 수 있는 호기이다"며 "부처님의 혜명아래 저소득층과 농어민 대학생 자녀들이 쾌적한 면학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등 자연스럽게 불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계가 대불련등 전국의 대학생포교활동에 큰 활동을 펼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기숙사 위탁운영을 통한 대학생포교는 향후 한국불교의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근·천미희 기자〉



◇교계 최초로 통도사 자비원이 위탁 운영하는 경상남도 학생기숙사 전경.

"의식개혁으로 국난극복" 한마음선원 강남구법회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은 7일 강남구민회관에서 강남구법회를 봉행했다.

'시대의 어둠 마음의 어둠 한 마음으로 밝힙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강남지역 불자 5백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에서 주지 혜원스님은 법문을 통해 "이미 현실로 닥친 경제위기는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기 보다는 위기를 헤쳐나가는 지혜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강남주민들의 작은모임에서부터 의식개혁을 일으켜 생활속의 자기 성찰을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육성해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는 1부 법요식에 이어 2부행사로 청년회원들의 피리연주, 한마음선원 청년 및 어머니 합창단의 합창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광주 첨단지구에 첫 가람 탄생

무량선원 개원…직장인 선방도 개설 '도심포교'

광주 첨단지구 포교의 근본도량이 될 포교당이 처음으로 개원됐다.

광주 무량선원(주지 재연)은 8일 백양사주지 지선, 광산구청장 고재유씨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포교에 첫발을 내디뎠다. 광주 첨단지구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 신주거공간으로 조성됐으나 그동안 사찰이 한곳도 없었다. 따라서 이번 무량선원 개원은 이 지역 불자들의 신행근본도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게 지역불자들의 얘기다.

광산구 월계동 830-3번지 30여평의 규모로 개원한 무량선원은 직장인들을 위한 선방, 일반 교리강좌, 각종 법회 등을 비롯 다양한 포교활동을 추진다는 계획이다.

주지 재연스님은 "첨단지구내 절이 없어 불편하다는 신도 한분의 말을 듣고 도심포교에 뛰어들었다"며 "첨단지구내 처음 들어서는 선원인 만큼 모든 대중들이 편안하게 찾아 함께 수행하고 불법을 전하는 작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포항 종합불교 복지시설 첫선

죽림사 교육원 5월개원 무료급식·진료·봉사활동

포항지역에도 무료급식, 무료진료, 청소년상담, 불교자원봉사(교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불교복지시설이 들어선다.

불국사 포항포교당인 죽림사(주지 향공)는 4월말까지 이같은 시설을 갖춘 포항불교사회교육원(원장 향공스님) 건립공사(예산 3억, 건평 120평)를 마치고 5월중에 개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달말까지 포항불교자원봉사회(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포항지회) 회원을 1차로 모집, 창립한다. 포항·울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정규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죽림사는 불교대학도 불교사회교육원에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0562)47-4688

노인시설 자혜 방생원 도안사 충주호에 개원

서울 상계동 도원사(주지 혜자)는 4월중 충주호 근처에 대지 7백평, 건평 3백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인 자혜방생원을 개원한다.



진각복지회 현판식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대표이사 성초)는 10일 통리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준비된 복지회'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관련기사 3면〉

태고종 26년만에 승려대회

25일 '국난극복' 기원…전산총회서 선암사 직영 선언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25일 선암사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태고종도 결의대회'를 갖는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난극복'이라는 표면상의 명분과는 달리 지난달 23일 조계종 세민스님이 선암사를 무단점거, 철수한데 따른 규탄 및 종단 수호를 위한 승려대회라는데 비중을 두고 있어 주목된다. 1천여명의 종도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승려대회는 1976년 9월 '종단 수호와 발전'을 위한 승려대회 이래 처음 열리는 것이다.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부종수교의 순교정신은 물론 종도들의 단합된 의지와 힘이 필요한 때"라고 전제하고 "자신을 정화하고 계율을 엄수하며 이익중생을 실천해 종단 발전과 자주화를 위한 계기로 삼자는데 이번 승려대회의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 앞서 태고종은 18일 긴급 각 교구 종무원장 및 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결의문 및 세부행사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이와관련해 7일 선암사에서 개최된 비상 전산총회에서는 △해종행위자 의법조치 △선암사 종단 직영사찰 관리 △선암사 수호와 삼보호지를 위해 총력을 경주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선오 운범 혜산스님 등 8명을 추가 제적시켰다.

IMF극복·화합 법회

합천불교연합회

IMF경제위기 극복 및 군민화합과 합천불교화합을 위한 합천불교연합대법회가 13일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봉행됐다.

종파를 초월한 합천군 사암연합회(회장 종성)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1부 법회, 2부 문화행사로 진행됐으며,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천국방 "종교편향 시정" 조계종과 내달 초 면담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의 천용택 국방장관의 면담요청과 관련, 이른 시일내 면담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방부 군종실 손병철 법사는 "11일 면담 요청서를 접수했으며, 3월중에는 각 군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4월초쯤 면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종교편향대책위는 군내 종교편향을 바로잡겠다는 천장관의 약속을 신뢰한다며 국방부의 공식 통보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천 국방장관은 4일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휘관이 특정종교에 편향되어서는 안되며 취임 즉시 종교편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도봉 해병대사령관의 '예수부대' 발언과 관련, 해군본부는 이번 주중 종교편향대책위원회 준비위에 조사결과와 이에따른 조치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 이교도 난동관련 목사 고발등 강력대응

천안 광덕사 안양암내 갈릴리교회 광신도들의 훼불행위사건과 관련 천안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묵조)가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천안시 불교사암연합회는 7일 보광사에서 비상대책위를 갖고 갈릴리교회 이창훈목사 검찰고발, 항의문 발송, 공개사과 촉구 현수막 설치등을 결의했다.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천일기도二百日 전국 禪院長·祖室·方丈큰스님 특별초청

千日기도 二百日 大法會

(재)선학원 中央禪院 祖室 李梵行 大禪師 초청 제3회 한국불교전통선(禪) 중흥영산대설법회상

모시는 말씀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은 송만공, 만해 한용운, 백용성 큰스님께서 화주가 되어 창건된 선학원은 3·1운동을 주도한 국운창출의 원찰이며 이효봉, 하동산, 정금오, 이청담 대선사께서 한국 불교계 정화불사를 이끌어 오늘의 조계종 전통종단을 중흥한 찬란한 역사를 창조한 선학원은 한국선종불교로 이 時代의 聖地임을 自他가 아는 事實입니다.

이 時代의 佛敎 聖地인 禪學院에는 특히 李成桂 太祖大王에 王師로 계시든 無學大師께서 宮터로 잡은 창덕궁(지금의 비원) 백토로 송만공 큰스님께서 손수 두분의 아미타불 부처님을 조성하여 한부처님은 선학원에 모시고 한부처님은 수덕사 정혜선원에 모신 선학원은 여러 명안조사님의 정기가 서려 있을 뿐아니라 선학원 중앙선원 동, 하안거 방함록은 전국 선원중 제일먼저 실여 있든 시절이 있었음을 돌이켜 볼 때 선학원의 禪風이 일면 한국 禪宗佛敎가 興하고 선학원의 위세가 가라앉으면 한국 禪宗佛敎가 혼돈을 겪는 것을 지켜본 후예로써 옷깃을 여미며 三寶任께 발원하여 선학원은 34년 만에 단청불사를 계기로 삼아 한국 선종불교 중흥의 도량이 될 선학원 대작불사 서원을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時代의 佛敎聖地 歷史的인 佛事에 선남선녀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길 바라옵고 단청불사 千日기도 동참공덕으로 가정의 괄란과 고와 액이 소멸되어 다행다복한 주인공이 되시옵길 축원합니다.

아 래

특별초청 법어 (재)선학원 中央禪院 祖室 李梵行 大禪師

선종소의경전 금강경 신심 산림설법 삼장법사 윤성해대법사(선학원 중앙선원장)

■ 때 : 1998년 3월 21일(음2월 23일) 오전 11시

■ 곳 :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큰 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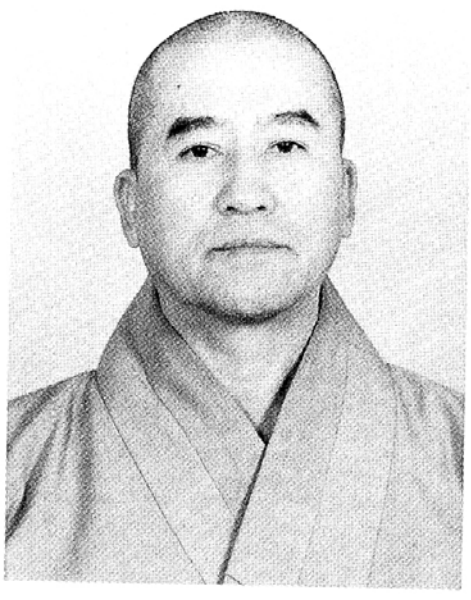
■주 최 :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화주단

■주 관 : 신도회·운영위원회·합창단·108보리심회·선정회·청년회

■문 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
TEL. 732-3327, 720-8583, 720-8584

불기 2542년 (음) 2월 23일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원장 삼장법사 윤성해 합장



◆ 李梵行 대선사 약력

· 서울조계사 주지 · 불교신문사 사장 ·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겸원장
· 경주 불국사 주지 · 덕숭산 수덕사 주지 · 수원 팔달선원장겸
· 대구 동화사 주지 · 한중 고승초청대법회 (재)선학원 중앙선원 조실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중흥불사 개요

1차
① 기와 개수공사 완료
② 내부 페인트 공사 완료
③ 단청불사 (34년만의 불사) 완료
④ 가스배관공사 및 보일러실(5개를 하나로 하는) 공사
⑤ 일주문 전통양식 건립불사

2차
⑥ 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 중흥불사 千日기도 二百日 전국신원장, 조실, 방장큰스님 특별초청
韓國佛敎傳統禪中興靈山大設法會上主催 제1회~제10회(매 백일간격으로)
⑦ 선학원 창건 사적비 새움 (3.1 운동주도 구국원찰)
⑧ 한국불교계 정화불사 기념비 및 時代佛敎聖地 宣布法會
⑨ 한국불교계 淨化史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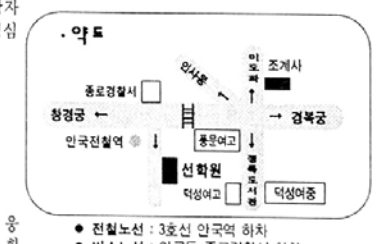
◆ 화 주 단

황자현심 이관음행 유정혜성 손진여심 윤보광심 정선각행 송 경 헌 신 옥 순
민길상심 권지애심 정본각성 박선혜일 이법왕자 이보현심 김마하연 박보리성
오만덕화 김복덕성 박덕순화 이 광 덕 지 혜 장 곽성불성 고만덕성 김도원행
이보원심 운영위원일동

◆ 신 도 회

명 예 회 장 엄무영월
고 문 양보타월 이선행화 이연화심 이 중 희 엄공덕화 정본각성
회 장 이관음행
부 회 장 이반야행 최 복 식 유정혜성 황자재심
총 무 신성지행 이법왕자
재 무 손진여심 신원명심
1 지역회장 이반야행
2 지역회장 유정혜성
3 지역회장 최 복 식
4 지역회장 황자재심
합 창 단 단 장 유정혜성
총 무 김진심행
108보리심회 회장 최 인 순
총 무 박보리성
선 정 회 회 장 김 성 웅
총 무 이 상 희
운영위원 경 규 춘
안 철 도 윤 성 로
청 년 회 장 이 상 훈

· 약도



● 전철노선 : 3호선 안국역 하차
● 버스노선 : 안국동 종로경찰서 하차
(84, 132-1, 205, 543, 2, 8, 20, 153)

봉은신도 IMF극복 운동

회원 업종별 주소록제작 등 '서로돕기' 전개

총체적 IMF난국을 맞아 불자 상호간의 교류와 국난극복을 위한 불자서로돕기 운동을 선언하고 나선 신행단체가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 삼성동 봉은사 신도회(회장 이차갑)가 펼치고 있는 '봉은불자서로돕기운동'이 바로 그것. 봉은불자서로돕기운동은 신도가 운영하는 상점 또는 사업체를 책자에 소개해 필요한 물품 구입시 신도회원들의 업체를 애용함으로써 우호증진과 신심함양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위해 신도회는 봉은사불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점과 사업체를 소개하는 봉은불자 사업안내책자 BBN(Bong eun Business Network)발간 준비작업에 착수,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책자에는 봉은사 신도만 참여할 수 있으며 1차적으로 3백여곳의 상호와 사업체를 신청받아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5천여부를 제작해 봉은사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신도회는 사업안내책자가 반응이 좋으면 지면을 확대해 계속 발행할 계획이다. 또 신도회는 봉은불자서로돕기 일환으로 상조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신도중에 실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로하는 한편 각종 애경사를 통해 회원들간에 불심과 화합을 다지자는 것. 이밖에도 신도회는 서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추진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차갑 봉은사 신도회장은 "그동안 바로옆에서 법회를 보는 법우가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였다"고 지적하고 "봉은불자서로돕기 운동을 통해 신심증대, 교류 및 단합등 신도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제한파로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봉은사 신도회가 펼치고 있는 불자서로돕기운동은 각 사찰 신도회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근 기자〉

군법당 운영 신도참여 제도화

군승단, 새규정 마련…매달 재정보고 의무화

군승단(단장 이희용)은 군법당의 재정 투명성과 합리적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 '군승단 규정(안)'을 마련, 이달 말 열리는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군승단 기획국내 제도정비위원회(위원장 강보승 법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규정(안)은 △군법당의 투명한 운영과 군법사의 임무 △감사와 상벌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법당 상임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신도들의 불전함 관리 등 법당운영 참여를 제도화했다.

또 모든 군법당은 매달 군승단에 재정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군승단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결산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군승단의 자정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4월25일 '금식의 날'

4월25일이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 금식의 날로 지정됐다.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한국위원회(공동대표 강문규)는 12일 월주스님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4월25일을 북한동포를 위한 금식의 날로 지정, 세계 주요도시에서 금식과 모금행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입문→교리→경전→전문심화교육

4단계 신도교육체계 마련

조계종 포교연구실

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효종)은 신도교육의 해에 따른 '신도교육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신도체계(안)에 따르면, 입문(초급) 교리교육(중급) 경전교육(고급) 전문심화교육 등 4단계로 나눠 교재 및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각 교육과정의 교재 및 실천수행, 기간은 다음과 같다.

△입문교육: 〈불교입문〉, 수식관, 6개월~1년. 이 과정을 이수하면 삼귀의계를 수계한다. △교리교육: 〈불교교리〉, 지관선, 1년, 불자5계 수계. △경전교육: 기본경전 〈아함경〉, 간화선, 4년, 보살계 수계.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법성스님은 11일 "각 사찰의 상황이 천차만별이므로 신도교육 체계의 일률적 적용 어렵다"며 "올바른 신도교육을 위한 하나의 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연구실은 4월중 신도교육 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석방된 진관스님(가운데)이 지선스님(왼쪽)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진관스님 석방

15대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

96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이 13일 제15대 대통령취임 축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건강한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온 진관스님은 "아직도 5백여명의 양심수들이 갇혀있는데 먼저 나와 미안하다"며 "양심수 없는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관스님은 구치소를 나온 직후 조계사로 출발, 대웅전에 참배하고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지선스님(백양사 주지)과 지명스님(실천불교승가회 사무처장) 박강희씨(불교인권위 전사무처장)를 비롯 불교인권위 전국불교운동연합 실천불교승가회 회원 20여명이 나와 진관스님의 석방을 맞았다.

신협, 서민경제 동반자 역할

부산불교신협등 전국 10곳…저리대출 장점

불자 경제협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교계신협들이 IMF시대 서민경제의 동반자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교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협은 부산불교신협, 광주 관음사신협, 조계사신협, 원주 성불신협, 속초 신흥사신협, 대구 보현신협, 태고종신협, 광주 향림사신협, 능인선원신협, 청주 심원용화사신협 등 10곳. 이들신협은 연 12%~19%에 이르는 금리와 14.5%~18%선에서 적용되는 대출금리로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이 안심하고 목돈을 맡길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예고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전산망을 갖추고, 지로·자금이체·현금자동입출금·공과금 수납·어음할인 등 은행수준의 다양한 부대서비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지역불자들의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계신협가운데 조합원수 5천명, 총자산 2백10억에 달하는 최대규모의 부산불교신협(이사장 사상호)은 최근 대출신청이 지난해 보다 1.5배정도 늘어나, 소액을 중심으로 대출업무를 실시중이다. 부산불교신협 김병주대리는 "하반기 온라인 업무시행에 앞서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공과금 수납을 대신 처리해주고 있는데, 호응이 아주 좋다"고 말했다.

원주 성불신협(이사장 현각)의 경우는 94년 개설한 명륜동의 본소에 이어 지난해 10월 원동에 성불신협지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불자들의 동참확대와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들 교계신협들이 금융개방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하며, 지역불교포교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불자들의 참여와 신협자체의 다양한 서비스개발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이은자 기자〉

"위안부할머니 5명 중국에 살고있다"

혜진스님 확인

일제 때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됐다가 지금까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할머니 5명의 생존사실이 나눔의집 원장 혜진스님에 의해 새롭게 밝혀졌다.

이들은 지린성 훈춘시에 살고 있는 박서운(83) 조윤옥(75) 할머니와 헤이룽장성 동령현에 사는 지돌이(75) 김숙란(75) 이봉운(76) 할머니.

나눔의집은 이들 가운데 2명의 가족이 국내에 살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지돌이 김숙란 할머니에 대해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나눔의집에 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가칭)은 8월15일 광복절로 개관이 연기됐다. (0347)768-0064

홍콩 홍법원 신도들 금모아 고국에 헌납

대한불교조계종 홍콩홍법원(주지 성문) 신도들이 금모으기운동을 벌여 지난 9일 그동안 모은 금 450g(6천6백만원 상당)을 국가에 헌납해달라며 주홍콩 한국총영사관에 기탁했다. 신도들은 지난 1월부터 조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발원하며 금오으기 운동을 펼쳐왔다.

훈할머니 이달말 영구귀국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지 반세기만인 지난해 고향과 혈육을 찾은 훈할머니 이남이(73)씨가 이달말께 영구귀국한다.

훈할머니돕기 불교후원회(공동의장 설조·법타·법조)는 8일 "지난해 10월 한국국적을 취득한 뒤 캄보디아 국적포기 절차를 밟아 온 훈할머니는 최근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 이달말께 귀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목탁소리

쉼터를 재기의 터로

이 은 자 〈취재1부 기자〉

실직자들이 재기의 의지를 가다듬고 경제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바로 IMF쉼터들이다. 지난 1월말부터 문을 열기 시작해 웬만한 지역 사찰에서는 이미 쉼터를 운영중이거나 단기출가 수련회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실직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순수한 뜻에서 시작된 이들 쉼터는 그러나 문을 연지 한달여만에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각종 사무기기와 취업정보 등을 갖춰 놓았지만 정작 찾아오는 실직자들이 거의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버린 곳도 있고, 어렵게 실직자의 취업을 알선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자격 부적합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되돌아 오기 일쑤기 때문이다.

대구 불교사회복지회 부설 남구희망의쉼터 이호준소장은 "실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문을 열었지만 현실에서 재취업의 벽은 너무도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각 쉼터에서 실직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마련한 참선, 사경, 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단순한 복지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적극적인 쉼터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단기출가수련회, 귀농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실직자의 정서적 안정과 자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면 실직자들의 정서적 불안은 함께 해소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따라서 개별단체의 일시적 방편으로써가 아니라 쉼터, 무료직업소개소, 단기출가수련회 등의 적절한 활용과 교류로 실직인력 활용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IMF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따뜻한 인간애, 공업중생의 삶을 돌아보게 했다. 교계의 쉼터들은 바로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도량이다. 실직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쉼터운영의 방향을 다시한번 점검해야 할 때다.

뉴스 & 뉴스

北 대장경해제 25권 출간

북한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팔만대장경 해제〉 25권을 펴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방송은 '민족의 자랑 팔만대장경'이라는 제목의 프로에서 〈팔만대장경 해제〉는 원전에 수록된 1천5백37종 6천7백93권의 서적의 내용을 전부 소개하고 종별로 개괄적인 설명을 해놓았다고 보도했다.

동국대 룸비니관 기공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과학관 뒷편에 식당전용 건물인 룸비니관을 건설키로 하고 11일 기공식을 가졌다.



연면적 1천6백여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로 건설되는 룸비니관은 학생들과 교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련, 내년 2월 완공예정이다.

에밀레종 보호막 백지화

성덕대왕신종(국보 29호)을 풍화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리보호막 설치계획이 백지화돼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강우방)은 "성덕대왕신종에 대한 전문기관의 종합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대책을 수립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6월에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자연통풍이 잘 되는 상태에서 보존할 수 있는 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교리' 고불식 4월로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17일로 예정했던 〈불교교리〉〈통일법요집〉 출판고불식을 〈통일법요집〉의 재편집 관계로 인쇄가 늦어짐에 따라 4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그러나 〈불교교리〉는 예정대로 16일 발행했다.

옥련선원 뒤 교회수양관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백산에 위치한 옥련선원(주지 상훈) 50m 후방에 교회 청소년수양관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자연녹지와 사찰수행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수영로교회측이 건립 계획 중인 연건평 4백평규모의 지하 2층, 지상 8층 청소년수양관은 해발 1백29m의 백산 중턱인 해발 50m에 세워질 예정으로, 진입로와 대지 6백평 조성을 위해 녹지훼손이 불가피할 실정이다.

이에 백산보호운동연합(공동대표 김만병)과 지역주민 5백여명은 지난 27일 부산MBC 사옥앞에서 교회 수양관 건립에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수영구청을 방문, 4천여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봉 축 현 수 막

불기2542년

奉 부처님 오신날 祝

대한불교 ○○종 ○○사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아기부처님 관욕의식을 상징화하여 한울기획에서 현수막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아기부처님은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고 한량없는 공덕을 쌓는 신행의 표본입니다.

·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에 아기 부처님을 칼라로 넣어서 제작해 드립니다.
· 공정이 복잡하여 미리 주문을 받고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도 큰스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가격 90cm × 6m = 35,000 (그외의 현수막은 상담후 결정)

한울기획 T. (02)474-2040~1 F. (02)477-2316

현수막 1장 주문하시면 등꼬리표 100장을 드립니다.

여성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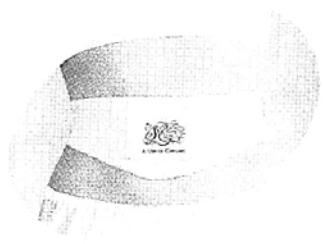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

를 사용해 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 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옅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케이블TV가 흔들린다

교육전문 케이블TV인 다솜방송(채널26 · 대표이사 서한샘)이 5일 최종부도를 냄에 따라 엄청난 적자에 가른 숨을 몰아쉬고 있는 케이블TV 업계가 잇단 부도위기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96년말부터 방송을 시작해 2년째인 다솜방송은 경영난으로 인해 1년전부터 세모 · 성원그룹 등과 매매협상을 벌였고, 장르 변경을 모색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해 왔으나 경제한파로 실패했다.

이번 다솜방송의 부도는 케이블TV 업계의 비상을 의미하는 신호탄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한국케이블TV협회(회장 조경묵)가 2월7일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분과위에 보고한 현황이 잘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9개 프로그램사업자(PP)들이 개국후 97년까지 기록한 누적적자는 6천5백2억원, PP중 자기 자본을 잠식한 곳은 현대방송(HBS) 여성채널 G TV 등 8개사에 이르고 빚만 해도 총 3천7백66억원이다.

여성채널 G TV는 이미 법원에 화의 신청을 내고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며 교육채널 DSN도 10일 (주)재능교육에 55억원에 매각했으며 대기업 계열인 DCN(대우)캐치원(삼성)도 모기업 지원이 줄어 감원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는 등 대부분의 케이블TV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널중복-부채누적 원인
'다솜' 부도-GTV 화의신청
btn도 겨우 명맥 유지

이번 다솜방송의 부도에 대해 케이블TV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받은 은행 어음 결제 만기일이 3~4월인 PP들이 많다"며 "이런 실정이라면 연쇄부도의 파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교계의 케이블TV 방송사인 불교TV(사장 정우스님)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지난 2월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3월21일 동원 파이낸스에 지불하기로 돼 있는 20억원의 부채를 일부만 상환한채 조속한 시일내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연기시켰으며 대동은행에 4월10일 상환예정인 부채도 잠정적으로 유예시키는 등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상태다.

불교TV는 별 뾰족한 대책은 없지만 공중파와 지역민방 등에 프로그램 판매사업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교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실정을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느냐는 자문을 하고 있다. 같은 종교방송인 기독교TV도 총 1백30여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조재구 사업지원국장은 "중계유선방송국과 종합유선방송국(SO)이 통합되거나 단일사업화 한다면 케이블TV의 유료 가입자는 6백만~8백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가입 시청자수의 증가로 케이블TV 업계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영화 '성철' 금강산 로케 추진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조명한 영화 '성철'(감독 박철수)이 금강산 등 북한 촬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80%의 촬영을 마친 박철수 감독은 "성철스님이 금강산에서 수도를 하는 장면만큼은 꼭 북한 금강산에서 촬영하고 싶다"며 "통일부와 불교계 민간단체 등을 통해 방북촬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 '성철'은 북한 촬영을 보충해 부처님오신날 개봉한 뒤 국제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이다.

불교방송 구조조정 착수 노조 '고용보장' 철야정진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12일 부장급이상 15명에 대한 일괄 사표를 받고 다음주 중으로 선별수리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한편 여섯 차례에 걸쳐 회사측과 협상을 벌여온 불교방송 노조는 12~14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는 1080배 철야정진을 했다.

신행수기 당선작

특별상〈종단협회장상〉

아니, 미국까지 와서 ③

이 혼을 당한 나는 온 밤을 하얗게 지새며 '왜?'라는 질문 속에서 눈물만을 흘렸다. 참회, 아스라이 보이는 인연의 끈. 모두 내 과거생의 업으로 돌리며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온통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처럼 느껴져 자꾸 움츠러들었다. 욕을 바른 생활, 결격사유 없는 사회인, 가정, 자녀교육등 어느 한가지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생활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이러한 치욕적인 삶의 기로에서 밤이면 참회의 통곡으로 내 안에 가득찬 원망과 미움의 독기를 몸아내기 위해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그것이 염불인 줄도 모르고…. 미움과 원망을 갖지 않는 인연법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내 감정에 깊숙히 박혀있는 원통함은 쉽게 빠져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 부처님의 자비가 이렇게 절실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사랑으로 감싸줄 수는 없을까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자격이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나 알고 말하느냐. 너는 저주받은 X이다." 교회 다니는 동서한테 했던 하소연을 전해듣고 50년도 넘게 기독교신앙생활을 하신 시어머니는 그렇게 내뿌가 멍할 정도로 크게 답해주셨다.

그것은 가슴 에이는 아픈 말이었지만, 나에게서 원망과 미움의 굴레를 벗기는 예리한 칼이 되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며칠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던 나에게 그 소리는 오히려 위로의 말이 되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 나는 저주 받은 사람이라는 것.' 나는 그말의 화두에 걸려 몇날 며칠을 보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집중되어 밤을 밝히던 어느날 새벽 어스름을 맞으며 내 육신의 무게를 느낄 수 없는 이상한 상태를 경험했다. 깃털보다 더 가벼워진 육신. 내가 없는 것 같은 상태의 나. 그리고 맑게 벗기워진 원망과 미움의 찌꺼기들. 그들은 미움의 대상이 아님을 알았다.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아픔으로 원망과 미움을 치유할 수 있는 부처님 법을 만났다. 모두가 불성을 지닌 인간들이지만, 탐 · 전 · 치 삼독에 가려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고를 가지지 못하고 바른 언어를 쓰지 못하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없다면, 그들은 오직 가엾게 여길 중생일 뿐인 것이다.

여명을 밝히는 빛을 따라 침대에서 일어난 나는 맑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볼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다. 그렇게 눈물이 흐르게 두었다. 비참하거나 슬프지 않은 어쩌면 환희의 눈물인지도 모를 울음을 오래도록 울었다. 누군가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을 받으며 눈물을 닦았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님을 알았다.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님을 감지하며 이 세상의 온갖 것 속에 속해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었다. 몸과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이제는 희로애락의 감정에도 그렇게 휘둘릴 것 같지 않았다.

이 세상 그 어느것도 내 소유가 아님을 깨닫고 욕심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림 · 이준석

그후,

늘 자신의 예기치못했던 처지에 왜소해지던 마음이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나는 단지 일반적인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독특함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 부처님법이 아니었다면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의 깊은 뜻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 이 세상 그 어느것도(가정, 자식, 재산) 내 소유물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소유욕에서 비롯된 욕심의 고통도 그래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부처님 법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자유스럽게 생각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 눈물겹도록 고마운 불법이다. 수승한 부처님 법을 만났기에 행복하다.

김연장 〈미국 뉴욕시 거주〉





즐거움 가득한 천상에 살아

불화와 성화비고 33장면 ④

천녀와 천사

불화와 성화에서는 천녀(천사)가 많이 나타난다.

◇일본 西福寺 소장 고려 관경십육관변상도(1300년 전후 제작추정)중 부분. 천녀가 꽃을 들고 천의를 휘날리며 날고 있다(사진 위).

◇판투리치오 작 '그리스도의 세례'(1481~1483년) 중 천사(부분도). 이 작품에서 어깨 위는 날개가, 아래에는 천의가 달려 천사의 날개 변용을 보여주고 있다.

천녀는 천의(天衣)를 입고 악기나 아름다운 꽃 또는 기이한 음식이나 과일을 들고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늙지 않고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가득한 천상에서 산다. 〈장아함경〉에서는 질투를 멀리하고 보시를 많이 한 공덕으로 천상에 나서 천녀가 되는데 그 즐거움이 한량이 없다고 묘사되어 있다.

성화에서 날개를 단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많이 표현되는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맡는다. 초기 그리스도 미술에서는 날개없이 천의를 걸치고 있는 천사들이 등장, 불화에서의 천녀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15세기 이후 그림의 천사들은 대부분 날개를 달고 있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PCS 016을 쓰시면 1년에 20만원이상 절약됩니다.

(월400분 사용기준)

오래 쓰시면 추가로 최대 20%까지 할인됩니다

이용기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할인율	5%	10%	15%	20%

번호를 지정하시면 20%가 더 할인됩니다

3개 번호까지 자주 쓰는 번호를 지정하시면 그 번호의 통화요금은 20%이상 할인됩니다 (월사용료 2,000원 별도)

PCS 016의 표준요금

구분	요금		
기본료(월)	16,500원		
통화료(10초당)	평상(19원)	할인(15원)	심야(10원)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 조성을 위해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특별할인 판매합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란?

PCS 016 가입시,「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사용 통화료의 5%가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 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 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 나라

주관:현대불교신문사
후원: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감로심장회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포교기금」
☎:(02)732-1522, 737-8881,
FAX:(02)737-0697 (02)737-0698, 0696

● 특가 판매 ●

- LG LGP 1300
- 현대 걸리버 1100
- 삼성 애니콜 1100, 2000

시중 최저 가격!

■ 98년 3월 가입자에 한하여 특가판매와 440분의 무료통화 시간을 드립니다.

소리가 보인다

PCS 016